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61 / September / 2007

0709

칼럼
Are You O.K. Architecture?

사진
건축사의
가식의 반복과 끊어진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자

특별작품
충남 천안대
인천 연수동
대구 북구교체고등학교
현대증권 연수점
동주동 미
미스 오인텔
워커힐리얼리티스토어

작품노트
무한경이에 무한경이에 무한경이에

한국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6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 137-87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gods@kira.or.kr
<http://www.kira.or.kr>

건축사

Korean Architects



대한민국 건축설계 새로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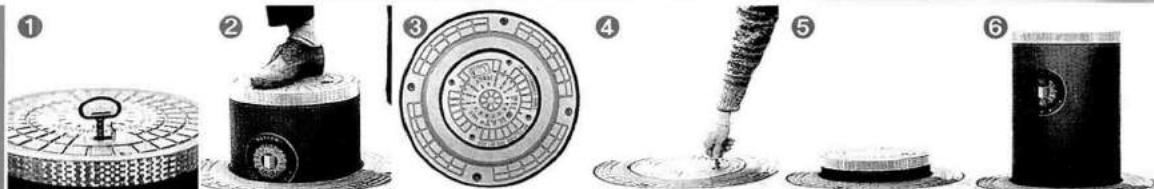
필요할 때 올리고 필요할 때 내릴수 있는

World Best Bollards

새로운 건축물의 조화!
도시 공간을 새롭게!



World Best Bollards



테러방지용
USA 품질인증
K12-L1

협오감이 느끼는 바리케이트를 대체!
운현궁 차량돌진, SK텔레콤 차량돌진 테러!
이제는 **Bollard**로 완벽하게 해결!!



- 차량도난보안
- 주차관제, 교통관제
- 차량테러보안 (개인, 은행, 대사관, 군사시설, 문화재 등)
- 차량범죄예방 (차량침입, 과적차량 등)



Automatic Type

- 리모콘
- Magnetic Loop
- RFID Card 인식
- 차량번호 인식

『한국건축산업대전 2007』 볼라드 전시
2007년 10월 2~6일 코엑스 인도양홀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99-4 번지

TEL. 043-231-6611

FAX. 043-232-6427

H·P. 019-232-7181

E-mail. bcyoon@techwin.co.kr

www.polytechenc.co.kr

한국 TSC
(주)테크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66-26번지

TEL. 043-261-7270

FAX. 043-261-7139

H·P. 019-456-8131

E-mail. dskimc@techwin.co.kr

www.techwin.co.kr

아시아총판
(주)풀리텍이엔씨

■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서 취득
(제 2005-153호)

■ 산자부기표원 EM MARK 취득
(2005-046호)

■ 대한건축학회인증

■ 한국구조기술사회인증

Truss Deck
2way Deck Slab System

Truss Deck

Hi-Deck

J.F-Deck
(Joint Floor-Deck)

NT-Deck
(New Truss Deck)

용접결합이 없는 데크플레이트

하부면 노출시 도색불필요

접합부 누수방지

NT-Deck
(New Truss Deck)
Truss Deck



[주]제일테크노스

<http://www.jeil21c.co.kr>

본사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철강공단 2단지)
TEL : (054)278-2841(代) / FAX : (054)278-2917

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6 남도빌딩 5F
TEL : (02)555-2055(代) / FAX : (02)554-1476



“좋은 주차기를 선택하는 기준”

- 조작이 쉬운가?
- 잔고장이 없는가?
- 소음없이 조용한가?
-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가?
-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동양PC의 SMART PARKING은
유럽안전규격인 CE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 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주차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무려 60%가
건축 환경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출된 탄소는 하늘을 공해로
덮고 지구 온난화를 촉진합니다.

BIM 구현을 위해 개발된
Revit®으로 에너지 소비량과 폐기물
등 건축물의 영향을 사전에 파악,
에너지 소비량과 폐기물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모델 작업을 통해
사용자들은 설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제 건축
작업에 앞서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utodesk.co.kr/revit을
참조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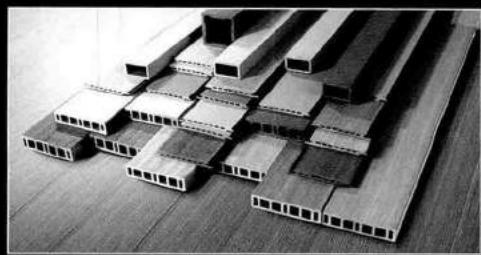
**BIM(빌딩 정보 모델링)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림같은 공간을 꿈꾸세요”

공간에 대한 긴:생각 Z:IN 사이데온

사이데온은 다양한 컬러와 간편한 시공으로 모던한 분위기에서 클래식한 분위기까지 차별화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사이데온은 특수코팅된 고급 목분을 사용하여 나무의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 신소재입니다.
 ▶내수성이 뛰어나고 곰팡이,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필색과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얼룩이 지지 않습니다.
 ▶Fashion 자자입니다. ▶시공이 간편합니다. ▶유지보수가 쉽습니다.

| 시공사례 |



▲ DECK

▲ SIDING

▲ LOUVER

▲ TERRACE

▲ BALCONY

▲ FENCE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실용신안등록 제20-0329557호



6年이 걸렸습니다.
턴테이블 내장형
개발완료!
시판개시!



"2006 한국건축산업대전 참가전시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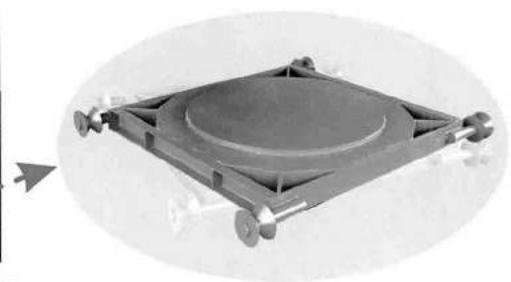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적 특허방식인

유압리프팅 구동방식의 新메커니즘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이렇게 다릅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 줄었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 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주차"를 입력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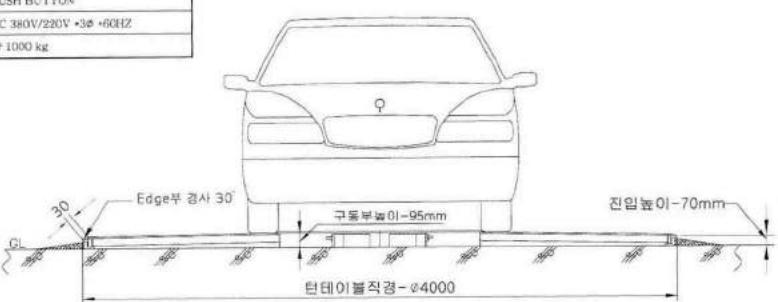
■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최小)	주차기 길이(최小)	소요높이(최小)
SKY PARK-5	5 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 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 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 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 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 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 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 대	4570	6090	13060

▼ 자매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실용신안등록 제20-0233726호

별 칠	장공년테이블(신형)
수 용 차 종	중·소형 승용차(무게 2000kg 이하)
구 동 장 치	마찰 구동식
구 동 모 태	0.15 KW × 4P = 3kW
성 격 속도	약 1 RPM
조 제 방 법	PUSH BUTTON
연 험 전 원	AC 380V/220V ▶3Φ ▶60HZ
자 쪽 중 량	약 1000 kg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전국 대표전화
(상담, A/S)

1544-3335

E-mail : cgp210@kornet.net

FAX : 054)973-0067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번지 1층 A/S : 02)323-4448

부산사무소 : 051)303-2296

FAX : 054)973-0067

A/S : 02)323-4448

광주연락소 : 062)942-6923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株)창공駐車産業
www.Juchagi.com

Since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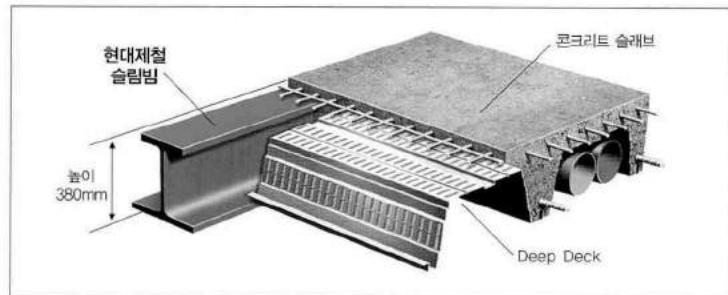
한글 도매인 : 주차

달콤한 차이! 한 층의 차이가 보입니다

건물 높이 제한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충고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충고를 줄여 10층 높이에 11층을 지을 수 있는 혁신적인 플로어 솔루션인 슬림
플로어 공법. 현대제철이 함께 합니다. 현대제철 '슬림빔'은 국내 최초로 개발
된 압연 비대칭 H형강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짹~ 줄이고, 임대면적과 수익
률은 확~ 늘려 드립니다.



슬림플로어 공법



슬림플로어 공법은 출이 깊은 네크플레이트를 슬림빔의 하부플랜지 위에 위치시켜 적은 철골보를 생략함과 동시에 충고를 줄이는 충고절감공법입니다. 현대제철 '슬림빔'은 하부플랜지가 상부플랜지보다 긴 압연 비대칭 H형강으로 국내 최초로 현대제철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국내 적용 사례



오피스



지하주차장
죽전민자역사 신세계백화점



지상 자주식 주차건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현대제철 슬림빔 – 이것이 다르다

More Floors

- 층당 25~40cm 층고 절감으로 10개층에 1개층 추가 가능
- 분양면적, 임대면적 증가로 사업성 향상

Cost Down

- 작은 보 생략으로 철골량 30% 감소
- 층고 절감으로 내외장재 비용 5~10% 절감
- 철골보의 하부플랜지만 내화피복 필요, 70% 비용절감

Fast Construction

- 철골량 감소 및 양중 수 감소로 제작 설치 기간 30% 단축
- 지하층에 적용 시 토공사량 감소

Contents

- 22
32
36

건축사
korean architects

호 461
9 2007
자례

칼럼	Are You OK! Architecture?	조총기	12
시론	건축사여…가식의 빈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자!!!	김지한	14
안내	2007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유원재	16
건축만평		이상립	19
회원작품	송암 천문대 안산연구센터 대구 제일교회 교육문화관 현대증권 연수원 동주빌딩 미소 요양병원 액추얼리 빌딩 & 카페	이상립 · 강성인 정영균 김태운 · 박태환 신창호 · 김호일 전재근 · 권영주 · 김종관 이상현 이성란	20 30 36 42 48 54 60
작품노트	무림페이퍼 무림 SP 본사 사옥	백민석 · 오혁근	66
현상설계	청주 노인전문병원 강남구 대치동 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70 74 76
연재	건축주 브리핑 - 관점의 중첩 (完)	김주형	80
건축기행	미국 뉴욕 건축기행(1)	민윤기	88
기고	탄자니아 KOICA 현지조사를 다녀와서	김형수	96
건축마당	협회소식 건축계소식 백민석_책을 말하다 통계 해외잡지동향		99 105 107 108 110

발행인 한명수
 편집위원장 조원용(편집국장), 민규암 · 김형수
 취재·편집 최학정 팀장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137-877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스 번호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인쇄 (주)대문화사 Tel : (02)2278-4482
 광고문의 홍보편집팀



46



52



55

Korean Architects

Vol. 461

September 2007

Column

Are You O.K! Architecture?	Cho, Chung-kee	12
----------------------------	----------------	----

Focus

Architects, Fearlessly Step Foward without Pretense!!		
	Kim, Ji-han	14

Cartoon Works

Song Am Astronomical Observatory	Lee, Sang-leem & Kang, Sung-in	20
Ansan Research Center	Jeong, Young-kyoon	30
Educational Cultural Center,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Kim, Tae-yun & Park, Tae-hwan	36
HyunDai Securiti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Shin, Chang-ho & Kim, Ho-il	42
Dong-Joo Building	Jeon, Jae-kun & Kwon, Young-ju & Go, Jong-gon	48
Miso Sanatorium Hospital	Lee, Sang-heon	54
Actually Building & Café	Lee, Sung-ran	60

Design Note

Moorim Paper Moorim SP Office Building	Baek, Min-seok & Oh, Hyek-geun	66
--	--------------------------------	----

Competition

Cheongju Geriatric Hospital	70
Gangnamgu Daechidong Kindergarten	74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Institute Center	76

Serial

Client Briefing - Perspectives Overlapping(3)	Kim, Ju-hyeong	80
---	----------------	----

ARCHITECTURE TRAVEL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New York(1)	Min, Yoon-ki	88
--	--------------	----

Feature

KOICA site survey project in Tanzania	Kim, Hyung-soo	96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99
Archi-Net	105
Book Review	107
Statistics	108
Overseas Journal	110

Publisher	Han, Myung-soo
Assistant Editor	Cho, Won-yong & Min, Gyu-arn & Kim, Hyung-soo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Are You O.K! Architecture?

“건축과 건설은 무엇이 다른가?”

설계 강의 첫 시간! 학생들에게 항상 던져보는 의도적인 물음이다. 건축은 본인에게 천부적인 재능과 상당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건축은 시공기술 개발을 통하여 건설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건설과는 달리 창의성, 전문성 제고를 통한 건축문화 창달이라는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건축은 무엇을 만들까?(What to build?)를 추구하는 ‘창작활동’ 인 반면 건설은 어떻게 만들까?(How to build?)를 추구하는 ‘생산활동’ 이라는 점이다.

언젠가의 일이다.

“왜 우리나라의 건물은 다 똑 같습니까?”

“내 건물 내가 짓는데 감리도 내 맘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

머뭇거렸다. 팬스레 남의 평계나대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오인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좁은 땅에서 먹고살기도 어려웠던 시절에서 이 만큼 살게 된 것도 건설기술자가 최고의 직업으로 회자되었던 국가 주도의 건설한국의 덕분이었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니 우리나라에는 건축은 도외시된 채 오로지 건설만이 군림해 왔다. 그마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제한, 도로사선제한, 층수제한 등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제한하는 건축 관련법 하에서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건축의 본질인 창작의 재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하는 재주로 왜곡 발전되어져 왔다. 건축이 건축다워지려면 ‘용적률 및 파난과 일조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직적 제한과 수평적 제한은 철폐’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제건축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얼마 전 실무협상 차 창작산업인 건축의 선두주자라는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건설사의 설계경쟁에 대하여 문의한 바가 있다.

“네덜란드에는 건설사가 건축사를 고용하여 설계를 할 수 있나요?”

상당한 의아스러운 반응과 함께 대답이 되돌아온다.

“예?”

국가는 국가의 틀을 생각하고 국가다운 사고로

모든 전문분야가 국가발전을 위해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바탕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경주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유럽선진국은 건축을 창작산업으로 인식하고 엄청난 국가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이 국제화 시대에 선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나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건축사만 설계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전적 도용으로 업무의 영역도
다른 건설사에게 건축사 업을 허용하는 일에 국력을 소비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은 그만 두어야 한다.

“법으로 정할 이유가 없지요!”

“여기는 건설사 또는 개발업자가 건축사를 고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여야 할 최고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보호라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기거하는 건축물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낭 적당한 면적이하는 ‘알아서 설계하여 신고하고 알아서 짓짓고 그 안에 살아라.’라는 현행법은 더 이상 존치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감기가 걸리면 의료보험하니 해서 국가가 나서서 약값 의료비 보태주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중대한 사안은 감기보다 못한 것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 이상한 행정의 표본이다.

설계자가 감리를 못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 세계적으로 그 사례가 없다.

개인 사유의 건축물을 두고 국가가 공공성을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감리자를 지정한다는 법적인 제한은 바로 정립되어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사를 고용해서 설계하고 감리해서 건축물을 짓겠다는데 국가가 나서서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비를 지불하는 건축주를 고발하게 하는 우리의 제도는 고쳐야 마땅하다. 도대체 국가가 나서서 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은 국민의 생명이 안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은 안전하지 아니하다는 것인지가? 아니면 안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국가는 국가의 틀을 생각하고 국가다운 사고로 모든 전문분야가 국가발전을 위해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바탕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경주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유럽선진국은 건축을 창작산업으로 인식하고 엄청난 국가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이 국제화 시대에 선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나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건축사만 설계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전적 도용으로 업무의 영역도 다른 건설사에게 건축사 업을 허용하는 일에 국력을 소비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은 그만 두어야 한다.

건축에서 국가가 할 일은 감리자의 지정이 아니라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라는 국가의 순기능을 성실하게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최우선순위 일 것이다.

바라노니,

모든 국민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건축아! 괜찮니?”

건축사여… 가식의 빙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자!!!

Architects, Fearlessly Step Foward without Pretense!!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sense of meaningfulness)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느낌(sense of choice)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느낌(sense of competence), 실제로 진보하고 있다는 느낌(sense of progress)을 갖게 될 때 일 속에서 재미와 열정을 느낀다.’

– Kenneth W. Thomas(2000), *Intrinsic Motivation at work*

요즘 들어 우리 건축사들에선 ‘건축’과 관련된 민감한 현안들이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어 회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건축기본법’ 제정, ‘건축사법’ 개정, ‘한미 FTA 협정’, 건설사 설계겸업 문제, 건축사 등록원 설립문제 등등… 이러한 여러 현안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필자에게 할애된 지면의 한계로 다음으로 미루고 그 현안들의 중심에 서있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회원들에 대해 필자는 영화 ‘라디오 스타’라는 대중적인 소재를 통하여 이야기해보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한다.

과거 통기타와 Rock을 좋아했던 세대라면 한번쯤 보았을 영화이고 영화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웃고 울었던 영화일 것이다. 이 영화의 감독은 ‘왕의 남자’로 더 유명해진 이준익 감독이 맡았으며 주연은 88년 가수왕 ‘최 곤’ 역에 박종훈, 그의 열렬한 팬이자 매니저인 ‘박민수’ 역은 안성기가 맡아 열연한 영화이다. 할애된 지면 관계상 영화줄거리는 생략하겠다.

필자가 갑자기 이 영화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은 영화의 내용이 지금 우리 건축사들과 대한건축사협회가 처한 현실적 상황과 매우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함께 생각해보기 위함이다.

이 영화를 통하여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88년 가수 왕을 차지하여 최정상에 오른 가수 ‘최 곤’이라는 인물의 현실에 대한 상황인식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는 성공적인 가수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현실적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이상적인 스타의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다 결국 스스로 방황하고 몰락하는 가수가 된다. 더욱이, 자기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팬들로부터 외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자기반성보다는 항상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믿어주고 보살펴준 매니저만 원망하며 자기계발을 통한 자기변신에 노력하지 않는다.

결국, 철저한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그들의 행동은 점차 대중으로부터 외면 받게 되고 그들에게 고단한 현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들이 그 전에 성공된 삶을 살은 데에는 분명 그들이 하고자 했던 목표에 대한 확고한 열정과 철학이 있었을 것이며 그것들이 팬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인기스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고마움을 잊은 채, 보다나은

미래를 설계하지 못했고 편안했던 현실에만 안주하다 결국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가는 처지가 된다. 영화에서 어느 날, 정신없이 이 상을 쫓아다니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박민수'는 잠시 현실로 돌아와 집을 찾아간다. 어렵게 운영하던 부인의 김밥집이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았고 누추한 집에서는 지하철에서 김밥을 팔기위해 김밥을 싸고 있는 부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박민수'는 고단한 현실을 다시 한번 빼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러한 고단한 삶 속에서도 다시 '라디오 스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누구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아름답고 순수했던 '자기가 원했던 일에 대한 첫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순간, 비로소 어렵고 고단한 현실을 겪어하게 받아 드릴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그러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대중과 함께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이 결국 그들을 '라디오 스타'로 만든 것이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장면에서 우여곡절 끝에 매니저 '박민수'가 우산도 펴지 않고 비를 맞으며 '최 곤'을 찾아간 것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변화된 새로운 현실을 과감히 받아드리고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는 의지의 표현이며, 가수 '최 곤'도 진정한 자기성찰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도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비를 함께 맞으며 동참의 의지를 표현한다. 비를 맞고 서있는 가수 '최 곤'을 매니저 '박민수'는 들고 있던 우산을 펴서 씩위 주면서 다시 진정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가수 '최 곤'의 매니저로서의 끝없는 신뢰를 보여준다.

지금, 우리 건축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 회원과 협회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제 우리 모두 과감히 가식의 빙갑데기는 벗어 던지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자 !!!

미래학자 앨빈토플러는 '오늘날 기업과 정부, 개인은 전보다 더 쓸모없어진 무용지식(Obsolete : Obsolete+Knowledge), 즉 변화로 인해 이미 거짓이 되어버린 생각이나 가정을 근거로 매일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이제 과거의 어둠 속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지루한 논쟁을 접어두고 자신 있게 앞으로 나와 생산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자. 그것만이 우리가 이 고단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혜안(慧眼)이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회원사인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 있는 건축사가 쓴 일간지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건축가의 위상과 건설사의 설계겸업문제, 전문인력 FTA문제' 등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짧은 칼럼이지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쓴 글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결국 우리 회원 모두가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의 저면에는 서로가 부인할 수 없는 건축사라는 동일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회원 스스로가 서로의 상황과 현실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적극적으로 배려해 줄때, 우리가 처한 현실은 분명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회원으로서 맹목적인 비판을 위한 명분을 찾기 보다는 협회가 추진하는 많은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참여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자. 그리하여 회원 모두가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건축사의 모습을 보여주자. 협회도 수동적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협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노력의 성과들을 과감히 홍보함으로서 회원들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한다. 지난 시절, 회원들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먼저 탓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협회운영을 통하여 많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하여야한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한 삼성그룹은 한사람의 우수한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이건희 회장의 개인 전용기도 내 줄만큼 우수인재 유치에 사활(死活)을 걸고 있다. 그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협회도 진심으로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한다면 삼고초려(三顧草廬)하는 자세로 돌아가 회원들에게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아울러 그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하늘에 혼자 스스로 빛나는 별은 없으며 누군가가 별에 빛을 비추어 줄때 비로소 그 별이 빛이 난다"는 영화 속의 대사처럼 우리 회원들과 협회도 서로를 비춰주며 서로가 빛날 수 있는 즐거운 현실을 기대해 본다. ■

2007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우리협회 주최로 오는 2007년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은 건축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축인들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면서 국민과 건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은 총 5개의 주 행사로 서울 잠실 코엑스 및 서울 서초의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국제회의실 등에서 개최되는데, 주요행사는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2007 한국건축산업대전'과 '2007 한국건축문화대상', '2007 전국건축사대회', '2007 건축의 날', '세계건축사연맹 건축사실무위원회(UIA PPC 회의)' 등이 5일간 성대하게 치러진다.



〈주요행사〉

행사명	주최(주관)	개최기간	비고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 (대한건축사협회)	'07.10.2~10.6 : 5일	
한국건축산업대전	대한건축사협회	'07.10.2~10.6 : 5일	
건축의 날	건축3단체 (대한건축사협회)	'07.10.2(화)	
전국건축사대회	대한건축사협회	'07.10.4~10.6 : 3일	
세계건축사연맹 건축사실무위원회 (UIA PPC)	건축3단체 (대한건축사협회)	'07.10.3~10.6 : 4일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전 총괄 행사계획〉

일자	한국건축대상		한국건축산업대전		건축의 날		전국건축사대회		UIA PPC	
	내용	장소	내용	장소	내용	장소	내용	장소	내용	장소
10/2 (화)	시상식 (14:00~14:50)	401	전시회 개막식	인도양홀	특별강연 (13:30~15:50)	321				
			전시회 개막식	인도양홀	기념식 (16:00~16:50)	401				
	리셉션 (15:30~16:30)	330			리셉션 (17:00~19:00)	320				
10/3 (수) 개천절	특별행사								321,320	
10/4 (목)	작품전시 등	인도양홀	자재전시 등	인도양홀	전국건축사축구대회 (9:00~18:00)	수원월드컵 경기장	수원월드컵 경기장	수원월드컵 경기장	수원월드컵 경기장	수원월드컵 경기장
					전국건축사축구대회 (13:00~18:00)	수원월드컵 경기장	수원월드컵 경기장	수원월드컵 경기장	수원월드컵 경기장	수원월드컵 경기장
					전국건축사축구대회 (13:00~17:00)	서울전역	서울전역	서울전역	서울전역	서울전역
					건축산업대전참관 (13:00~17:00)	인도양홀	인도양홀	인도양홀	인도양홀	인도양홀
10/5 (금)	작품전시 등	인도양홀	자재전시 등	인도양홀	세미나 및 특별강연 (10:00~12:00)	인터컨티넨 탈호텔	인터컨티넨 탈호텔	인터컨티넨 탈호텔	인터컨티넨 탈호텔	인터컨티넨 탈호텔
					전국건축사대회선포식 (11:30~13:30)	320	321	320	321	320
10/6 (토)					본 행사 (14:00~17:00)	컨벤션홀	컨벤션홀	컨벤션홀	컨벤션홀	컨벤션홀
					건축사의 밤 (17:30~20:00)	컨벤션홀	컨벤션홀	컨벤션홀	컨벤션홀	컨벤션홀
					전국건축사축구대회 (13:00~17:00)	서울전역	서울전역	서울전역	서울전역	서울전역
					건축물감리 및 출국 (09:00~)	인도양홀	인도양홀	인도양홀	인도양홀	인도양홀

한국건축산업대전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2007 한국건축산업대전'은 건축계의 중추조직이자 국내 최고 건축전문단체인 우리협회와 건축최고전문가인 건축사가 함께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건축전문 산업전시회로서 건축설계와 건설 및 기타 관련된 산업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축제이다.

〈개요〉

- 명칭 : 2007 한국건축산업대전(2007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 주제 : 건축의 진화, 건축속의 사람
- 기간 : 2007. 10. 2(화) ~ 10. 6(토)
- 장소 : COEX 인도양홀
-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 후원 : 건설교통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주요내용 : 전시장 구성 및 관리
 - 건축프로젝트전시관
 - 우수자재전시관
 - 테마, 기획관
 - 국토개발홍보관
 - 전문전시, 국제전시

한국건축문화대상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2007 한국건축문화대상' 행사는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 및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 및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개요〉

- 일시 : 2007년 10월 2일~6일
- 장소 : 삼성동 코엑스(401호, 330호)
- 주최 : 건설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
-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 후원 :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보증(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 주요내용 : 시상식, 전시회 개막식, 리셉션
- 행사내용

일정	행사내용	장소
10.2(화)	14:00~14:50 시상식	401호 인도양홀
	15:00~15:05 한국산업대전 개막식 참관	
	15:05~15:30 전시장 건학	
	15:30~16:30 리셉션	
10.2~6	09:00~18:00 작품전시 등	인도양홀

전국건축사대회



〈개요〉

- 주 제 : 건축사, 문화의 경계를 넘어
- 개최일자 : 2007. 10. 4(목) ~ 10. 6(금)
- 개최장소 : 코엑스 컨벤션홀, 회의실 320호, 321호
- 주 최 : 대한건축사협회
- 주 관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후 원 :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신문사, 방송사 등
- 협 찬 : 종합건설업체, 주택건설업체, 공공기관 및 단체, 건자재업체, 건축사사무소, 가전회사, 기타업체

〈행사일정〉

일정	행사내용	참가자	장소
1일차 10/4(수)	9:00~18:00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전국 16개팀	수원월드컵경기장
1일차 10/4(목)	9:00~18:00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전국 16개팀	수원월드컵경기장
	13:00~17:00 건축답사 및 투어 각 시도건축사회별 자체 행사로 진행	서울전역	
2일차 10/5(금)	13:00~17:00 건축산업대전 참관	전국 회원	인도양홀
	10:00~12:00 세미나		320호
	10:00~12:00 특별강연회		321호
	11:30~13:30 2007 전국건축사대회 선포식	조직위 및 집행위 참석	인터콘티넨탈
	10:00~17:00 전국 중고생 건축시진 공모전	중고등학생	컨벤션홀 로비
	10:00~17:00 렐레이 한협행사	전국회원 중 신청자	한협상소
	12:00~13:30 점심식사	전 회원	코엑스 일원
	14:00~14:30 1부 축하행사		
	14:30~14:50 초청인사 소개		
	14:50~15:30 각부문 참가자 및 대표 축사	주요내외빈 건축사, 기자 등	컨벤션홀
3일차 10/6(토)	15:30~16:10 2부 행사진행		
	16:10~17:00 폐회식, 부대행사 시상식		
	17:30~20:00 건축사의 밤	전국 회원	
	13:00~17:00 건축사답사 및 투어	각 시도건축사회별 자체 행사로 진행	서울전역
	13:00~17:00 건축산업대전 참관	전국 회원	인도양홀

UIA PPC 회의



〈개요〉

- 일 자 : 2007. 10. 3(수) ~ 10. 6(토)
-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대강당 및 국제회의실
- 주요내용 : 자문위원회 회의, PPC 회의, 건축물 견학
- 참석대상 : 각국 건축사 약 50명

〈행사일정〉

일자	시간	행사내용	장소	비고
'07.10.3 (수)	오전	대표단 도착		-
	14:00~17:00	자문단 회의	대한건축사협회 3층 국제회의실	
	18:00~20:00	환영만찬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10.4(목)	전일	PPC 회의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19:00~21:00	만찬	전통 한정식 식당	
10.5(금)	전일	PPC 회의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17:30~20:00	건축사의 밤 참관 및 만찬	COEX 컨벤션홀	
10.6(토)	오전	건축물 견학	수도권 지역	
	오후	대표단 출국		-

건축의 날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건축의 날'은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축문화진흥 및 건축산업발전을 목적으로 매년 9월 25일(경복궁 준공일)로 지정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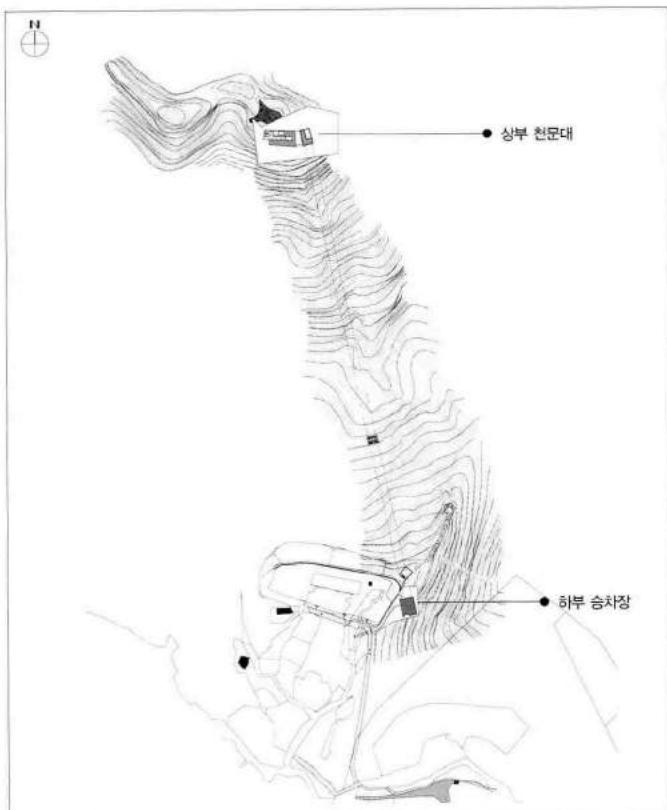
- 일시 : 2007. 10. 2 (화) 13:30 ~ 19:00
- 장소 : 삼성동 코엑스 (401호, 320호)
- 주최 :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 후원 :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 주요내용 : 기념식 · 유공자 포상, 강연, 작품전시회, 리셉션 등
- 행사내용

일자	내용	시간	장소
10.2(화)	특별강연	13:30 ~ 16:00	삼성동 코엑스
	기념식	16:00 ~ 17:00	
	리셉션	17:00 ~ 19:00	

송암 천문대

Song Am Astronomical Observatory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 위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 170-1일부
지역 지구	농림, 관리 지역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과학관)
대지 면적	5,789.00m ² (산림훼손면적 7,441.0m ² 중 일부)
건축 면적	960.55m ²
연 면 적	1,479.27m ²
건 폐 율	16.59%
용 적 률	22.49%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최고 높 이	18.5m
외부 마감	THK21 열처리목재, THK0.7 아연판, THK24 복층유리
구조 설계	원우구조
설비 설계	우원M&A
전기 설계	공간ENG
토 목	유경기술단
시 공 사	CJ개발
건 축 주	(주)송암 천문대
설 계 기간	2005.03~2005.08
공사 기간	2004.11~2007.01
설계 담당	박상현, 장경배, 최희섭, 이민선, 설유경, 이주영, 전지현



Location San 170-1, Seokheon-ri, Jangheung-myeon, Yangju-gun,
 Gyeonggi-do, Korea
 Site area 5,789.00m²
 Bldg area 960.55m²
 Gross floor area 1,479.27m²
 Bldg coverage ratio 16.59%
 Gross floor ratio 22.49%
 Structure S.R.C
 Bldg. Scale B1, F3

1_ 상부 천문대 원경 2_ 하부 승차장 외경



장흥유원지 그리고 천문대?

한 노 기업인이 사회공헌의 입장에서 시작된 보기 드문 사설 천문대이다. 모든 것이 개인의 사재에 의함으로 건축주 뜻을 깊이 생각하며 진행 됨이 여느 프로젝트보다 마땅했다. 수십 년 넘게 가꿔온 개인 소유의 20만 평의 땅은 장흥유원지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장흥 유원지에 천문대라….

그러나 개울을 따라 들어선 부지는 유원지에서 이탈된 고요한 다른 세계이다. 산으로 둘러싸인 부지는 분지 모양으로 마치 운석에 의한 크레이터(crater)와 같다. 그야말로 세상과 격리된 나만의 하늘이 있는 땅이다. 그 땅을 둘러싼 산봉우리들은 잇는 능선에 천문대를 짓고자 했다. 크레이터와 천문대.

'소행성 134340' 와 소행성 B612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을 수성·금성·지구·화성·목성·토성·천왕성·해왕성·명왕성 9개로 규정한 과학 교과서가 70여 년 만에 바뀔지도 모른다… 명왕성은 1930년 발견돼 지금까지 태양의 9번째 행성의 지위를 누렸다. 2003년에는 명왕성보다 조금 더 큰 천체 '2003 UB313'이 발견됐다. 이

후 명왕성에 이어 아직 공식명칭이 없는 '2003 UB313'을 10번째 행성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행성 숫자를 8개로 줄일 것인가, 또는 행성을 수십 개로 늘릴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진행됐다.

IAU는 지난해 명왕성과 에리스, 세레스 등 3개의 천체를 외행성으로 분류하면서 명왕성에는 '소행성 134340', 에리스에는 '소행성 136199'라는 새 분류명을 부여한 바 있다.

—“어린왕자는소혹성 B612에서 왔어요.”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제야 믿으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들이란 모두 그렇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옛날 한 왕자님이 자기 몸보다 조금 더 큰 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필요했습니다…”

존재여부와 상관 없이 사라지는 명왕성이 있는 반면 어린왕자의 별이 있다. 생명체가 사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무슨 가스로 구성되었으면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다는 등…(사실 어린왕자의 별이 숫자로 표기된 이유지만)보다는 막연히 지금 이 세계와는 다른 그 무엇의 세계, 별세계가 그리어진다. 오히려 망원경을 통해 존재와 형태를 확인

1. 상무 천문대 전경 2. 하부 습자장 전경



한 후에도, 이런 자기만의 신화적인 별을 가슴에 더해 담아 오는 게 천문대가 아니겠는가? 천문학자가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천문대는 과학적인 별보기를 구실로 신화를 꿈꾸는 장소일지 모른다. 이런 다른 차원의 공존이야말로 별을 보는 행위의 바탕이겠다.

차원을 넘나드는 통로, 차원이동 장치로서의 천문대.

“Transportation”

천문대 건축은 그래서 순간의 꿈을 꾸는 작업이다.

자리잡기 절벽에 붙어 있는 가늘고 긴 동바리 위에 서 있는 조그만 사찰. 그 사찰을 그토록 어렵게 지어야 했을 마음들… (건축주의 마음이려니…)

산에 살짝 기대어 인공의 대지를 올린다.

겨우 찾은 자리. 미끄러질 듯한 바위 위에 소나무가 좋다. 松岩천문대가 그들을 품는다.

플랫폼 플랫폼은 두 개의 공간, 두 개의 세계를 이어주는 공간이며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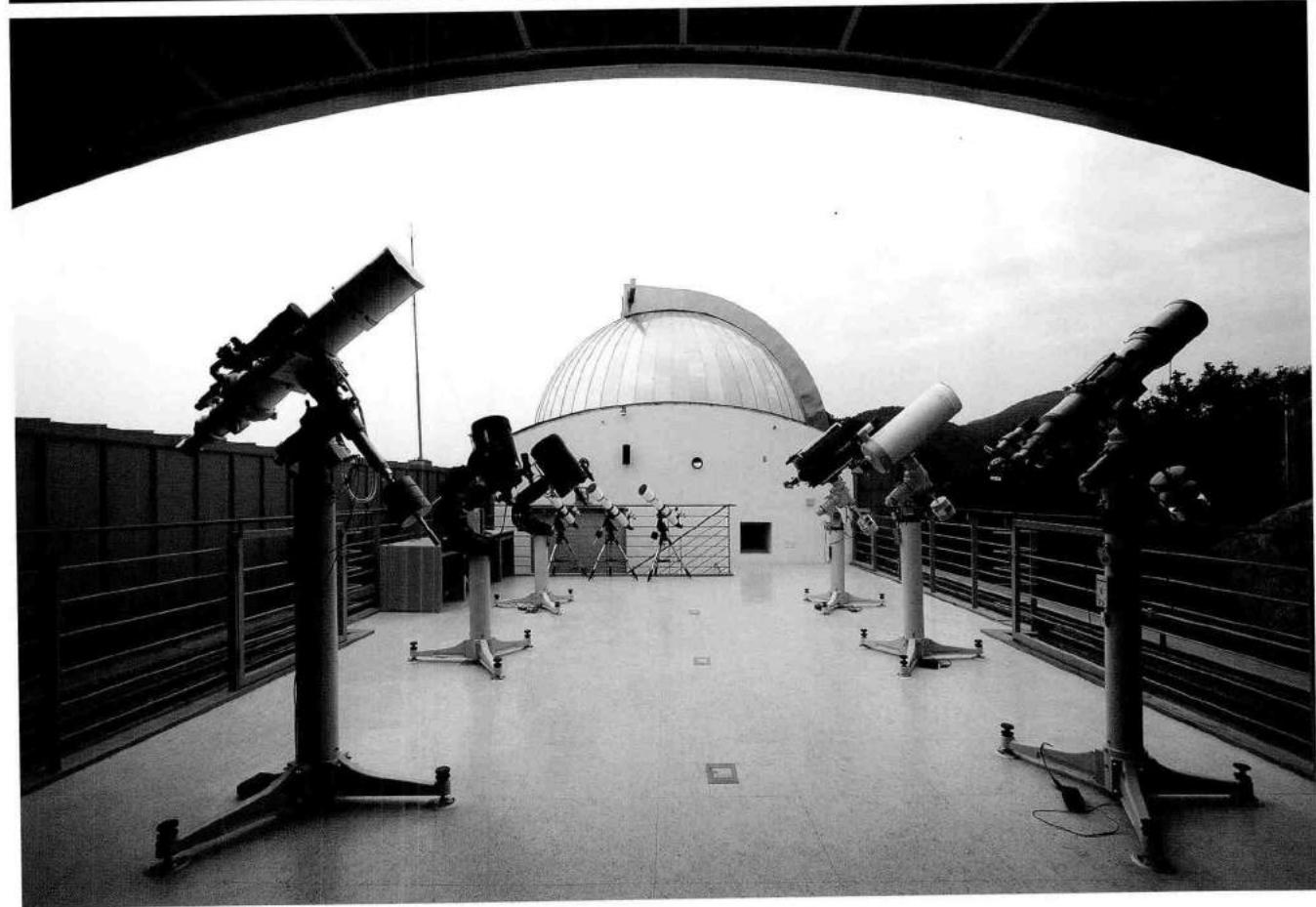
천문대는 두 개의 시공간을 소통시키는 매질이다. 그 매질은 두개의 시공간을 위한 두 개의 플랫폼을 갖는다. 하나는 우리의 일상의 그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별을 보기 위한 별세계의 플랫폼이다. 이 두 개의 플랫폼은 하나의 굽절된 선으로 천문대가 된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갖는 매질이 만들어진다.

여행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부승강장에 들어서면 까~만 산에 멀리 작은 불빛이 보이고 그게 천문대이다.

우주셔틀을 타듯 밤마다 위를 천천히 날아오르면 첫 번째 플랫폼. 안으로 들어서,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직선 계단을 오른다. 3개 층을 오르고 나면 두 번째 플랫폼. 산 아래의 어둠과 불빛들, 멀리 한강변의 불빛들이 눈에 들어온다.

돌아서서 망원경 속으로 들어간다. 우주의 불빛이 가득하다. 명왕성이다. 이제 다시 돌아간다. 산 쪽의 옥외 계단으로 소나무와 바위를 끼고 내려와 다시 내부로 들어오면 카페테리아. 잠시 쉬어 가면 좋겠다. 내 마음의 별을 찾은 걸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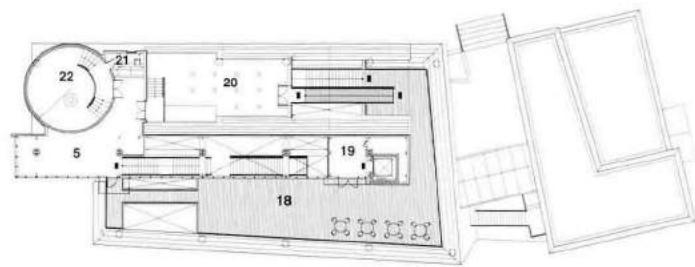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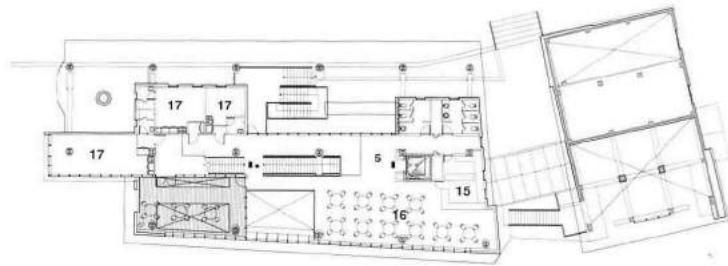
01_ 저수조
02_ 침고
03_ 전기실
04_ 발전기실
05_ 출입구
06_ 통신실
07_ slope
08_ 승차장

09_ 운천실
10_ 구동부실
11_ deck
12_ 전시실
13_ 사무실
14_ 영상강의실
15_ 주방
16_ 휴게실

17_ 속소
18_ 옥상광장
19_ ELEV출
20_ 보조판측실
21_ 조정실
22_ 주관측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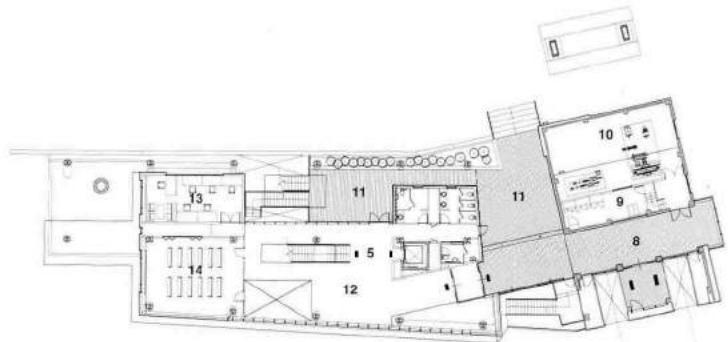


상부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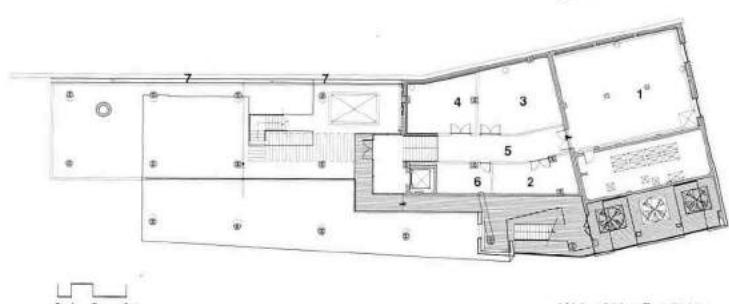


상부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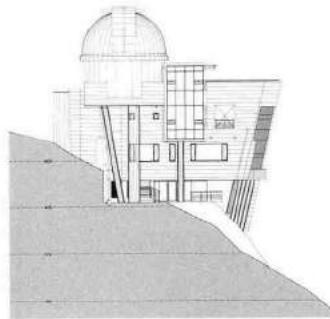
1_ 전망데크
2_ 보조 관측실
3_ 상부 천문대 서측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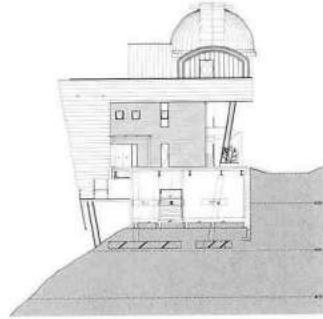
상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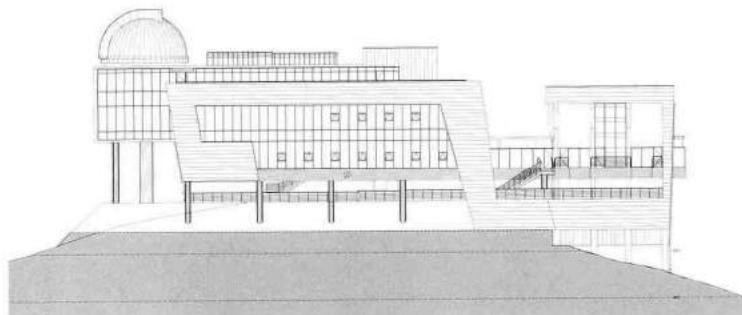
상부 지하 1층 평면도



상부 좌측면도



상부 우측면도



상부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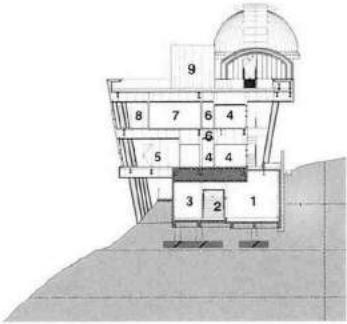
0 1 3 6m

1. 외부 휴게공간
2. 상부 천문대 서남측 천장
3. 화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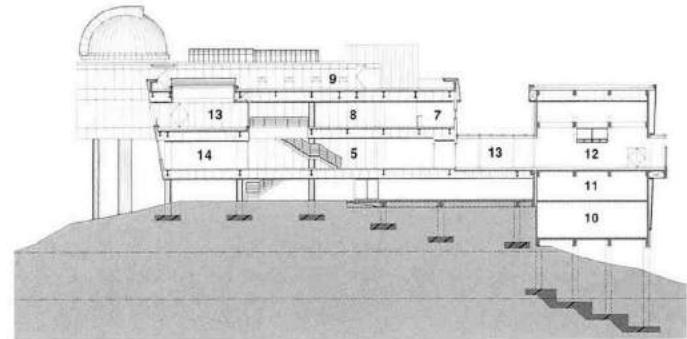




- 01_ 발전기실
- 02_ 총
- 03_ 통신실
- 04_ 회령실
- 05_ 천시실
- 06_ 보도
- 07_ 주방
- 08_ 휴게실
- 09_ 옥상광장
- 10_ 정화조
- 11_ 청화조 관리총
- 12_ 승차장
- 13_ 데크
- 14_ 영상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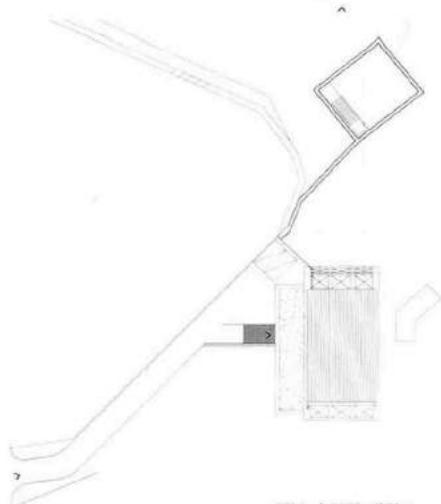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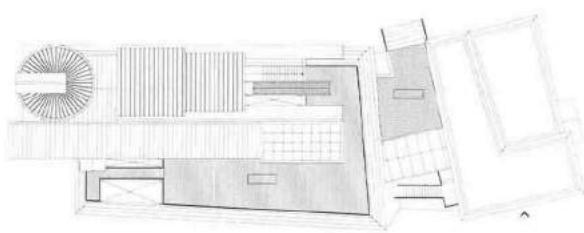


상부 단면도



상부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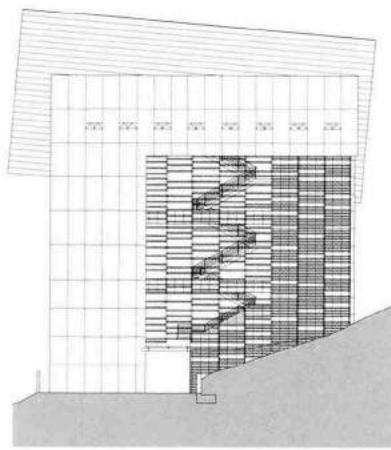


상부 천문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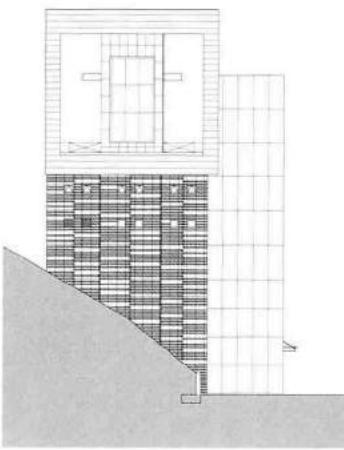
하부 승차장 배치도

1 2 1. 외부개단
2.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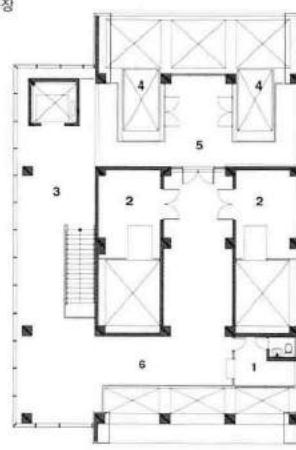


하부 우측면도



하부 정면도

- 01_ 매표소
- 02_ 삭도기계실
- 03_ ELEV 출
- 04_ PIT
- 05_ 케이블카 승차장
- 06_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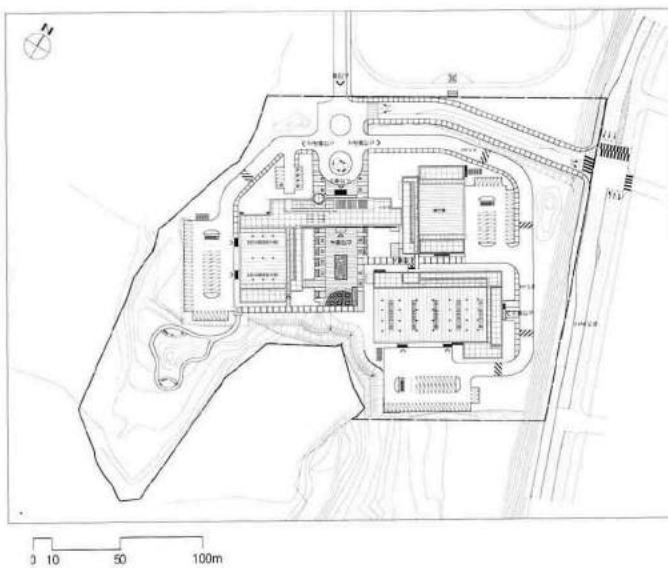


하부 1층 평면도



안산 연구센터

Ansan Research Center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8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학교시설보호지구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대지면적	46,496.00m ²
건축면적	8,711.23m ²
연면적	21,534.01m ²
건폐율	18.86%
용적률	41.63%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 B동_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T50 메탈페널, T3.0 AL.SHEET, T24칼라복층유리, T0.8 아연도금강판
내부마감	무기질바닥강화재, 비닐무식면타일, 화강석, 수성페인트, 흡음텍스 등
주요설비	정통량단일덕트(CAV) + 팬코일유니트(FCU)
발주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공사	(주)KCC건설
감리사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기간	2003. 7.~2004. 2
공사기간	2004. 11.~2007. 6.
설계담당	조님승, 김정훈, 김우민, 박남규, 김지현



Location 1271-18, Sa-dong, Ansan-si, Sangnok-gu, Gyeonggi-do, Korea
 Site area 46,496.00m²
 Bldg area 8,711.23m²
 Gross floor area 21,534.01m²
 Bldg coverage ratio 18.86%
 Gross floor ratio 41.63%
 Structure R.C
 Bldg. Scale B1, F5



1. 북측 전경

2. 북측에서 바라본 간접 통경

안산 연구센터는 자연녹지 및 학교시설 보호지구 내 교육연구시설로서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남측 경계의 구릉지에 위치한다.

입지특성

대지북측은 학교 내 호수 등의 경관시설로 조망이 양호하며 남측으로는 낮은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다. 북측학교 내 도로로부터 진입과 부지 동측도로로부터 직접진입이 가능하며, 주차량 동선과 보행동선의 유입이 예상되는 한양대 북측도로변을 주출입구로 설정하고 주변 학교 연구시설 및 테크노파크와의 연계성을 꾀한다.

배치계획

한양대 측 진입도로 죽에 대응하게 배치하여 정면성을 확보하고 보행자를 위한 중앙광장을 통해 대지북측의 연구시설부터 남측 산책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다른 성격의 연구 Zone을 2개의 동으로 분리하여 각 동별 독립된 출입동선이 이루어지게 하고, 각 본부별 연구 · 시험생산시설이 하나의 최단동선을 이루도록 각 시설별 Compact한 배치를 통해 최적의 연구 · 실험환경을 구축한다.

평면계획

실험실과 플랜트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배치하여, 최단거리로 실험 · 생산의 접근성을 고려하였으며, 연구Zone은 실험 · 생산Zone과 떨어져 남측 또는 동측 일사 유입에 따른 연구쾌적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Unit의 세분화 및 병합 가능성을 고려한 가변형 평면계획과 각종 유틸리티 샤프트의 설비라인을 고려한 실험실의 수직 Zoning을 통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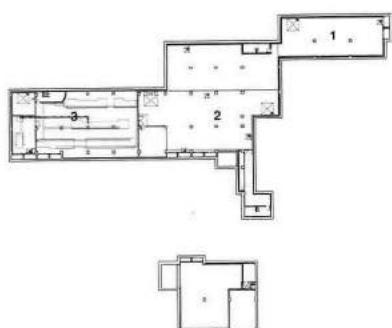
입면계획

연구시설은 최첨단 연구시설로서의 투명함을 강조하는 커튼월처리, 실험시설은 발코니와 수직 알루미늄바에 의한 분절 강조, 시험생산시설은 Solid한 느낌을 부여하는 등 각 시설별 특성을 입면에 반영하고, 연구센터 진입부는 정면성을 강조하는 입면구성을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자연녹지지역내의 경관과 주변 건물군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저층의 스카이라인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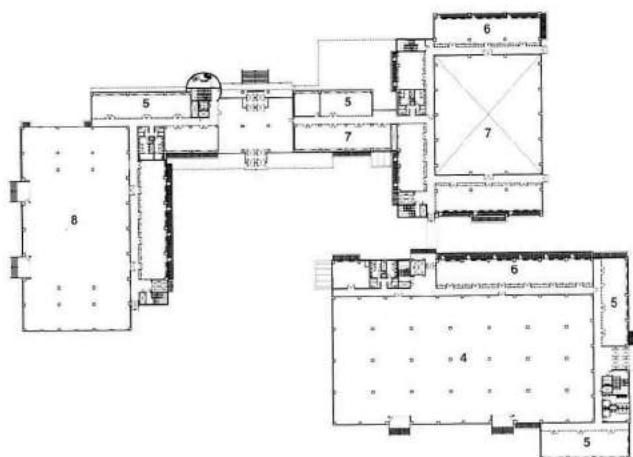
추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통해 학교시설에서 분리되어 대지 남측에 위치하는 전기연구소와 함께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연구소)로 지정될 예정이여서 앞으로 더욱 활기찬 모습을 기대해 본다. ■



01. 클린룸기계실
02. 기계실
03. 전기실
04. 파일럿플랜트-2
05. 연구실
06. 실험실
07. 물린룸
08. 파일럿플랜트-1
09. Void
10. 공조실
11. 홉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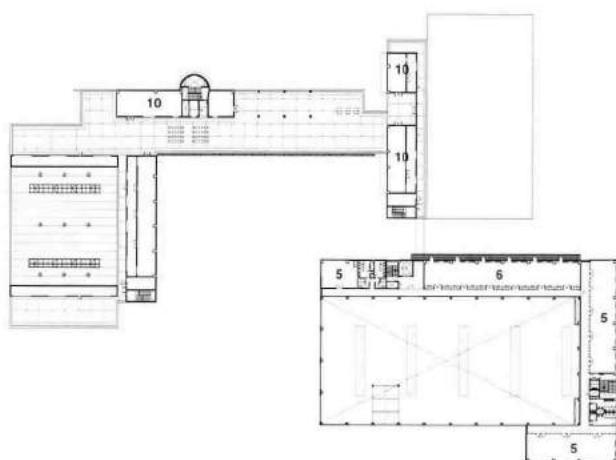


1 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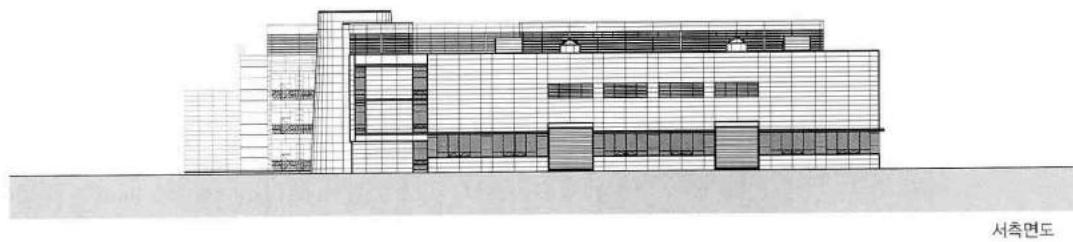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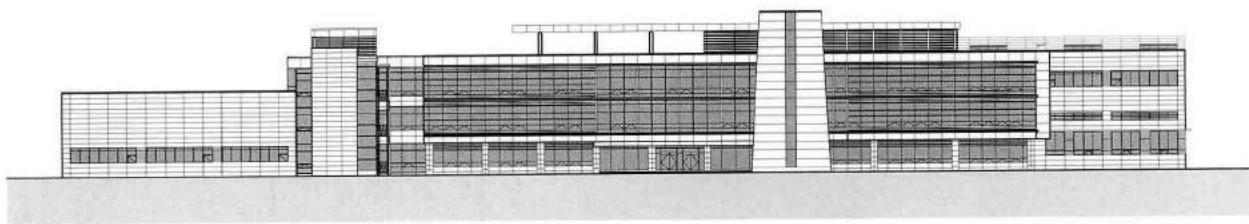
4층 평면도

1. 건물 야경
2. 북동측에서 바라본 입구광장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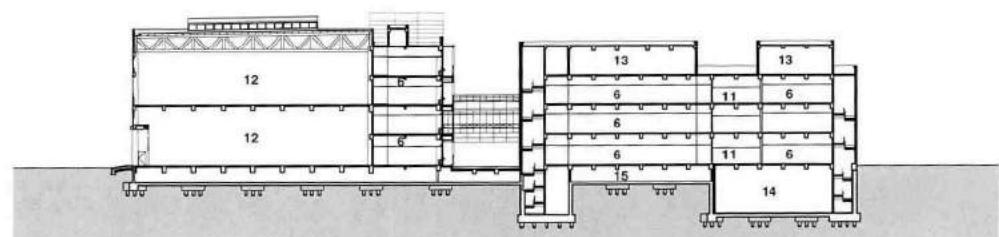


북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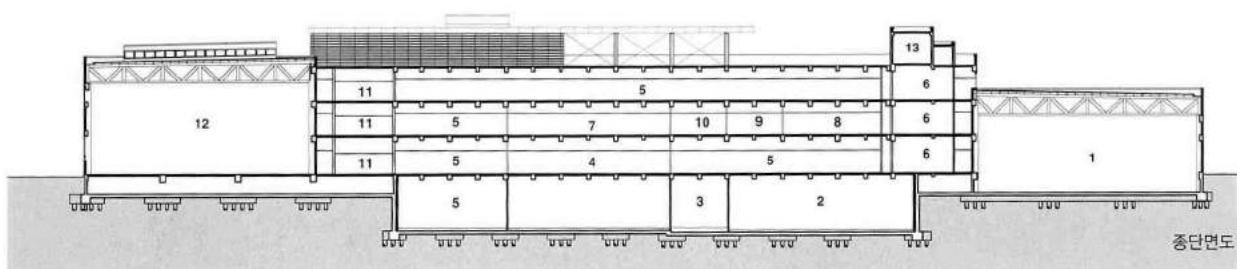
1. 통로에서 본 로비 내부
2. 2층 브로시 내부
3. 패밀리클랜트 내부



- 01_콜린룸
- 02_기계실
- 03_중앙감지지실
- 04_전기실
- 05_연구실
- 06_실험실
- 07_출
- 08_행정지원실
- 09_원장실
- 10_본부장실
- 11_화장실
- 12_파일럿플랜드
- 13_공조실
- 14_콜린룸기계실
- 15_MIT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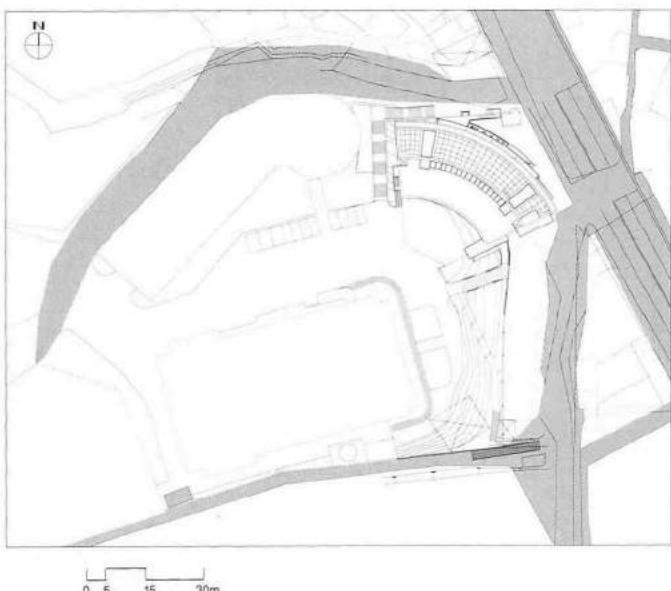
종단면도



대구 제일교회 교육문화관

Educational Cultural Center,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234외 5필지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최저고도지구
대지면적	11,596.69m ²
건축면적	1,175.58m ²
연면적	4,399.87m ²
건폐율	39.99%
용적률	99.7%
규모	지상 7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알포리, 징크, 노출콘크리트, 투명복층유리 등
내부마감	화강석, 비닐계타일, 스플릿블럭, 본타일, 비닐페인트 등
설비·전기	(주)광명설비연구소
토목	대림토목엔지니어링
적산	아치건축적산연구소
설계기간	2004.12~2005. 07
공사기간	2005.09~2006.12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_건축문화 A&C, 최창렬)



Location 234, Dongsan-dong, Jung-gu, Daegu, Korea

Site area 11,596.69m²

Bldg area 1,175.58m²

Gross floor area 4,399.87m²

Bldg coverage ratio 39.99%

Gross floor ratio 99.7%

Structure R.C

Bldg. Scale F7

- 1. 부분마이너스(마이너스)에 종곡석이며 부유하는 듯한 느낌의 창문을 위한 풀풀구성
- 2. 교육문화관 전경-소재요소인 분당의 총합이 전면마이너드의 일부로 작용



대구제일교회 교육문화관은 기존 교회 부지의 급한 경사지 측을 따라 지형의 흐름을 감싸안 듯 배치된다. 대지는 육중한 화강석으로 외피를 두른 본당의 거대한 스케일을 뒤로한 채 가파르게 원형을 드러낸다. 진입축의 좌, 우에 주차건물과 본당이 그리고 그 축의 연장선 상에 교육문화관이 자리 잡는다. 주요 프로그램은 경사지형의 하부 레벨과 상부레벨을 기준으로 나뉜다. 유원장과 직접 연계되는 선교원, 외부계단을 통해 연결되는 전망 데크가 있는 휴게실, 다목적 활동실과 약 300석 규모의 강당 등은 경사지형의 하부레벨에 놓이며 기존의 본당 진입레벨과 일치하는 식당, 사무실, 층별로 배분되는 집회 및 교육실 등은 그 상부레벨에 위치한다.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는 기존 지형이 내포하고 있는 건축적 가치의 발견과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전개과정을 통해 도시의 컨텍스트를 수용하는 전경이 아닌 배경으로서의 건축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산책로적 건축

계산오거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면, 교회의 종탑과 교육문화관의 전경이 오버랩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순간 공간경험을 누적시키는 건축적 산책은 시작된다. 교육관과 부속건물을 잇는 외부계단사이로 열려진 보행로는 바다패턴이 연출하는 방향성을 따라 외부데크가 있는 2층으로 인도된다.

시멘트 패널바닥재의 러프한 질감을 느끼며 이어지는 동선의 흐름

은 연속적이며 횡적으로 이끌려온 시선의 흐름을 타고 리드미컬하게 수직으로 반전, 급상승하는 노출콘크리트 가벽의 끝단에 잠시 머무른다. 관찰자의 위치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클로즈업 되는 도시의 풍경을 담은 채 내부계단을 타고 빛이 흐르는 광정에 들어서면 순간 확산된 빛의 기운을 느낀다. 다시 시선은 회색 스플릿 블럭의 정제된 패턴을 타고 흘러내리는 빛을 따라 서서히 천장이 있는 상부로 열려진다. 광정과 연계된 완만한 곡면벽을 따라 접근해 들어가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의 흐름과 노출된 구조체와 곡면벽들이 연속적으로 중첩되어 변화있는 시퀀스를 연출한다. 또한 층별로 다르게 채색된 파스텔톤 계열의 벽과 방화구획을 위한 나열된 기둥의 반복적인 조합은 투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축적 장치가 된다.

이러한 건축적 산책은 양 끝단에 설정된 코어와 광정과 연결된 긴 복도를 타고 1층 홀에서 옥상정원까지 연속적이며 개방적으로 이어진다. 점진적이며 연속적인 공간경험을 통해 전개되는 건축적 산책의 효과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빛을 타고 흘러 6층에 이르러 극적으로 나타난다.

보이드된 광정을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나열된 교육실이 있는 홀의 입구에 들어서면 천장을 통해 흰색벽면을 타고 동적인 각도로 떨어지는 빛과 함께 개방적이며 활기 넘치는 내부공간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이때 천장을 통해 전달된 빛이 이중표피에 도달하여 연출되는 빛의 반사효과는 공간의 깊이감을 더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회색빛 난간을 스치듯 보이드된 공간의

아래를 예의 주시하면 지나온 동선의 흔적이 잔상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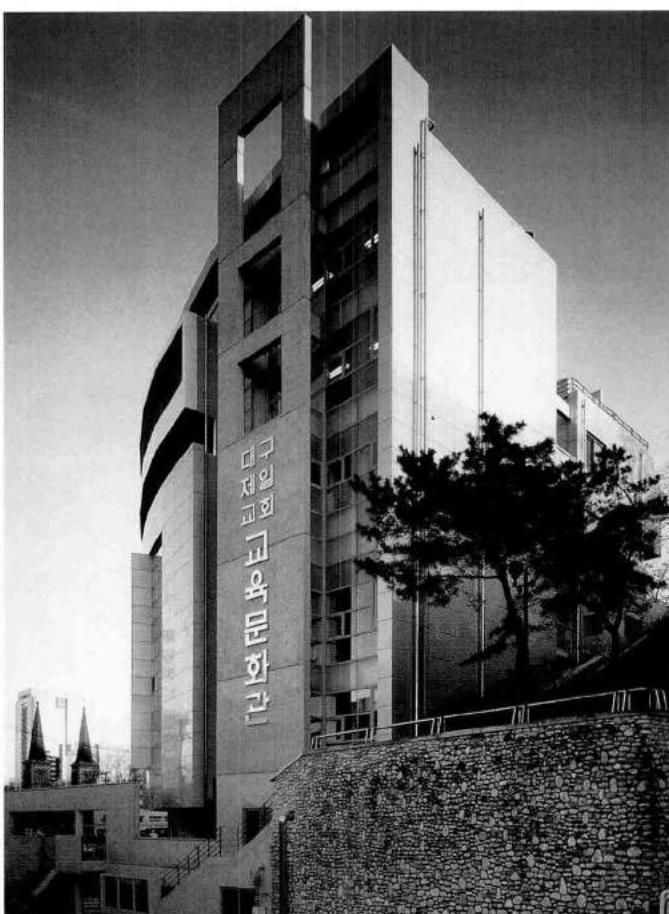
빛으로 충만된 광정은 투시적인 조망을 제공하는 개구부프레임, 규칙적인 그리드패턴의 유리벽에 비치는 다양한 실루엣과 중첩되어 공간의 깊이감을 더해준다. 이러한 요소들은 복도를 투과하여 서서히 내부로 연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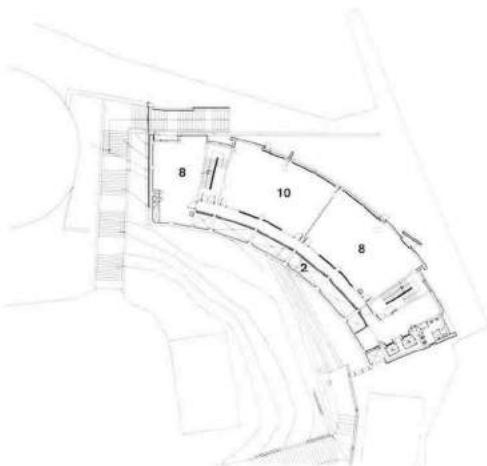
선택적 조망을 위한 가벽

건물의 축과 약 45° 정도 깎인 노출콘크리트가벽은 영역성과 방향성을 동시에 가지며 동선의 움직임에 따른 순차적인 조망과 긴장감 있는 시선유도장치로 존재한다. 그것은 지형의 흐름을 타고 전개되는 동심원상의 부분적 원주에 의해 형성된 파사드의 곡벽과 조합되어 관찰자의 시선을 다양하게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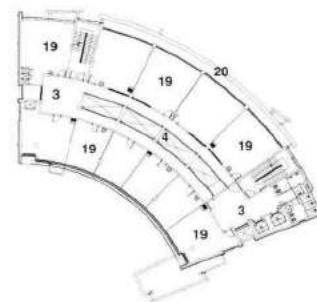
알루미늄 복합패널 사이로 돌출된 전망을 위한 발코니와 결구된 완만한 각을 가진 긴 세로벽은 조형미와 더불어 길 건너편의 계산성당을 편안하게 주시하는 장치가 된다.

이러한 건축적 요소는 도시의 풍경을 선택적으로 끌어들이는 장치. 즉 보다 적극적인 시선유도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선택적 조망을 위한 가벽'의 형식으로 존재하며,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긴밀한 윤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건축적 도구인 것이다. 볼륨에 의해 생성된 영역성은 견과 견 사이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방향성과 함께 새로운 도시문맥의 흐름을 형성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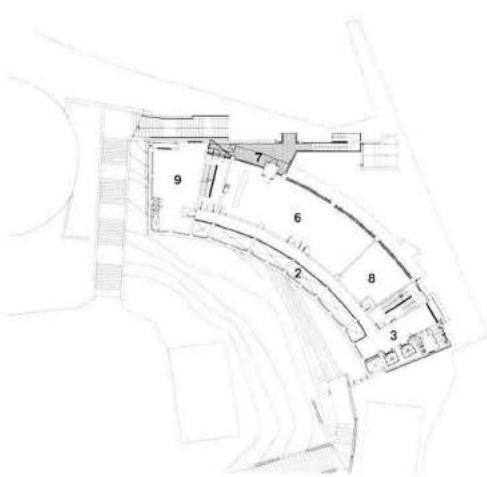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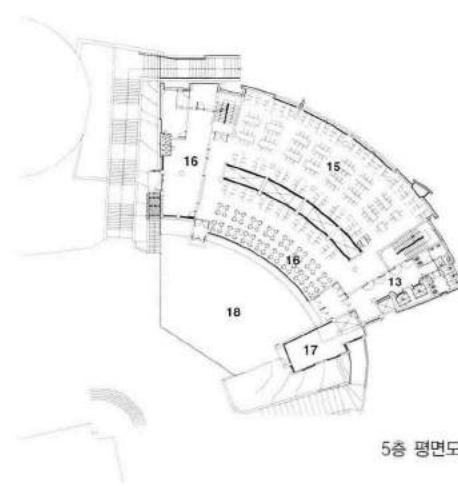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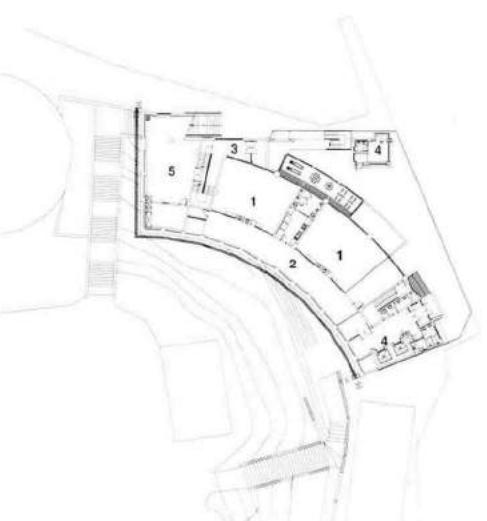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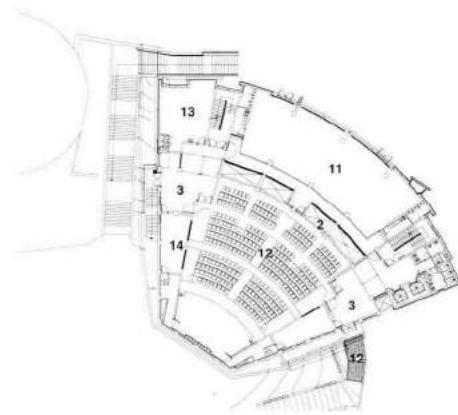
2층 평면도



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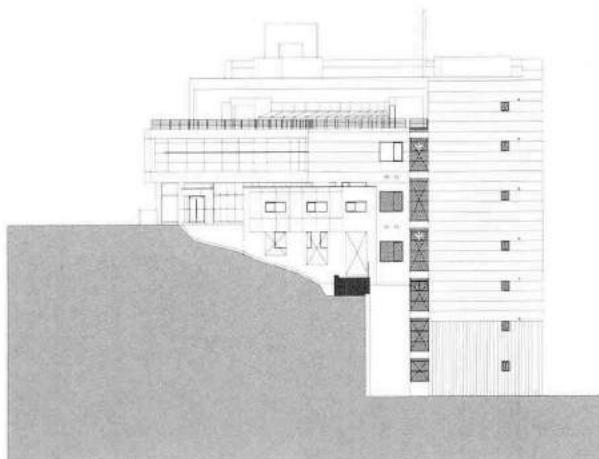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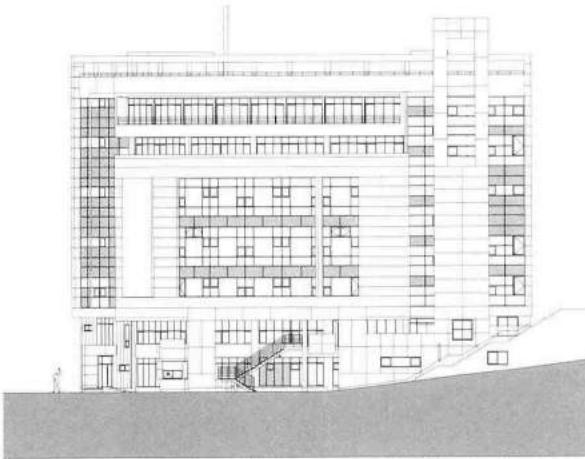
0 5 15m

1. 우측면에서 바라본 전경=연습장이며 원작으로 아울러온 시선의
흐름을 타고 리드미컬하게 전개되는 노출콘크리트 가벽
2. 광장-스물꽃 블록을 타고 흘러나리는 자연의 빛

01_ 선교원	06_ 휴게실	11_ 디Lou적활동실	16_ 주방
02_ 관정	07_ 대크	12_ 강당	17_ 사무/방재실
03_ 졸	08_ 교육실	13_ 디옹도실	18_ 진입마당
04_ 관리실	09_ 전기실	14_ 방송실	19_ 교육실
05_ 기계실	10_ 도서실	15_ 식당	20_ 발코니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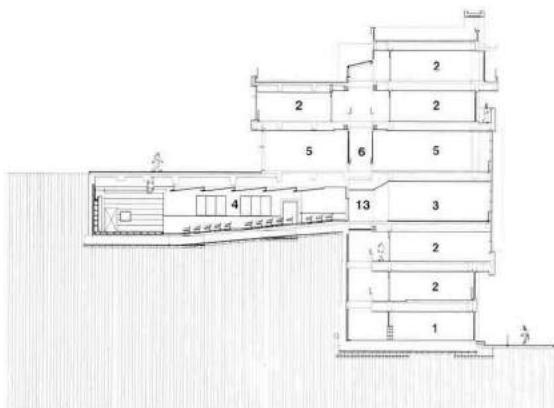


북동측면도

- 1. 옥상정원·건축적 선체의 환경을 위한 모티브 설정
- 2. 5층 식당·국면유리벽과 원기둥에 의해 연출되는 빛과 그림자
- 3. 광장과 연결된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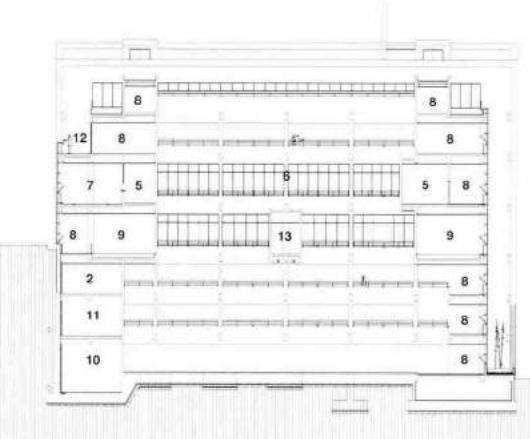
- 4. 양방향으로 나열된 교육실이 있는 보이드 원 광장
- 5. 선양을 통해 전달되는 빛과 그림자의 유희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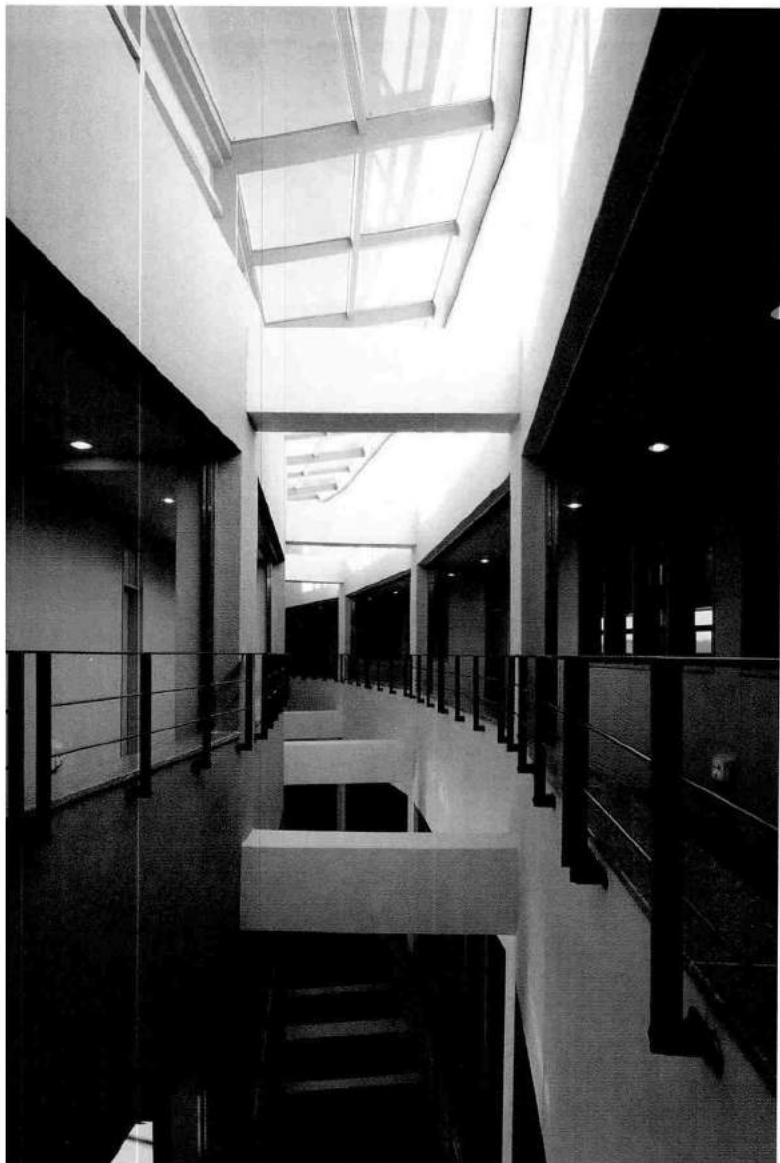
0 5 10



횡단면도

01_ 선교원 06_ 광성
 02_ 교육실 07_ 주방
 03_ 다목적활동실 08_ 툴
 04_ 강당 09_ 강당층
 05_ 식당 10_ 기개실

11_ 전기실
 12_ 데크
 13_ 연결통로



회원작품 | Works

신창호/정희원,(주)종합건축사사무소현증설계 +
김호일/(주)종합건축사사무소 현증설계
by Shin, Chang-ho, KIRA & Kim, Ho-il

현대증권 연수원

HyunDai Securiti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80-5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권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연수원)
대지면적	15,245m ²
건축면적	3,038.96m ²
연면적	16,771.30m ²
건폐율	19.93%
용적률	89.87%
규모	연수원_지하 2층, 지상 6층/기숙사_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T30화강석버너마감, T24칼라복층유리, T3알미늄시트
내부마감	T30화강석, 카펫타일
설비설계	박종하, 우명주
전기설계	윤효성, 정재호
시공사	현대아산(주)
설계기간	2006.1 ~ 2006.11
공사기간	2006.6 ~ 2007.7
설계담당	남상철, 이상준, 이재호, 박정식, 흥창표

Location 80-5, Mabuk-dong,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15,245m²

Bldg area 3,038.96m²

Gross floor area 16,771.30m²

Bldg coverage ratio 19.93%

Gross floor ratio 89.87%

Structure R.C

Bldg. Scale B2, F6



새 연수원

기업이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용기이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다. 그룹의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건축주는 회사와 그룹의 교육을 위하여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닐까. IMF 이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교육사업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진 것은 사실이다. 용인 마북리는 현대그룹에 몸담았던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곳일 것이다. 현대그룹에 입사하면 교육을 받고 일하고 연구하는 그런 곳이다. 현대그룹의 최초연수원을 시작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된 투자가 이루어진 곳이며, 아직도 현대그룹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1980년초 그룹의 교육을 위하여 우리회사의 전신에서 설계하고 우리가 지었던 건물이 있었던 곳에 지어진 신 연수원은 기존 연수원을 철거하여 신축하고, 기숙사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옛 현대그룹의 역사가 담긴 그 자리에 새로운 연수원으로 계획하였다.

원하는 것들

연수원이 건설된 부지의 경사는 아주 가팔라서 차가 오르기 힘든 곳이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모든 법적인 제약이 심한 부지였으며, 건폐율 20%와 용적률 100%라는 법규적인 이유로 건축주가 원하는 면적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지하에 많은 시설을 계획하는 것 또한 교육 시설 이어 채광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들을 해야 했다.

법에서는 인구유발시설이라는 이유로 수도권내 연수원의 신축을 제한하고 있다. 다행히 기존 연수원이 있던 부지여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면적을 연수원 기능에 할애할 수 있었다.

문제는 필요한 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적정면적을 확보하는 것 이었으나, 꼭짓 끝에 과거와는 달리 숙소의 기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선에서 면적의 배분을 마무리 지었다. 원하는 용적률 얻고, 교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기숙사 부분은 리모델링의 방법을 택했고, 지하부분에는 대형 선큰을 계획하여 채광을 확보했다.

효율적인 공간의 사용을 목적으로 4층에는 대형 강의장을 동시에 2개 배치하여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가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당보다는 평면강의장의 형태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에 무리가 없도록 계획했다.

주차장은 경사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설치하려 하고, 운동 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옥외 공간을 배치하려 하였으나, 계획했던 대수보다 3배나 많은 주차장이 요구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옹벽과 철골주차장이 설치되었다.

교육을 받는 동안 교육생들이 연수원과 식당이 있는 기숙사를 수시로 왕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연수원의 부지는 경사가 심하



고, 단차가 상당하여 이것이 자유롭지가 못했다. 연수원과 기숙사의 이동을 위하여 긴 거리를 브릿지로 연결토록 제안하였고, 레벨을 잘 선택한 덕인지 이제 연수원과 기숙사내에서는 무장애 공간을 이루게 되었다.

경제적인 교육공간

현대그룹의 첫 연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었던 산업의 역군들이 교육을 받던 곳이다. 이곳의 교육방식은 강사와 수강생이 대면하는 스쿨식 강의이었고, 복도와 강의장, 칠판이 그것이다. 그룹의 두번째 교육장소는 여러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당시로써는 많은 최첨단 교육설비를 갖춘 장소로 토론식 강의를 위한 공간이 배치 되었으며, 또한 현대그룹의 위상에 맞는 정도의 규모로서 지어졌다.

세번째 연수원은 두번째 교육장을 뛰어넘기에는 너무 시간과 공간이 부족했다. 부족한 시간은 가변적인 공간으로 해결하려 애썼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결국 많은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비용, 시간, 공간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공간을 만들어냈고, 결국 녹지지역내에 사방 채광이 가능한 커튼월의 외관을 가진 새로운 연수원이 계획되어졌다.

교육장은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14m 안팎의 스판을 만들어 내고 싶었지만 다른 공간과의 타협으로 12m 조금 넘는 선에서 강의장의 규모를 결정했다.

기능과 규모를 고려하다보니 마치 도심의 오피스빌딩처럼 되어버렸지만, 계단을 오르다보면 하늘과 산이 보이는 여유를 담아보고 싶었고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은 좀더 자연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고려해보았다.

리모델링

기숙사는 리모델링으로 결정했다. 공간의 확보가 목적이었다. 많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동안 진행된 리모델링은 처음인 것 같다. 기존에 6인실, 8인실이었던 실들은 2인실로 계획되었고, 1대이고 좁던 엘리베이터는 기초를 잘라내 이어붙이고, 철골로 내력벽을 세워 2개의 주요수직동선을 확보했다. 바닥은 생각보다 많은 보강이 필요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해내었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마당은 조경과 휴식공간으로 계획했다. 어둡던 1층의 외벽은 모두 창으로 계획해서 밝게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돌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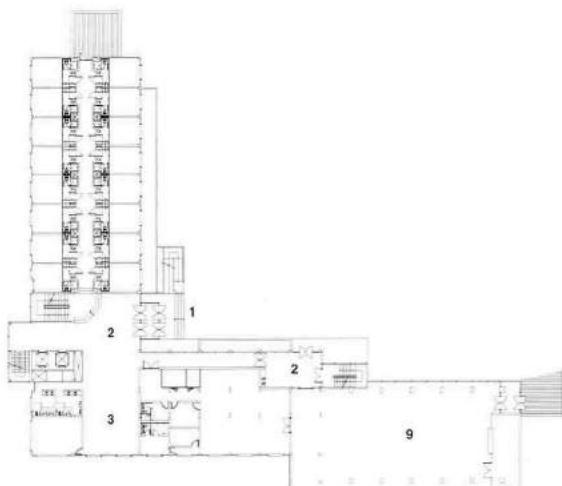
교육은 미래라고 생각한다. 좋은 교육은 회사의 밝은 미래다. 좋은 교육장소는 미래를 담는 그릇일 것이다.

그룹의 미래와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많은 인재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화합하여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 계획적인 결정부분을 전적으로 위임해 준 건축주에 감사할 따름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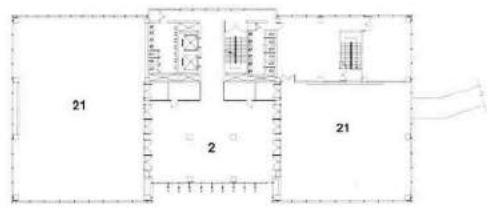


1_ 기숙사 외경
2_ 연수원 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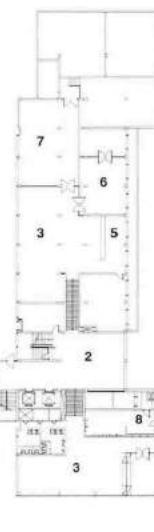
- | | |
|-------------|----------|
| 01_ 주출입구 | 12_ 회의실 |
| 02_ 廊 | 13_ 입원실 |
| 03_ 라운지 | 14_ 교수실 |
| 04_ 인터넷 라운지 | 15_ 강의실 |
| 05_ 마점 | 16_ 자료실 |
| 06_ 세탁실 | 17_ 스튜디오 |
| 07_ 체육단련실 | 18_ 토의실 |
| 08_ 사우나 | 19_ 보드룸 |
| 09_ 식당 | 20_ 칸막이 |
| 10_ 외부정원 | 21_ 대회의실 |
| 11_ 사무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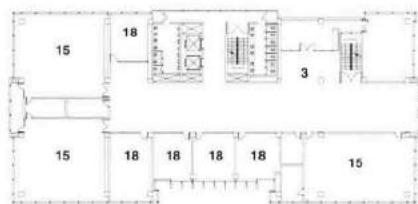
2층 평면도(기숙사)



4층 평면도(연수원)



1층 평면도(기숙사)



3층 평면도(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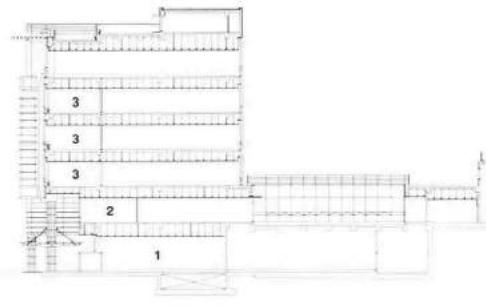
1층 평면도(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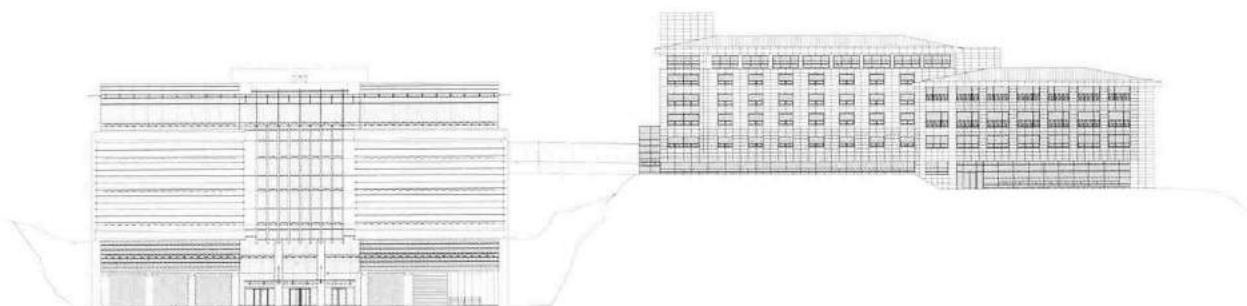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연수원)

0 5 10 20m

01_홀
02_체육단련실
03_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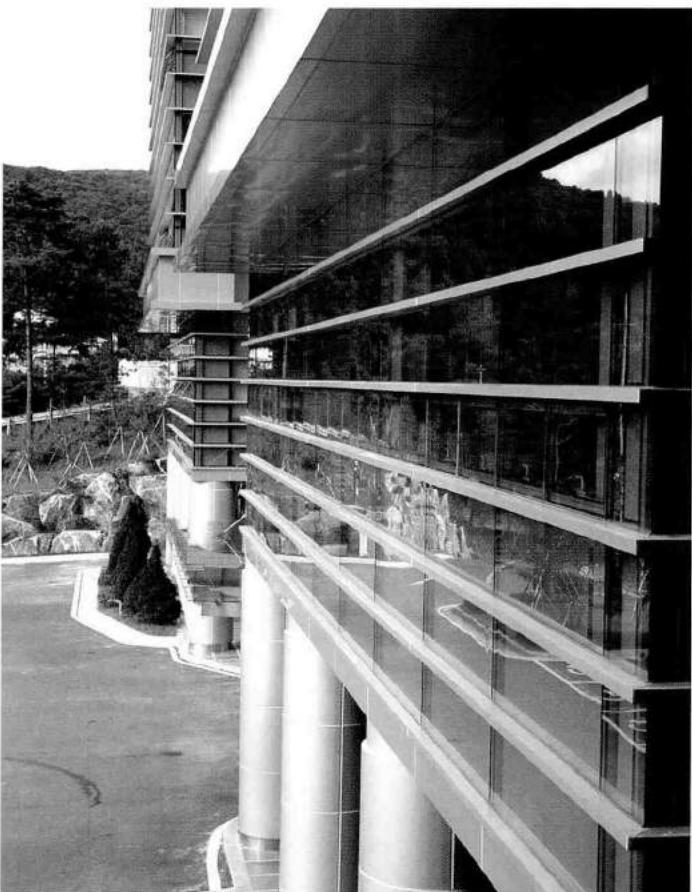
단면도



정면도

4. 뮤비
5. 보드룸
6. 4층 강의실
7. 브리핑
8. 카노피
1. 연수원 후면
2. 연수원 중성
3. 연수원 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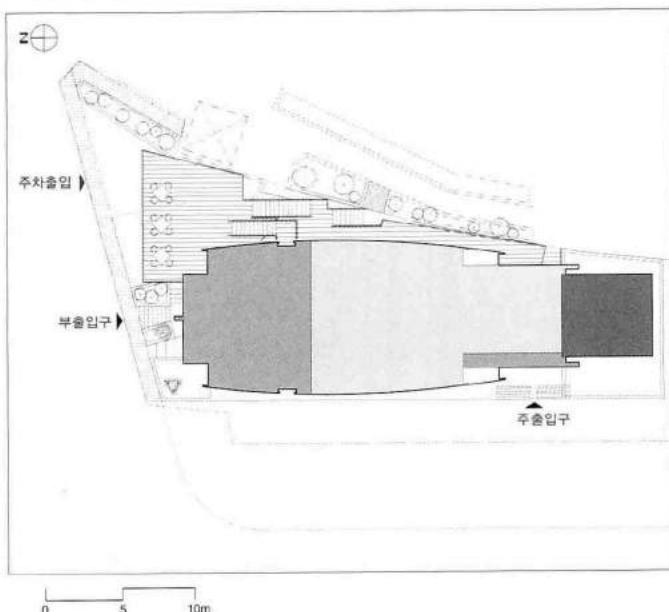


회원작품 | Works

전재근 / 정희원, 매사건축 건축사사무소(주) +
권영주 / 정희원, 매사건축 건축사사무소(주) +
고종관 / 정희원, 매사건축 건축사사무소(주)
by Jeon, Jae-kun, KIRA & Kwon, Young-ju, KIRA &
Go, Jong-goan, KIRA

동주빌딩 Dong-Joo Building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 위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38-24외 필지
지역 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 용도	업무시설(업무시설, 제1/2층 근린생활시설)
대지 면적	620.10m ²
건축 면적	308.49m ²
연면적	3,517.33m ²
건폐율	49.75%
용적률	363.62%
규모	지하 3층, 지상 9층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외부 마감	T=24저반사복층유리, T=30화강석물갈기, T=10 SST, 복합파널
주차 개요	23대
설계 담당	최진석, 김태형



Location 438-24, Bangbae-dong, Seocho-gu, Seoul, Korea
Site area 620.10m²
Bldg area 308.49m²
Gross floor area 3,517.33m²
Bldg coverage ratio 49.75%
Gross floor ratio 363.62%
Structure S.R.C.R
Bldg. Scale B3, F9



2. 남동측 전경



계획대지는 서쪽으로 50m, 동쪽으로 30m 도로 사이에 긴 경사지 위에 놓여 있었다. 비정형의 대지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은 도로는 건물의 패스드를 정하기 어렵게 했다. 이런 대지 상황은 양측도로를 따라 건물의 매스에 곡면의 켜를 갖게 했으며, 이런 맥락으로 건물상 부형태도 유선형이 되었다.

남북으로 길게 놓여진 대지로 인해 동, 서가 단절되어 있었다. 상호소통공간이 필요함에 본건물의 주출입구를 관통시킴으로써 상호 소통공간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주차리프트 위로 테라스를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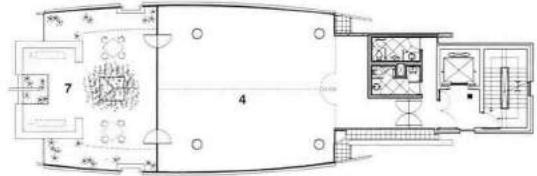
이것과 저층부를 관통하는 마당 그리고 동측 진입동선이 서로 겹치도록하여 커뮤니티공간을 형성했다. 테라스와 데크, 데크와 마당, 마당과 진입로 사이사이에 투명한 유리난간은 겹쳐진 수평선을 더욱 강조한다.

강남의 격자형 도로체계와 높게 뻗은 타워들 사이에서 본건물의 Identity를 가지고 이 건물이 세워지는 목적과 계획된 대지내에서의 소통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일상적 행위를 담는 건축의 기본에 충실하고자 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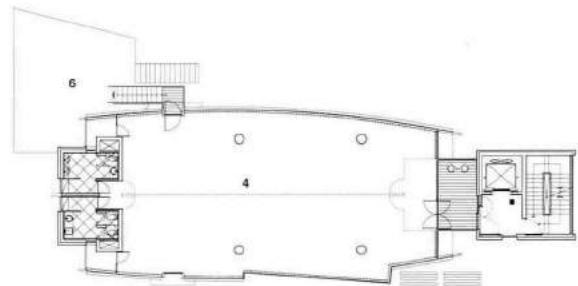
1_ 남동쪽 야경
2_ 남부입면 상세
3_ 주출입구 전경
4_ 스파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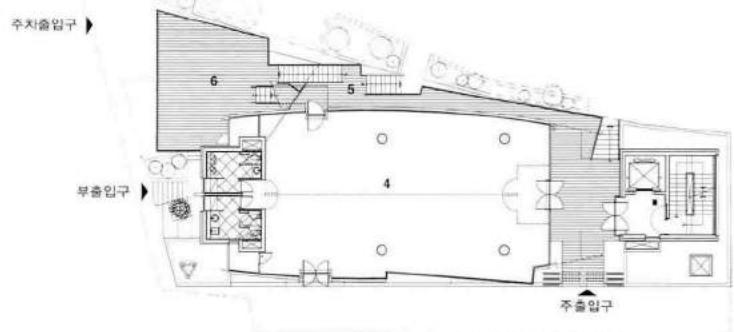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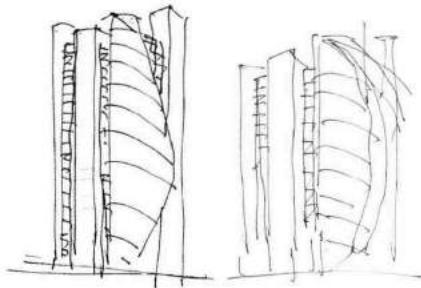
- 01_방전기실
- 02_근린생활시설
- 03_관리실
- 04_업무시설
- 05_데크
- 06_테라스
- 07_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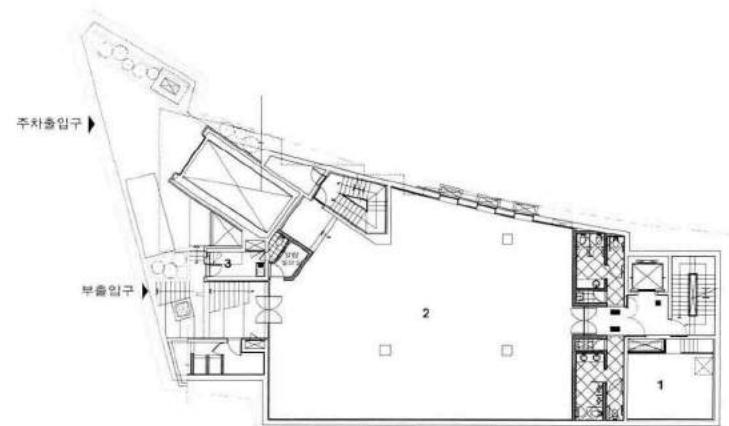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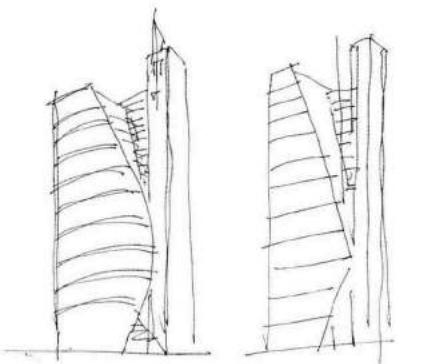
9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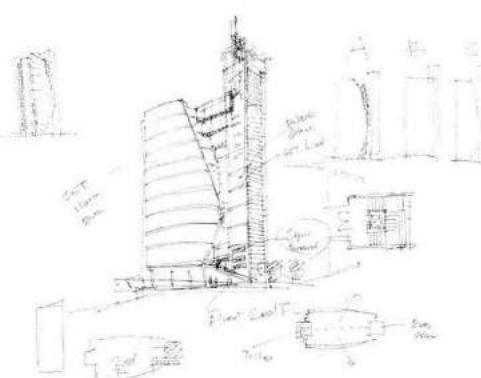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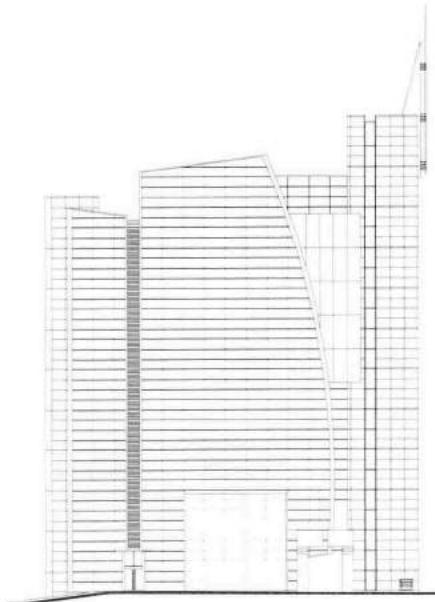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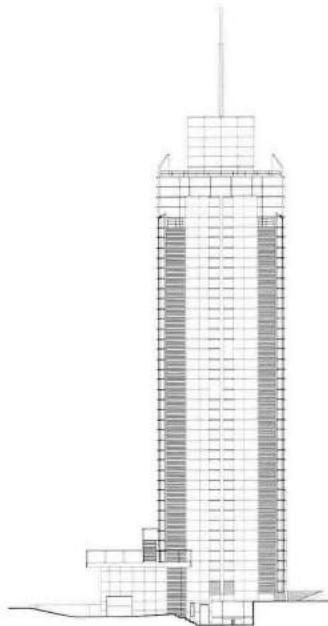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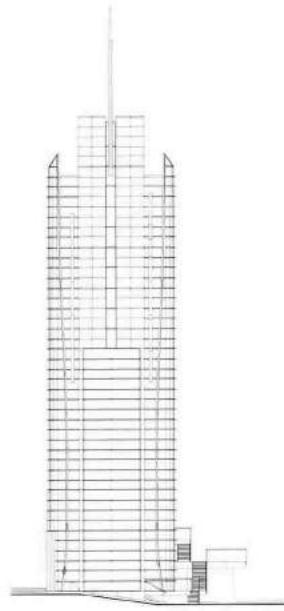
0 5 10m



입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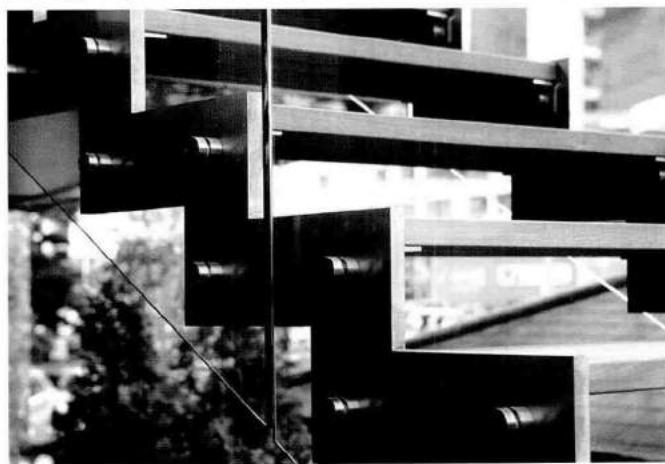
입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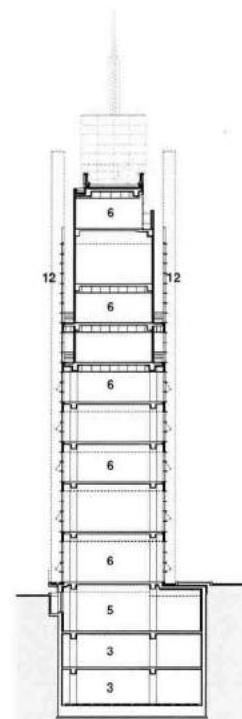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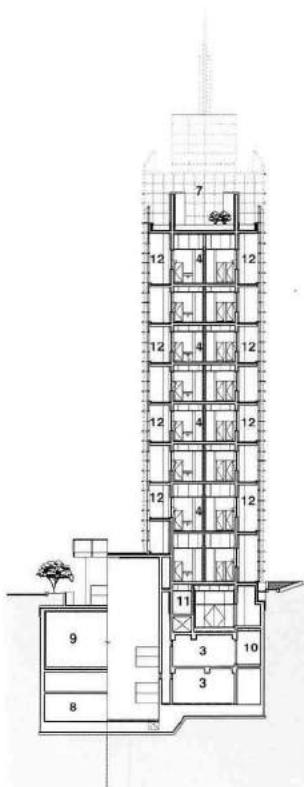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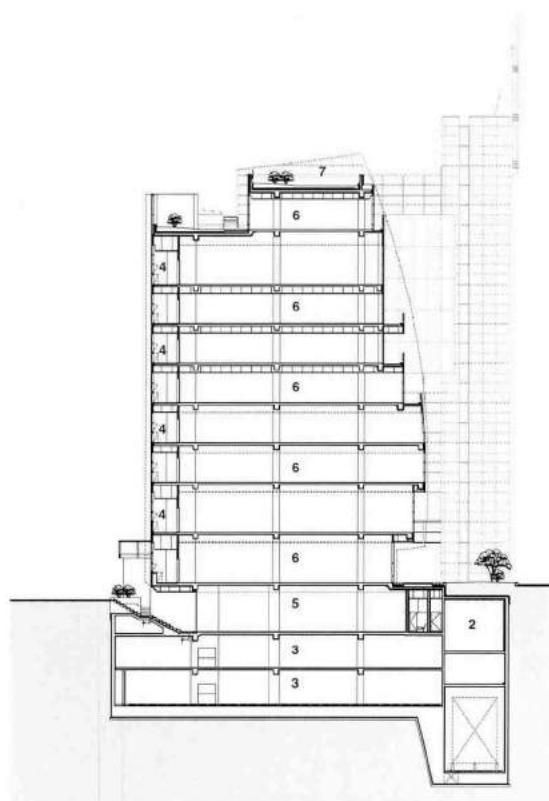
입면도 3

1_ 2층 테라스 연결부
2_ 계단상세
3_ 테리스에서 본 입면부

4_ 언급통로
5_ 동쪽에서 바라 본 연결통로
6_ 옥상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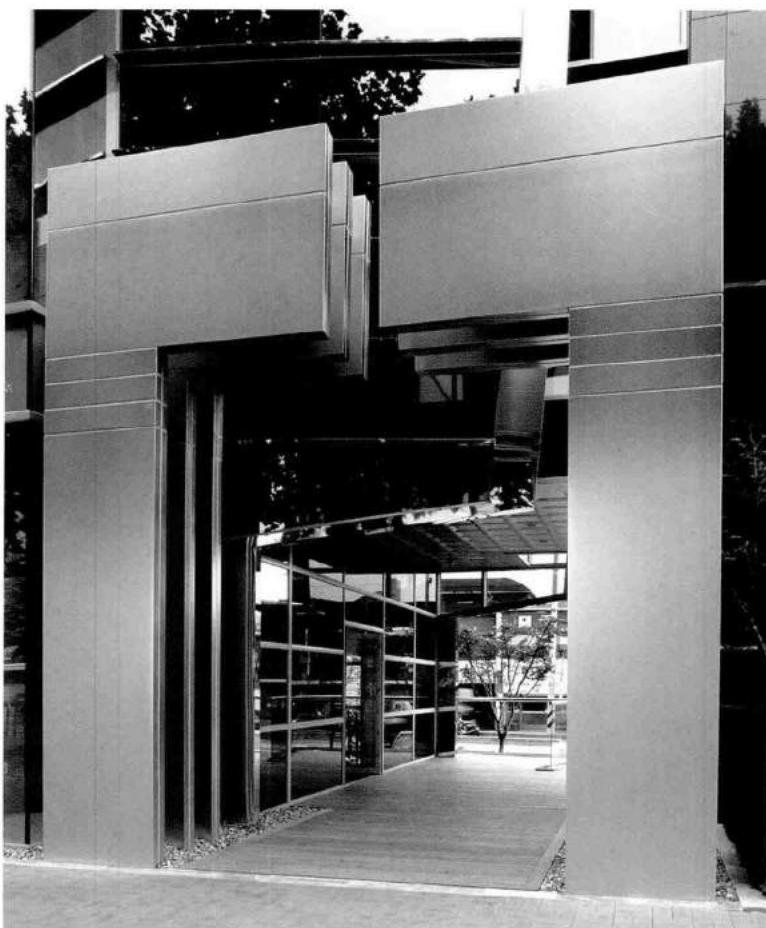
- 01. 풀탱크실
- 02. 발전기실
- 03. 주차장
- 04. 화장실
- 05. 근린생활시설
- 06. 업무시설
- 07. 옥상정원
- 08. 정화조
- 09. 전기실
- 10. MDF실
- 11. 관리실
- 12. 발코니



단면도 1

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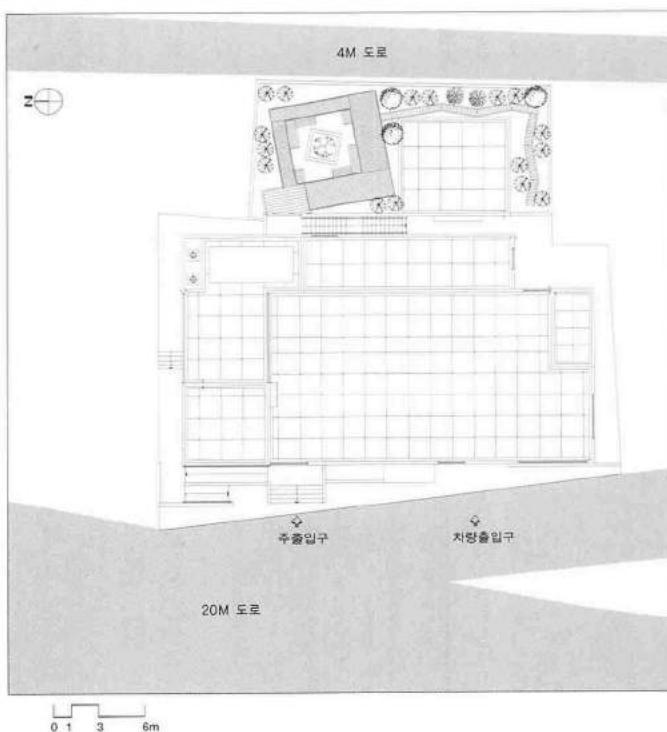
단면도 3



미소 요양병원

Miso Sanatorium Hospital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1동 744-73번지
지역지구	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817m ²
건축면적	480.2m ²
연면적	1,864.68m ²
건폐율	58.78%
용적률	199.8%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내부마감	THK30화강석물갈기, THK24화강석물갈기, 흠음덱스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THK2.3내후성강판(녹안정화코팅), 적삼목SIDING 위 오일스테인3회, 불소수지 페인트, THK18칼라복층유리
설계담당	이동원, 정동원, 이경희, 김영환
구조설계	(주)유진구조
설비설계	(주)중앙이엠씨
전기설계	(주)세종기술단
시공사	심정종합건설(주)
인테리어	이상덕
설계기간	2006. 05~2006. 08
공사기간	2006. 09~2007. 04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_비온후)



Location 744-73, Bansong1-dong, Haeundae-gu, Busan, Korea
 Site area 817m²
 Bldg area 480.2m²
 Gross floor area 1,864.68m²
 Bldg coverage ratio 58.78%
 Gross floor ratio 199.8%
 Structure R.C
 Bldg. Scale B1, F5



요즈음 길을 가다보면 주택가에 노인요양병원들이 하나둘 생겨나는 것을 보게된다. 1960년 52.4세였던 평균수명은 78세를 넘어섰고 그에 따라 노인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반송 미소 요양병원'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계획되었다.

계획대지는 도시 내 낙후된 주거지역으로서 전면으로 석대천이 흐르고 있다. 현재 지하철 노선 및 도로확장 공사 중으로 향후 양호한 입지여건을 갖출 수 있으나, 현재의 낙후된 주변 주택들과의 관계설정이 우선 과제로 떠오르며 노인요양병원이라는 특수목적에 부합되게 하고자 하였다.

장기입원이 주를 이루는 노인환자에게 병원은 치료의 장이자 생활 공간이다.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옥외휴게공간을 2층 치료공간과 연계 계획하여 병실에서 치료공간으로 외출적 느낌을 부여하고, 실내공간 계획은 햇빛·식물·공기 등의 자연요소를 도입, 편안하고 아늑한 가정적 환경을 조성하여 환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자 하였다.

평면계획에서는 병실과 간호사실과의 위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자의 배회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시설규모는 4인실 15실과 1인실 2실의 62병상으로 계획되었으며 휴게홀, 샤워실, 세탁실, 물리치료실, 옥외휴게공간, 식당, 옥상정원 등의 부대시설배치나 동선 연결을 시각적으로 정돈하고, 수직적 관리 및 상호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설비계획은 각 병실에서 개별적으로 바닥난방과 천정냉난방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게 하였고, 시설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가변형 벽체를 계획하였다.

건물의 형태는 주변 환경에 대한 경관적 고려와 기능에 따른 단일 mass로 계획되었으며, 외부마감재로는 크게 3가지로 노출콘크리트에 목재패널과 내후성강판을 사용하여 단일 mass로 인한 건물의 단순함을 상쇄하는 요소로 디자인하여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살리고자 하였다. ■



01_ 물탱크실
 02_ 기계실
 03_ 전기실
 04_ 발전기실
 05_ 세탁실
 06_ 창고
 07_ 상담실
 08_ 원장실
 09_ 조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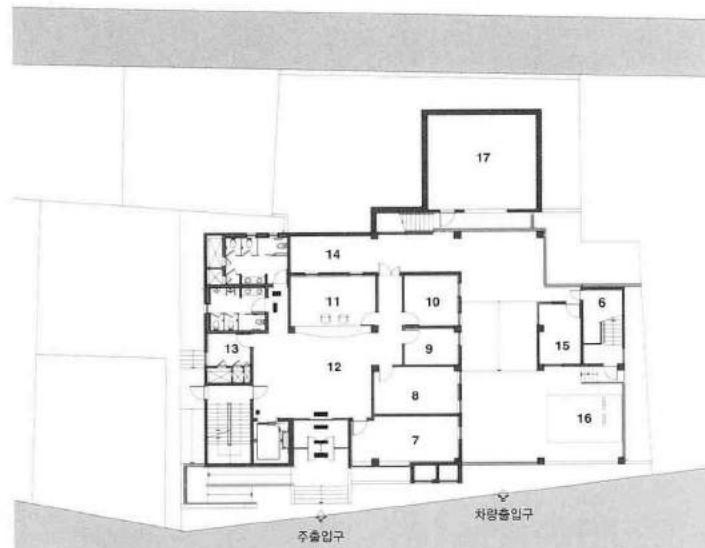
10_ 사무실
 11_ 접수실
 12_ 대기실
 13_ 당직실
 14_ 휴게실
 15_ 주차관리실
 16_ 주차장
 17_ tower parking
 18_ 입원실(4인실)

19_ 입원실(1인실)
 20_ 복도&출가율
 21_ 물리치료실
 22_ 샤워실
 23_ ELEV 출
 24_ X-ray실
 25_ NUR, 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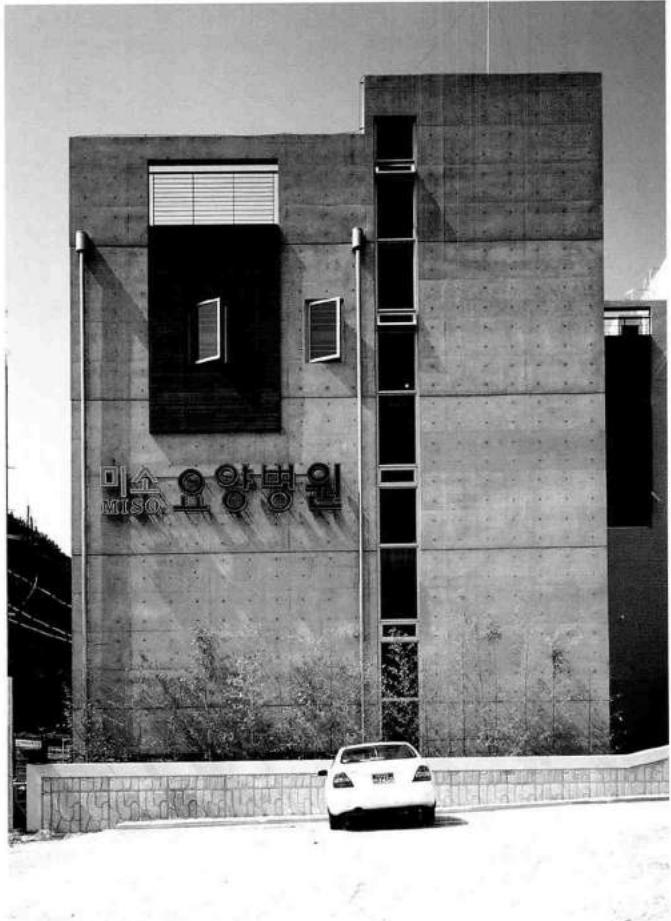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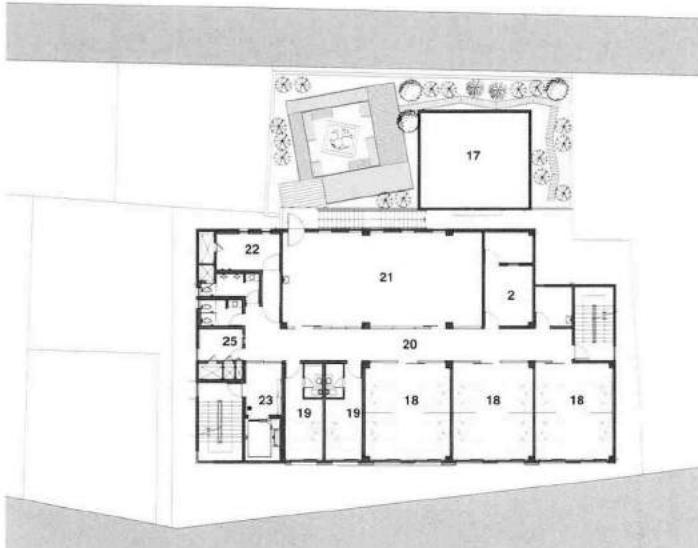
0 1 3 6m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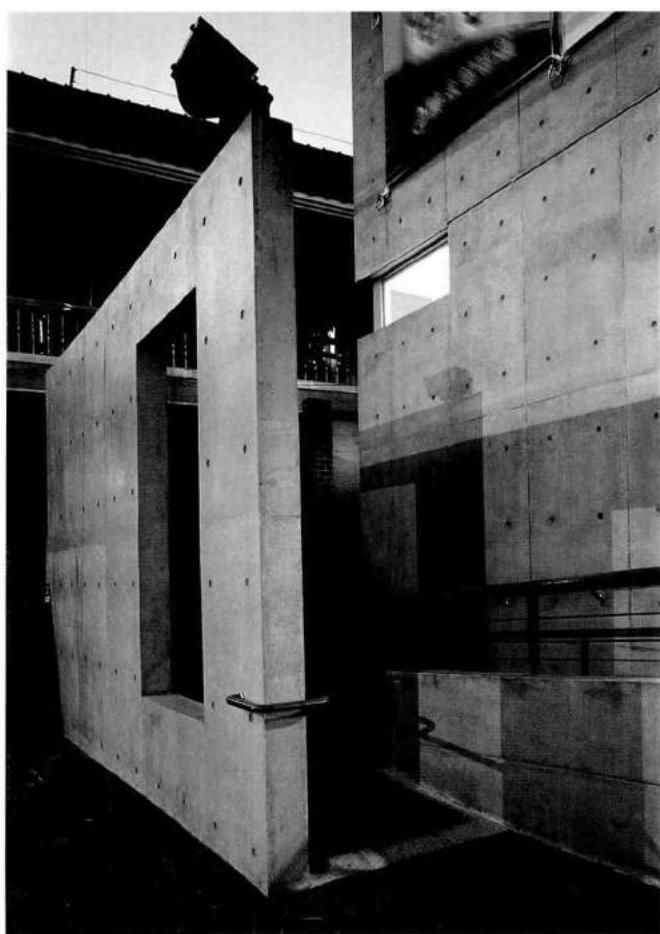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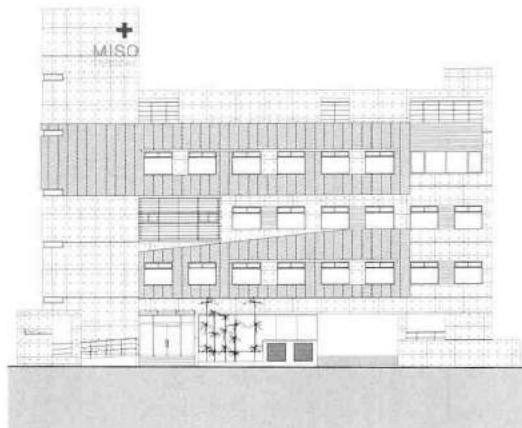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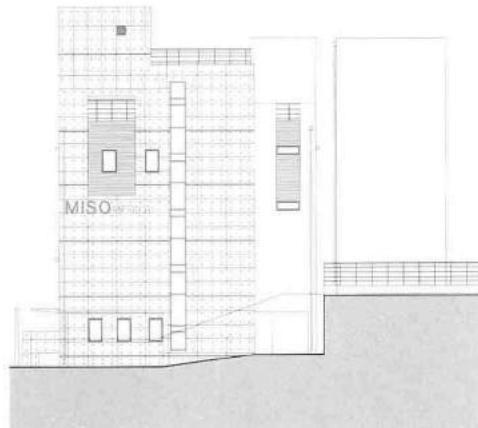
3층 평면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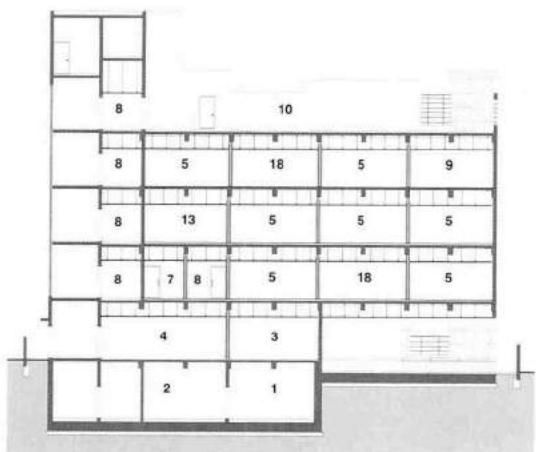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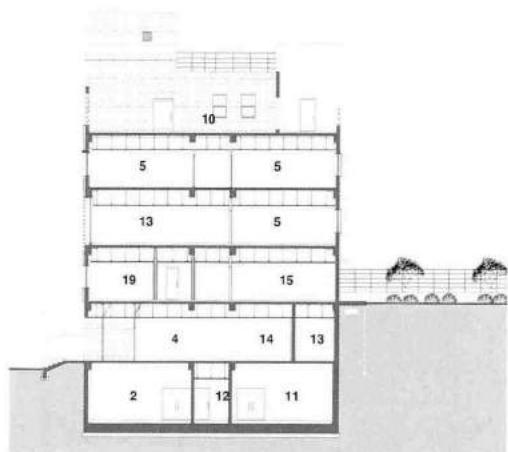
우측면도

1. 화장실
2. 주출입구 정면인 경서로
3. 금동 내부
4. 식당 내부
5. 휴게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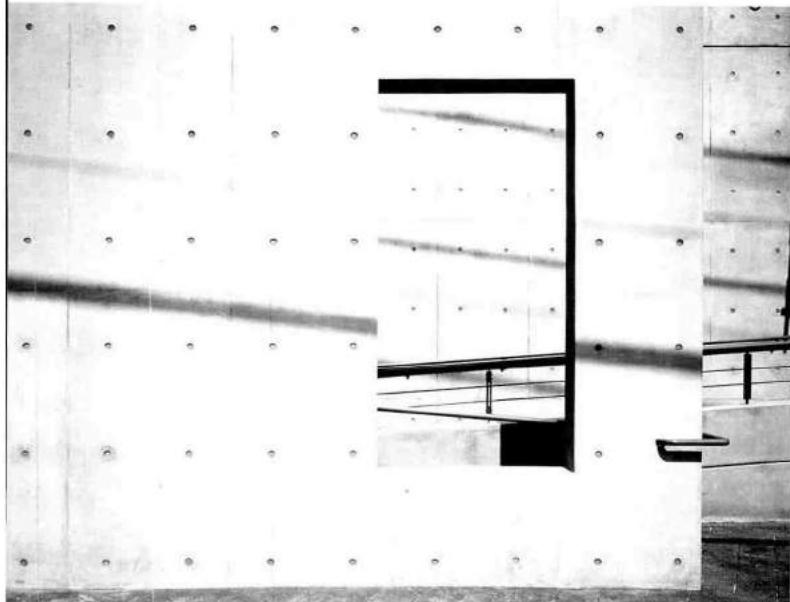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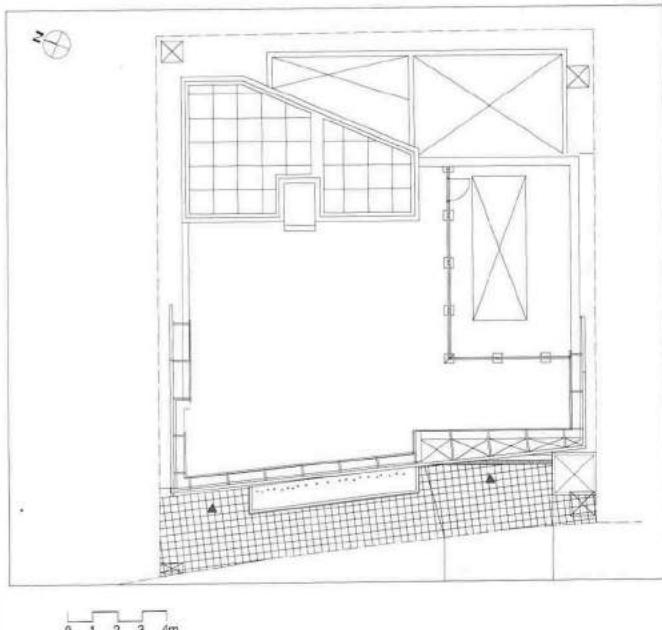
- 01_ 발전기실
- 02_ 전기실
- 03_ 원장실
- 04_ 대기홀
- 05_ 입원실(4인실)
- 06_ 상담실
- 07_ 조제실
- 08_ ELEV
- 09_ 간호사 휴게실
- 10_ 의상정원
- 11_ 물탱크실
- 12_ 창고
- 13_ 유계홀
- 14_ 접수실
- 15_ 풀리치료실



액추얼리 빌딩 &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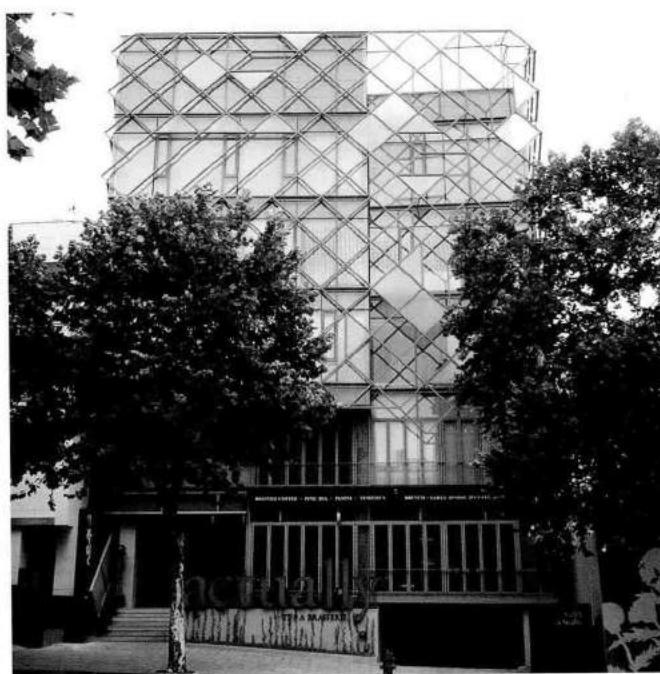
Actually Building & Café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8-1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주요용도	제 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389.6m ²
건축면적	226.88m ²
연면적	1,349.24m ²
건폐율	58.23%
용적률	286.21%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	철골콘크리트조
내부마감	THK디럭스타일, 우레탄도장, 세라민페인트, 라임스톤, 외·내부용수성페인트
외부마감	T120 AL, BAR, T16 투명복층유리
설계담당	이성란, 최대현, 김윤정, 이명
설비/전기	(주)대오설비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_Studio Zip, 박찬우)
구조설계	(주)하도니구조
시공사	(주)하우텍C&R건설



Location 118-1,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Korea
 Site area 389.6m²
 Bldg area 226.88m²
 Gross floor area 1,349.24m²
 Bldg coverage ratio 58.23%
 Gross floor ratio 286.21%
 Structure R.C
 Bldg. Scale B1, F6



1. 정면 2. 뒷면



알고 지내던 젊은 부부가 청담동에 새로 산 건물을 레노베이션 하고 싶다고 했다. 명품브랜드샵이 즐비한 거리에 검은 화강석과 불투명흰색유리로 덮여 있는 기존건물은 답답하게 보였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로데오 거리를 향해 건물 내부에서 열린 view를 가지게 하는 것 이었고 외부에서도 진입하는 부분을 크게 확장하여 내,외부 상호교류가 있게 하는 것 이었다. 기존 마감재를 다철거하고 투명유리를 전체 설치한 후 정형적인 패턴의 structure를 몇대서 전층 내부에서 view를 확보하면서 외부는 역동적인 입면을 추구하였다. 정형적인 사선의 알루미늄 structure를 전체적으로 덮고 종이 접기한 육면체를 몇 군데 뿐만 듯한 패턴으로 건물 전면과 좌우를 감싸듯이 덧댔다. 이 더블스킨은 입면변화와 더불어 내부에서의 프롬나드에 의한 다양한 시선 각도와 햇빛에 의하여 다양한 view

가 연출되고 있다.

건축주가 사용할 Office/Gallery는 인테리어를 병행하여 진행하면서 건물 설계안이 마음에 들어 이 건물에 직접 카페를 만들고 싶다고 하여 2개층 카페와 지하 직원사무실까지 디자인하게 되었다.

도로보다 1.2미터 높은 건물로비와 카페출입구는 테라스를 통해 진입하게 되고 테라스에는 “actually”라는 글자가 난간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공간과 내부가 연결된다. 2층카페와 3층 사이 계단실을 크게 오픈 하여 3층으로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나뉘는 공간과 외부가 오버랩 되고 더블스킨 또한 오버랩 되면서 수평, 수직간의 변화 있는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1_ 2층 비/층
2_ 내부계단
3_ 주출입구
4_ 3층 오픈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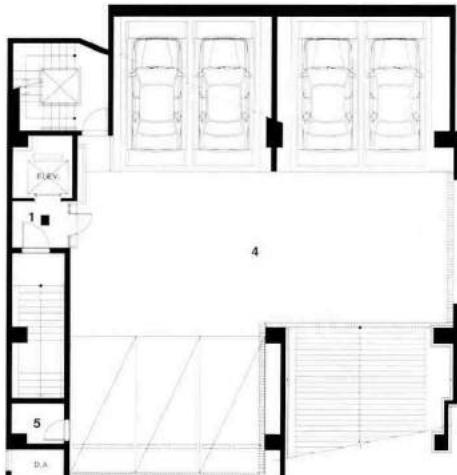




2층 평면도



6층 평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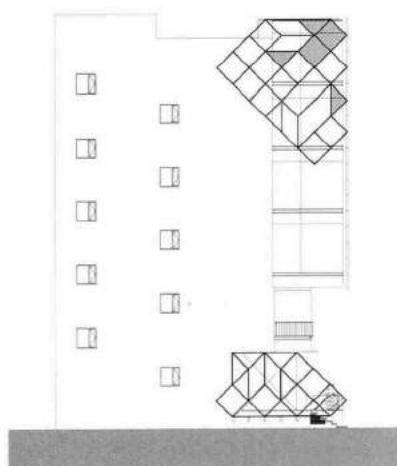
0 1 2 3 4m

- | | | | |
|--------------|----------|---------|---------|
| 01_엘리베이터 실 | 05_경비실 | 09_화장실 | 13_쉼 |
| 02_캘러리 및 사무실 | 06_주출입구 | 10_주방 | 14_도비 |
| 03_창고 | 07_홀 | 11_와인셀러 | 15_다용도실 |
| 04_주차장 | 08_로스팅 룸 | 12_보조주방 | 16_회의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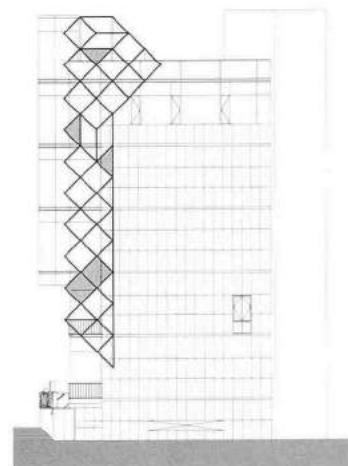
그림 수집을 좋아하는 건축주의 6층 Office/Gallery는 실험적이면서도 편안한 공간을 원했기에 벽돌, 구로철판, 미장바닥, 망입유리, 노출H빔 등을 사용한 약간은 거친듯한 공간이 되었다. 오후 햇살에 더블스킨의 그림자가 내부까지 드리워지면서 책상 위와 바닥에 재미있는 패턴이 그려지고, 또 늦은 밤이 되면 건너편 건물의 현란한 조명이 내부로 들어 오는 듯 하다.

작년 초에 시작하여 어렵게 심의 받은 안을 건축주를 설득하여 스스로 몇 차례 바꾸고, 새로운 더블스킨을 시도를 해보면서 시공사의 기술부족으로 직원들과 어려운 일도 겪었지만 건물이 완성되고 밝은 얼굴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 또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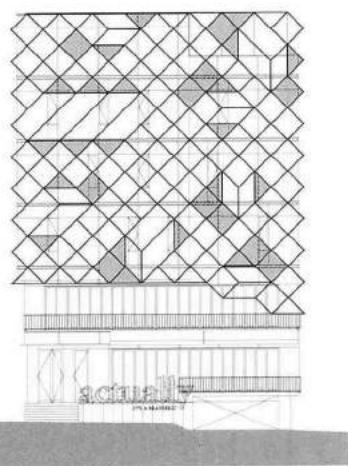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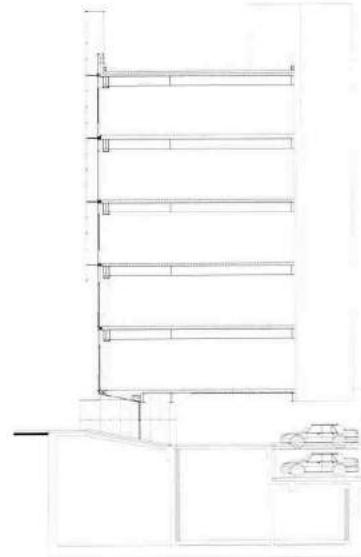
좌측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단면도

0 1 2 3 4m

0_3층 카페층
4_3층 우측홀
5_6_6층 사무실과 갤러리
7_6층 컨퍼런스룸
1_2층 바/가산대
2_2층 좌측홀





무림페이퍼 무림SP 본사 사옥

Moorim Paper Moorim SP Office Building



리모델링

하나의 건축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의 거주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척이나 많은 과정을 거치게된다. 새로운 건축물을 열망하는 건축 주의 의지가 그 시작이지만 그 마지막 역시 동일인이든 아니든 건축 주의 의지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건축행위의 원천은 건축주의 의지라고 볼 수 있으며, 설계든 시공이든 그 의지의 현실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프로젝트 대부분의 경우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미 구축되어져 있는 건축물의 물리적인 골격과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행위조건, 비용 등)과 그 프로그램을 잘 습득하고 있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건축행위들에 비교하여 다양한 제약 조건에 의한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복합적인 조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서는 설계 초기부터 건축주와 설계자 그리고 시공사의 유기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리모델링 프로젝트 진행방식의 대부분이 턴키 방식인 이유가 그것이다.

무림 페이퍼 무림SP 본사사옥 리모델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한남대교 남단이자 경부고속도로 서울 초입 부분에 위치한 무림페이퍼 무림SP 본사 사옥(프로젝트 진행 당시의 명칭은 신무림제지 사옥이었다)은 1989년 알미늄 복합패널을 주요 외장재료로 완공되었다. 하지만 십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되어 외장재료의 부분적인 피복박리 현상 등이 발생,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잇는 길목에 위치하므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외부에 충분히 보여주고 알릴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였고, 세계적인 제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랜드마크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기존 도시 조직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기존 건축물의 수평적 이미지를 각 부분의 분절을 통해 수직성을 강조하였고, 기존의 동일한 입면패턴을 재구성하여 건물의 생명력과 진취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건축물 전면의 많은 부분을 유리로 마감, 이를 통해 기업의 최고 경영진의 '투명 경영과 열린 경영'에 대한 남다른 경영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고, 특히 전면의 거대한 사각형 프레임과 수직성이 강조된 4개의 직사각형 액자형상의 구성으로 큰 틀을 잡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담을 수 있는 '종이'를 상징하기 위하여 4개의 액자부분은 반사유리를 채택, 변화하는 다양한 도시경관(달리는 자동차의 모습, 계절에 따라 바뀌는 가로경관 등)을 보여주는 것

을 의도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건축물로써의 인지성과 기업의 사옥으로써의 정체성 확보를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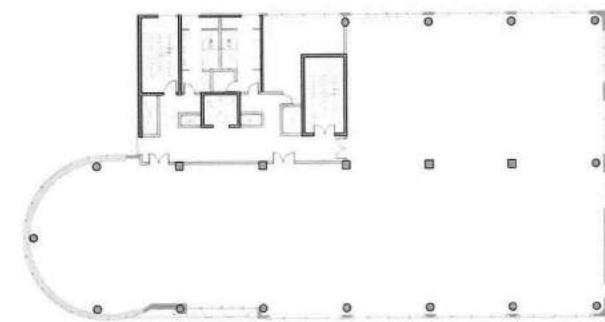
옥상에는 작은 정원을 마련하여 빌딩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모습을 담음과 동시에 확 트인 공간에서 휴식을 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내 1층 로비에는 접견실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자유로운 이야기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협소한 사옥 출입구를 재구성하고 건물의 스케일에 부합하는 입구와 캐노피를 설치한 것도 리모델링의 중점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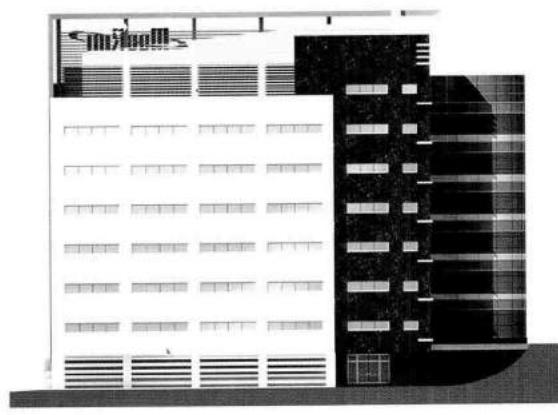
끝으로 무림페이퍼 무림SP 본사 사옥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기업의 사옥으로써 기업을 찾는 고객들과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안식처가 되기를 희망하고 평가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정면도



기준층 평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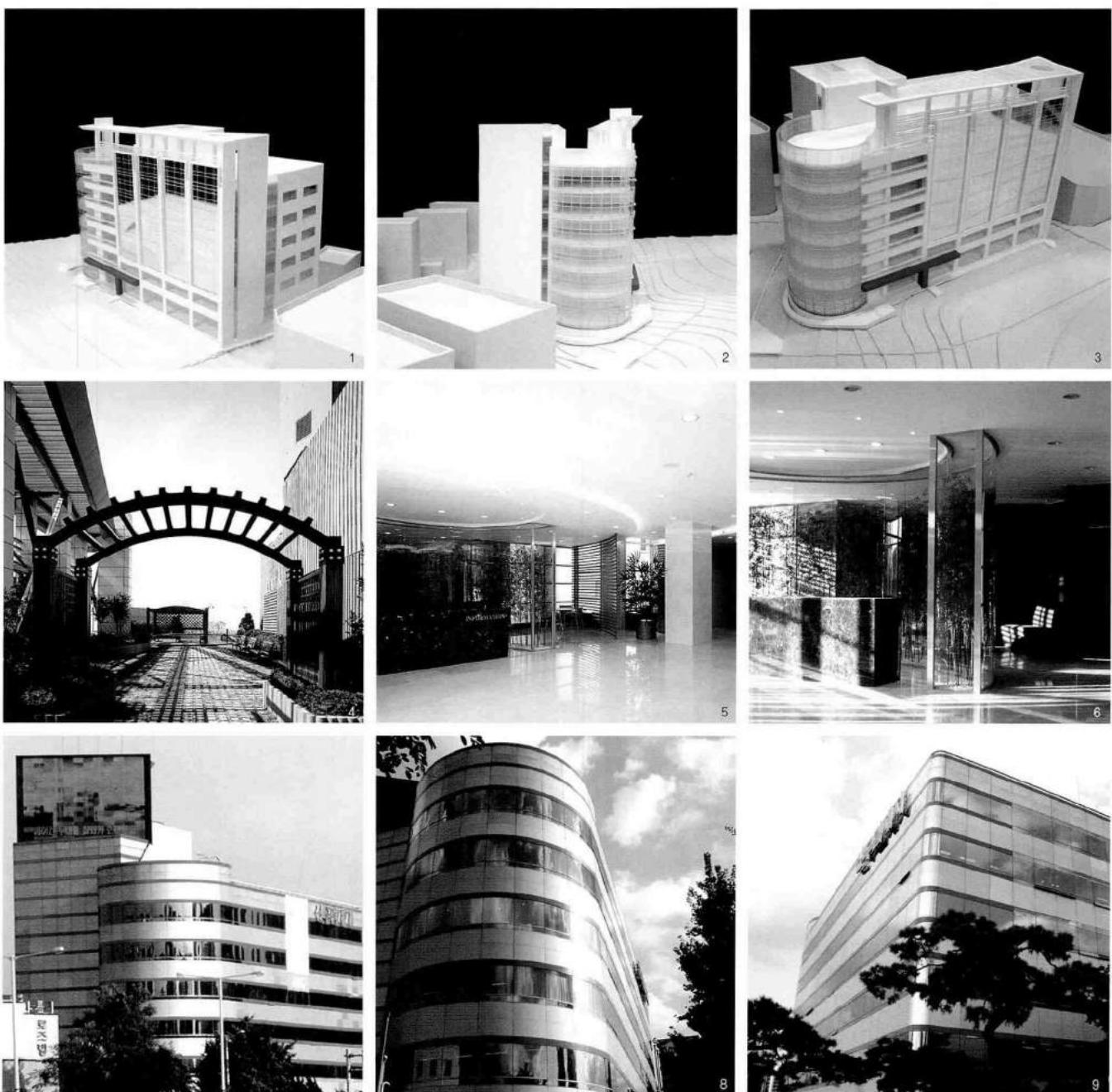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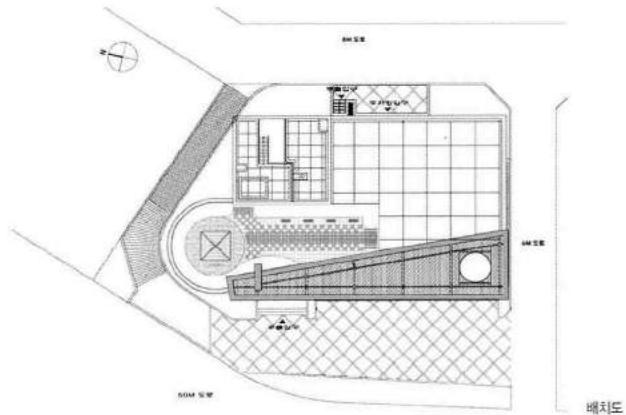


좌측면도

우측면도

개요

대지 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5번지 외 3필지
 지역 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마련지구, 일반마련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 면적 1,950.20m²
 건축 면적 961.86m²
 연 면 적 8,002.40m²
 건 평 율 49.32 %
 용 적 률 292.46 %
 규 모 지하 2층, 지상 6층
 시 공 사 현대일엔씨건설(주)
 건 축 주 무림페이퍼 무림 SP



1, 2, 3_ 무림 본사사옥 리모델링 모형도 4,5,6_ 무림 본사사옥 리모델링 후 모습 7, 8, 9_ 무림 본사사옥 리모델링 전 모습

설계경기 | Competition

청주노인전문병원

Cheongju Geriatric Hospital

당선작 / 정용현 정희원

(주)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48번지
외 3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의료시설

대지면적 8,018.00m²

건축면적 1,583.46m²

연 면 적 4,727.34m²

건 폐 율 19.87%

용 적 률 39.06%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발 주 처 청주시청

설계담당 정용현, 임준혁, 박상천, 반병재, 서명준,
강명구, 윤희원

노인전문병원 자리 잡기

청주노인전문병원의 계획개념은 '편안함'이다.

우리는 전통한옥의 중정 공간을 도입하여 시각적 안정감과 사계절을 느끼도록 하였고, 필로티 공간 구성을 통해 바람길과 치유정원을 조성하여 환자들이 마치 자택에서 거주하며, 치료를 받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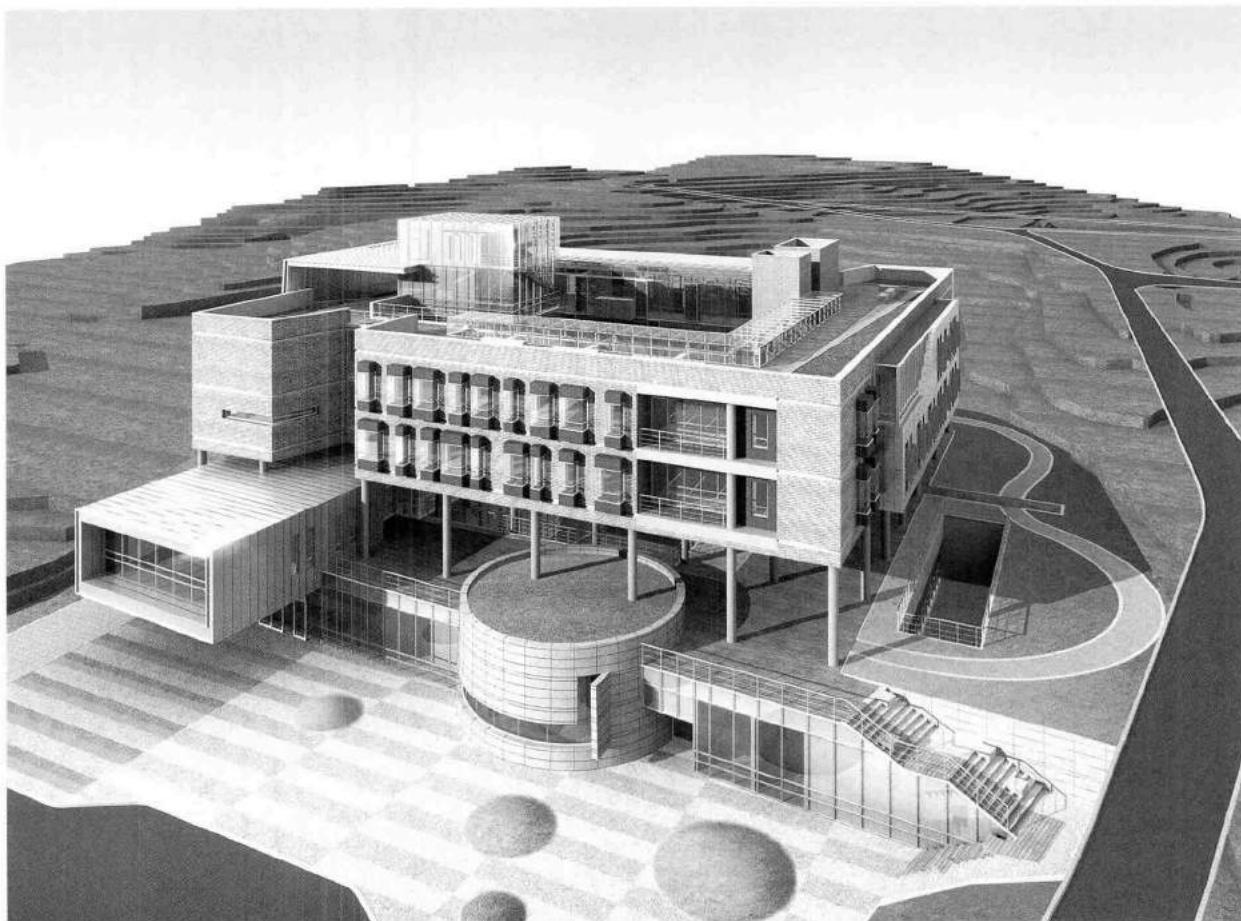
이 곳에서는 병실을 거닐어도, 마당을 밟고 맑은 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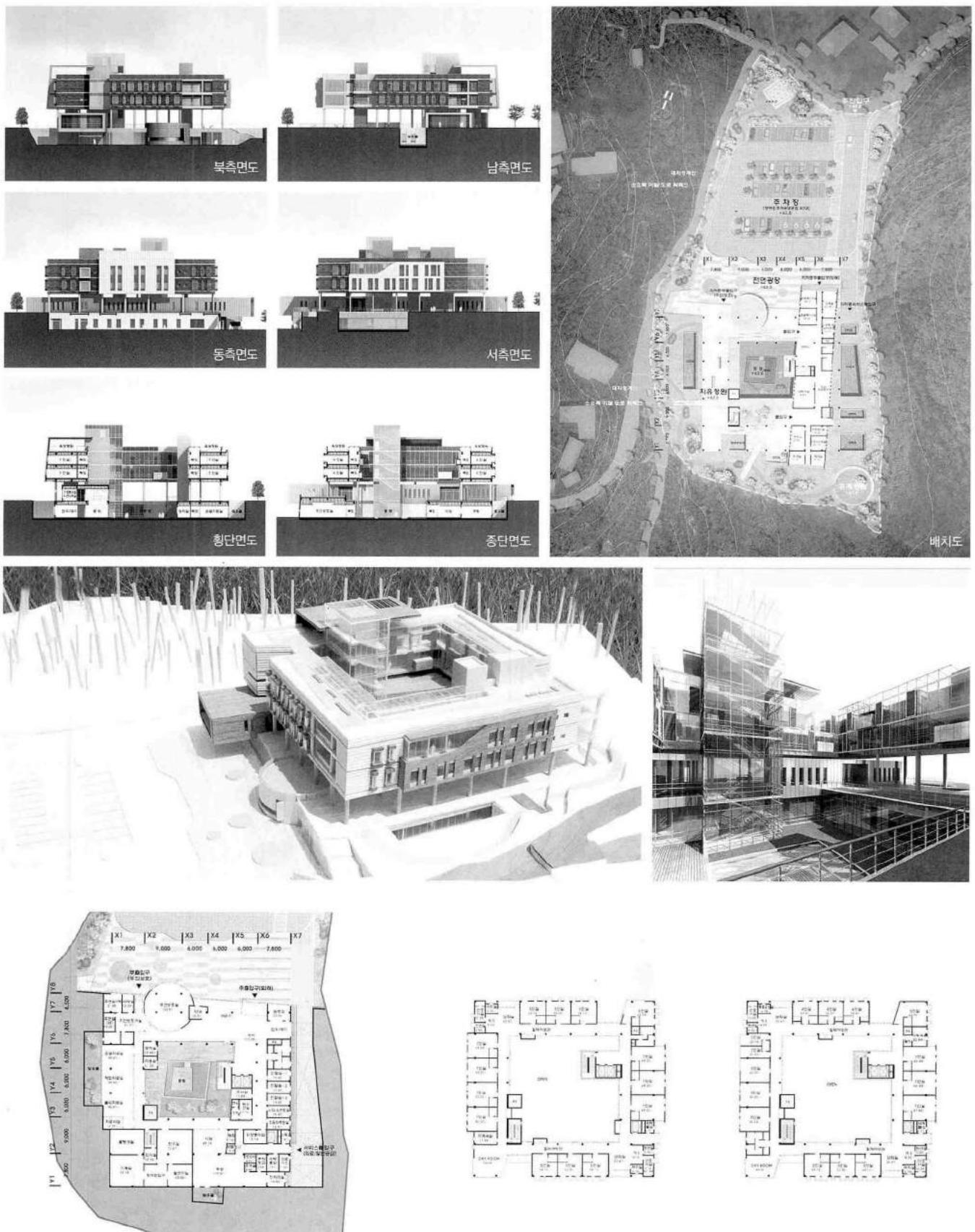
노인전문병원 만들기

외래진료, 재활치료, 주간보호 등의 영역이 배치되는 지하층은 진입부를 향해

열려진 입면구성과 중정, 선큰 등을 활용하여 채광과 통풍이 잘 되도록 구성하였고, 1층은 최소한의 관리 영역과 필로티 구성을 통하여 협소한 대지로 인해 부족해 질 수 있는 치유정원 개념의 외부공간을 최대한 구성하였다. 이는 2, 3층으로 구성된 병동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변의 열려있는 자연환경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형성하여 내외가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2, 3층에 배치된 병동 부는 다양한 타입의 병실과 가변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수평, 수직적 영역구성을 통해 공간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고, 중정형 볼륨형태로 인해 연출되는 입체적인 자연환경과 내, 외부로 열려진 조망은 최고의 치유 환경을 제공한다.





청주노인전문병원

Cheongju Geriatric Hospital

우수작 / 김학수 청화원 이윤석(주.현신종합건축사사무소)
권오준 청화원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48번지외
3필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비행안전구역

대지면적 8,018.00m²

건축면적 1,596.70m²

연 면 적 4,654.42m²

건 폐 율 19.92%

용 적 률 49.87%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발 주 처 청주시청

설계담당 현신건축_문봉호, 이남곤, 김길선, 이상원, 이
민영, 강현승

신성건축_김용석, 조주명

Concept

이 계획안은 21세기 노인전문병원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경사진 대지위에 기능을 담은 공간을 적절히 배치하여 “자연속의 병원, 병원속의 자연”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배치, 친환경재료의 적용, 생동감 있는 매스의 형태와 유기적인 내외부 공간구성, 주거/주호 개념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기능적인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배치계획

- 1) 대지의 형태가 남측이 높고 북측이 낮은 형태로 대지의 경사를 이용하여 건물을 단계적으로 배치
- 2) 북측으로 주진입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주차장 및 옥외 치유공간을 설치하여 Buffer Zone을 조성
- 3) 외래, 재활, 주간, 단기보호 건물을 주진 입구 방향으로 배치하고 병동부를 남측으로 배치하여 독립성 확보
- 4) 두 개의 건물 사이에 중정을 설치하고 연

결브릿지를 두어 기능적 연계성을 확보

- 5) 옥외공간에 채마밭 체험정원, 옥상휴게정원, 허브향 치유정원, 선큰, 및 산책로 지압시설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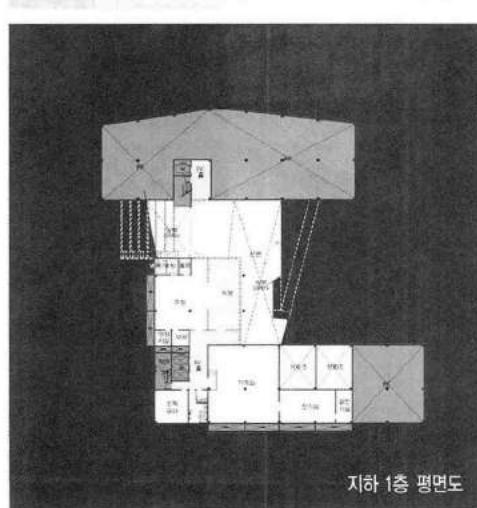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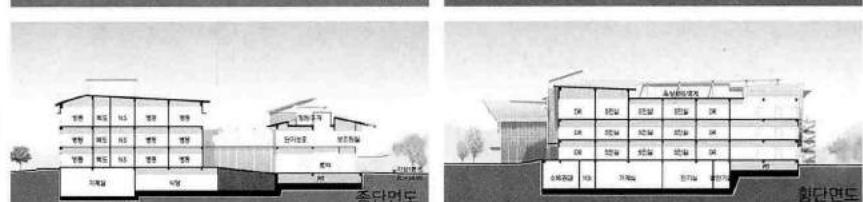
평면계획

- 1) 지하1층
 - 선큰을 설치하여 지하 공간으로 채광 및 환기 유도
 - 외부공간에서 접근 용이한 동선 체계 확보
- 2) 지상1층
 - 전면동에 외래, 검사 및 주간보호를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후면동에 병동을 구성하여 기능성 및 독립성 확보
 - 단기보호시설은 거주성격을 부여하여 일반 병실과 차별화함
- 3) 지상2층~3층
 - 병실, 보호실을 남동향으로 배치하여 자연조망을 가능하게 하며, 부속실은 북향으로 배치
 - 다양한 데이룸 및 휴게공간 배치로 밝은 실내분위기 유지 및 외부조망 가능



4) 병동 및 유닛

- 노인의 안전과 편리를 최대한 배려하고 Barrier Free 개념을 설계에 적극 반영
- 복도의 복을 여유있게 하여 배회공간을 마련하고, 휠체어 및 개인사물보관을 위한 수납공간 설치



설계경기 | Competition

강남구 대치동 어린이집

Gangnamgu Daechidong Kindergarten

당선작 / 조민석 설계원

(단아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5-1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도로현황 동측 6m도로(일방통행), 북서측 12m도로

대지면적 661.30m²

건축면적 330.31

연 면 적 1,792.26m²

건 폐 율 49.95%

용 적 률 189.34%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총 수 지하 1층, 지상 4층

최고높이 16.7m

외부마감 알루미늄패널, 로이복층유리, 멀비우목재그릴

주차개요 8대(장애인용 1대포함)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인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의 육아지원센터 도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설계안은 어린이집과 지역육아지원센터 기능을 포함한 보육중심의 선진화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지원센터와 시설을 공유토록 계획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출입동선과 지역육아지원센터 출입동선을 적극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이용상의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둘째, 공간의 가변적인 활용과 공용공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 보육실간의 벽체는 가동식 경량 칸막이로 계획하여 프로그램과 보육인원의 변동에 대비하였으며 복도 등 공용공간을 최소화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고 시설이용 동선을 단축함으로써 관리와 이용상의 편리함을 추구하였다.

셋째, 체험중심적 외부공간을 계획하였다. 남향배치의 밝고 따뜻한 마당을 계획하여 유회실에서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구들과 함께 자연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체험 중심의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지상의 외부공간은 연못마당, 걸음마당, 체험마당, 잔디마당, 놀이마당 등 크고 작은 다섯 개의 놀이 및 교육공간

건축계획의 주안점으로

첫째, 어린이집과 지역육아지원센터 각각의 기능별 명확한 조닝과 동선분리를 하였다. 어린이집은 아동의 이용 상의 편의성과 안전을 위해 지상1~3층에 배치하고 지역육아지원센터는 4층에 배치하였다. 1층에는 어린이집 관리와 상담등을 위한 사무실과 영아 보육실을 배치하였으며 2층에는 유아 보육실을 배치하였고 3층에는 대근육 실, 식당을 계획하여 4층의 지역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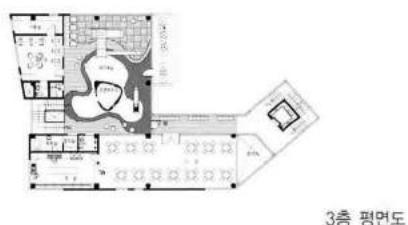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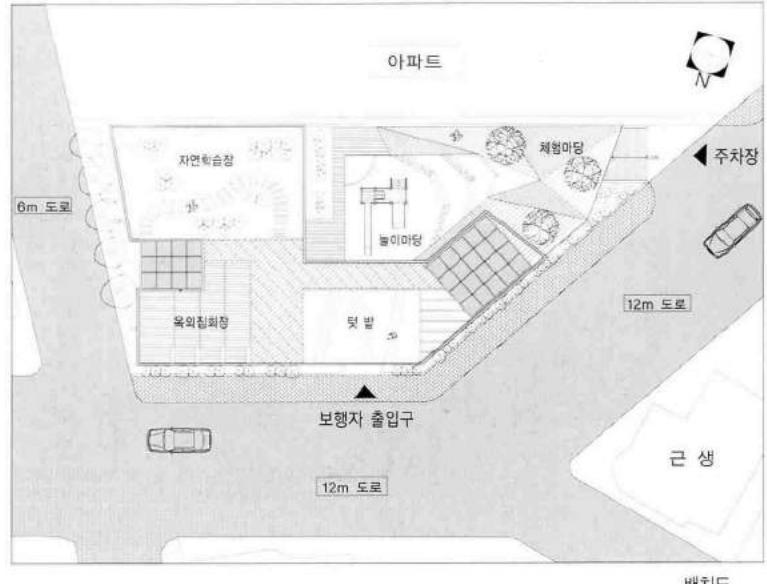


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마당을 건축적 산책로로 연결하여 다양한 공간적 사건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옥상의 외부공간은 직접 어린이들이 식물을 가꾸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텃밭과 다양한 나무와 초화류를 보고 만지면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자연학습장을 계획하였으며 각종 이벤트와 교육이 가능한 옥외집회장을 계획하였다.

넷째, 흥미로운 외관계획으로 지역의 랜드마크적 공공시설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아이들의 활동성을 주상적으로 표현한 외관 디자인과 성장하는 나무의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으로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기억에 깊이 각인되는 마을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다섯째, 별 찰들고 통풍 잘되는 어린이집을 계획하였다. 주 거실(보육실, 대근육실 등)을 남향 배치함으로써 밝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고 기계환기 및 인공조명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였다. 또한 지하주차장은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단면구성으로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를 제공하였다.



3층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1층 평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단면도 1

단면도 2



지하 1층 평면도



설계경기 | Competition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Institute Center

당선작 / 한상묵 청희원
(주. SD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 25-170 일원
지역지구	관리지역, 일부 농림지역
주요용도	의료시설
대지면적	120,662.00m ²
건축면적	6,075.75 m ²
연 면 적	4,727.34m ²
건 폐 율	5.04%
용 적 률	11.43%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설계담당	김용환, 박효성, 정순원, 정성철, 임건영, 이지은, 최미경

流

흐름에서 공간을 담아내다.
자연의 흐름과 머무는 공간 안에서
물과 빛이 만나
우리는 희망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서로 어우러져
새로운 희망의 미래성을 제시한다.

배치계획

계획 대지는 차령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주변산세가 주산이 병풍처럼 놓여 있고, 좌청룡과 우백호가 위치하며, 외수구와 내수구가 있어 풍수지리학 상 명당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곳에 능선의 흐름에 순응하고, 계곡을 중심으로 생태축을 형성하여 자연과 건축의 관입과 경계를 형성하면서도 대지 외부의 자연환경과 내부의 자연환경이 한데 어우러져 최적의 생태공간으로서의 연수원을 만들고자 하였다.

동선계획

다채로운 연수 프로그램들에 적합할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에 맞는 다양

한 외부공간을 구성하고 시간대별로 동선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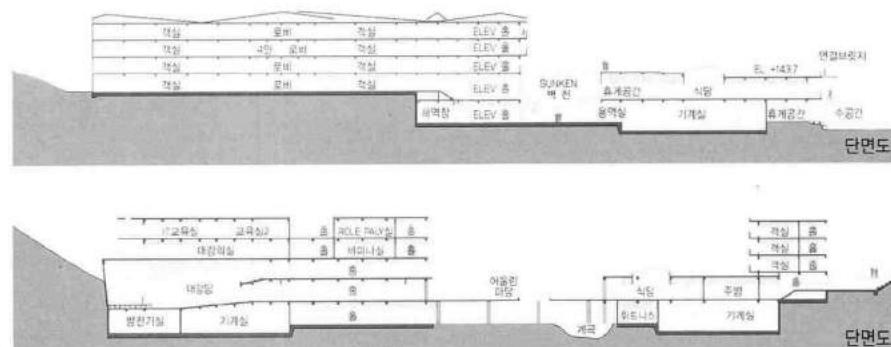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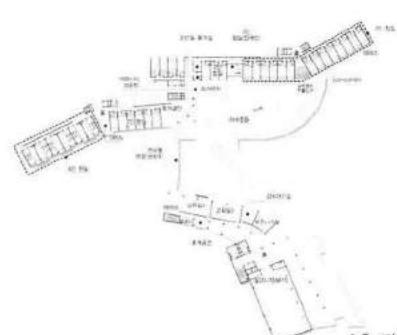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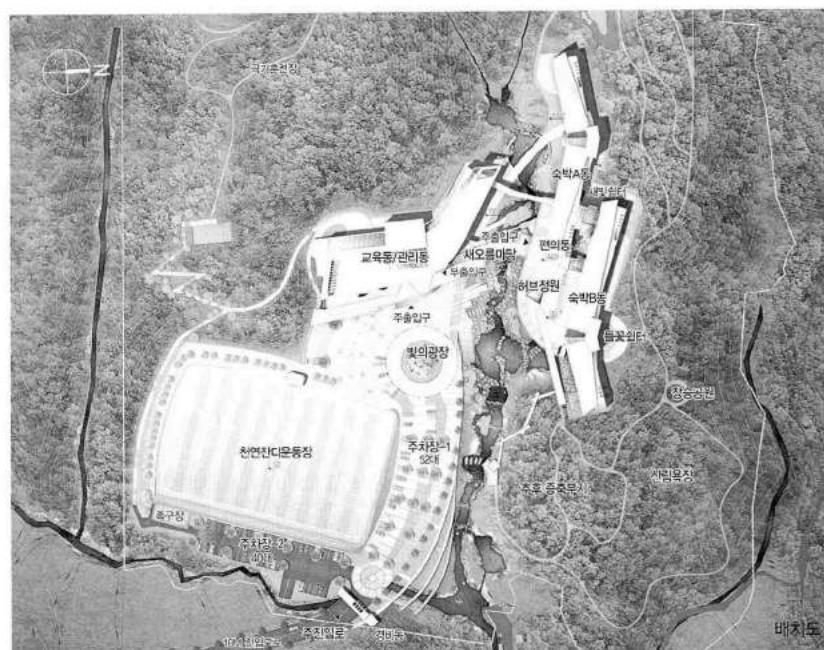
- 제1산책로 (15분) : 친수활동 및 사계절 생태원, 관찰데크, 전망 및 휴게시설 (옥상조경 + 휴게데크)
 - 제2산책로 (30분) : 자연체험 및 옥외 활동 공간으로써 전면광장 - 테마휴게공간 - 옥외운동시설 - 극기훈련
 - 제3산책로 (1시간) : 산책, 등산로는 기존의 등산로와 연계한 순환산책로 - 정자/데크전망대 - 솔향쉼터 - 산림욕장 등을 계획
- 차량 동선은 주진입 초입에 주차장을 계획하여 단지내에서 보행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였다.
- 평면계획**
- 동별구성은 교육동 1동, 편의동 1동, 숙박동 2동으로 구성하고 그 4개의 동은 새오름마당 - 데크브릿지, 허브정원등을 통해 각동으로 진입되도록 유도
 - 새오름마당 - 데크브릿지는 동선의 기능 및 휴게와 전망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



- 각 동별 선큰, 휴게홀, 휴게데크, 브릿지, 실내 정원, 허브정원, 벽천 등의 풍부한 휴게요소를 계획하여 연수생들에게 다채로운 공간을 제공
- 단위 평면은 1인실, 2인실, 4인 한실로 구성하고 자연통풍 및 채광이 가능하도록 모든 유니 트를 편복도형으로 계획

입면계획

- 자연지형에서 Flat-Skip-Flat의 개념으로 랜드 스케이프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기본 으로 숲속에서의 나무, 나뭇잎, 지층, 계곡물 의 흐름 등의 이미지들을 모티브화하여 수직, 수평 라인을 강조
- 편의동의 저층부 및 숙박동 코어의 투명하고 가벼운 유리매스는 연수원에 있어 ‘자연의 거울’의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적 요소로 장치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Institute Center

우수작 / 변 용

(주) 원도시건축 건축사무소

대지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 25-170 일원
지역지구	관리지역
대지면적	120,662m ²
건축면적	7,821m ²
연 면 적	16,508m ²
건 폐 율	6.48%
용 적 률	13.68%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발 주 처	근로복지공단
설계담당	김형수, 홍승희, 홍상규, 이재현, 김지영, 손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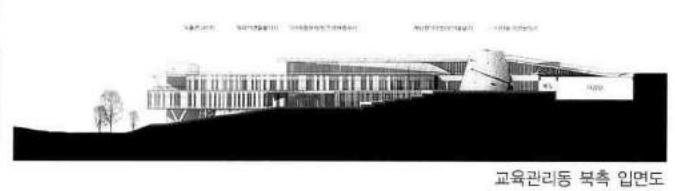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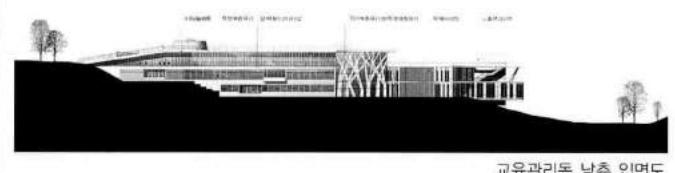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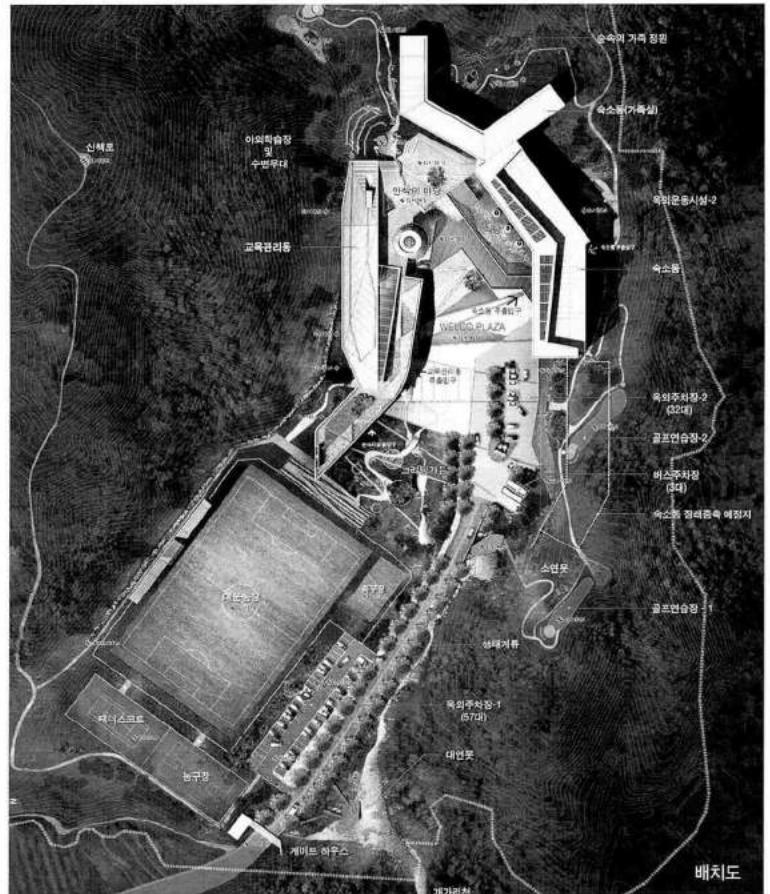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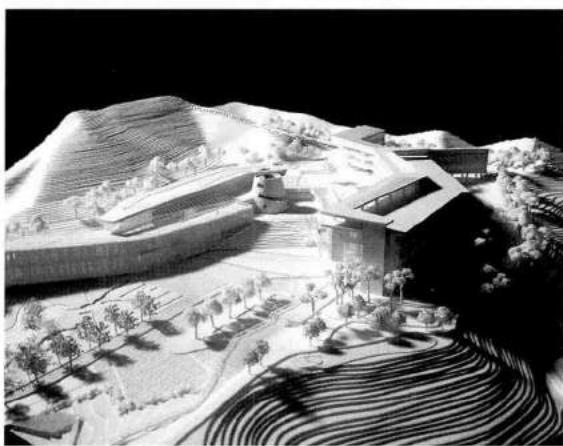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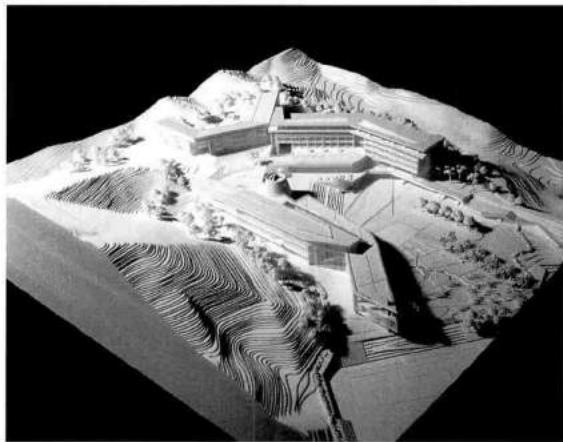
계획대상지는 서고동저형의 계곡형 산악지형으로 대지 전면부인 동쪽에서만 진입이 가능하고 주변지형으로 인해 조망이 차단된 계획에 상당히 불리한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다. 가용지는 부족한 반면 약 5,000여평의 연면적과 운동장 등을 계획해야 하는 상황 이므로 대지의 협소한 국면을 계획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우리의 전략은 한마디로 '건축의 계곡 되기'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지형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관리동과 숙소동으로 분리 배치된 건물의 매스는 계곡 지형의 사이를 채우는 인공적인 계단광장과 마당, 야외학습장으로 연결된다. 하부는 기계실이나 대강당, 식당 등의 공유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채웠다. 결국 지형을 따라 매스가 분리되면서도 내부로 연결된 흥미로운 상황

이 연출된다.

이와 같은 전략은 불리한 지형조건을 극복하고 의도적으로 자연과 건축의 경계가 모호한 경관을 연출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결코 단순하지 않은 공간구조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연수원의 사용자들은 일과시간 동안 숙소와 교육동 사이를 오가면서 때로는 실내로 때로는 외부로, 다양한 루트를 이용하면서 계곡 지형 전체를 공간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조경계획에서도 의도적으로 인공적 조경과 건축, 그리고 자연 상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교육관리동의 경우 의도적으로 낮게 그리고 지형적인 형태로 계획함으로써 건축과 조경의 구분을 흐리게 한다. 경계 흐리기의 의도는 명백하다. 건축과 자연, 그리고 사용자들의 활동을 하나의 통합적인 전체로 엮으려는 것이다.





김주형
동명대학교 건축대학 건축공학과 조교수
by Kim, Ju-hyeong

건축주 브리핑 – 관점의 중첩(完)

Client Briefing - Perspectives Overlapping

목 차

1. Who are clients?

건축주의 이해 : 건축주의 정의, 유형, 건축주의 당위적 행위, 국내 건축주 대상 만족도, 당위적 행위 중요성 인지 및 이의 수행 시 어려운 정도, 당위적 행위를 위한 정보취득 행동 조사 방법 및 분석 결과

2. Ins and out of clients briefing

건축주 브리핑의 이해 : 건축주 입장에서의 프로젝트 성공, 건축 주 브리핑의 유형, 건축주 브리핑의 절차 및 내용

3. Today and tomorrow of clients briefing

건축주 브리핑의 현재와 미래 : 국내외 건축주 브리핑의 사례, 향후 건축주 브리핑 발전 방향

※ 김주형 교수는 한양대 학사와 석사를 졸업 후, 영국 레딩대(Univ. of Reading)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동명대학교 건축대학 건축공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1997 ~ 2000. (영) Advanced ConstructionTechnology 연구원
- 2002 ~ 현재. 동명대학교 교수
- 2006.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워크숍 분과위원
- 2006 ~ 현재. 한국교육평가원 교육시설 BTL 제안서 평가위원
- 2007 ~ 현재.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2007 ~ 현재. 한국건설관리학회 영남지회 총무이사
- 2007 ~ 현재. 동명대학교 건축공학과장
- 2007. 대한건축학회 논문상 수상

들어가는 말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그 어떤 명의도 병을 고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명의는 뛰어난 의료기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리까지 파악해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치료과정 및 결과에 대해 환자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도 갖춘 의사일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명의라고 소문난 의사에게 진료 받을 기회를 어렵게 얻은 후 그들의 고압적인 태도 혹은 치료방법에 대한 독단적 결정에 실망한 경험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스튜디오의 문을 두드린 건축주에게 건축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환자와 건축주 모두 자신의 상황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와 건축행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때로는 자신의 요구를 설명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과거의 경험 혹은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와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도로 상황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본다.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상이한 관점들의 접점에서 때로는 환자나 건축주를 교육시키면서 때로는 그들의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요구를 표면화 시키면서 상황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의사나 건축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환자나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

건축주 및 건축사를 포함한 용역제공자의 관점이 중첩되는 부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건축주 브리핑이다. 건축 프로젝트의 초기단계는 '문제상황(problem situations)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시도'라고 요약될 수 있다. 문제상황은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우려(concerns), 관심(interests), 요구(requirements), 필요(needs) 및 제약(constraints) 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¹⁾. 브리핑(briefing)은 문제상황의 파악 및 해결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건축주 조직의 필요와 자원을 이해하고 이를 건축주의 (시설물에 대한) 목적과 (건축주 조직의 고유) 업무와 부합시키는 점진적 절차"라 정의내릴 수 있으며 브리프(brief)는 이 과정의 결과이다. 그러나 건축주 브리핑을 기술 혹은 절차로만 이해한다면 기존의 건축기획 혹은 설계의 한 부분으로만 이해될 수밖에 없다.

올바른 건축주 브리핑은 건축주는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건축에 접근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건축주 자신의 생활 혹은 업무영역에서는 그들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지식을 최대한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 용역 제공자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설계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무료로 수행했던 건축주 대상 비설계 업무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대가를 받는 독립적인 용역으로 발전해야 한다. 물론 건축사 혹은 여타 전문가의 건축주 브리핑 능력이 제고되어야 하고, 건축주는 브리핑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 결과 건축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건축주는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무료로 수행된 브리핑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주 브리핑의 온전한 이해는 건축주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 질문과 관련된 논의를 다루고자 하며, 건축주의 정의, 유형, 건축주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당위적 행위 등을 살펴보자 한다. 국내 건축주 중 민간 개인 건축주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만족도, 당위적 행위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이를 수행할 때 느꼈던 어려운 정도,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의존한 대상 조사 방법 및 이를 토대로 추론한 행동 양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룬다. 2회에서는 건축 프로젝트 절차에 따라 분류된 건축주 브리핑의 종류와 이와 관련된 브리핑 내용 등을 설명한다. 3회에서는 국내외에서 수행된 건축주 브리핑 사례와 앞으로의 건축주 브리핑 발전 방향 등을 언급하고자 한다.

1) Blyth, A. and Worthington, J. "Managing the Brief for Better Design", Spon Press, London, UK, 2001. 기타 브리핑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Today and Tomorrow of Client Briefing

건축주 브리핑의 오늘과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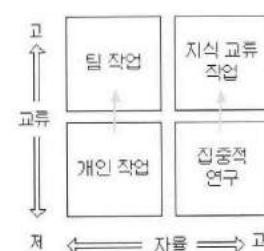
건축주 브리핑은 프로젝트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프로젝트에서도 수행되어야 한다.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비록 별도의 용역 형태가 아닐지라도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설계용역제공자가 일정부분 브리핑을 수행한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 특히 법인 건축주에 의해 발주된 프로젝트에서는 지난 호에 소개된 브리핑 이론 및 방법을 도입해 브리핑을 수행할 수 있다. 법인 건축주를 위한 전략 브리핑은 별도의 용역 형태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며 기타 브리핑은 전통적 기획 및 설계 단계와 융합되어 수행된다. 이번 호에서는 별도의 용역으로 수행된 전략브리핑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브리핑이 어떤 형태로 발전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국외 전략 브리핑 사례

국외에는 혁신이 필요한 R&D 중심 기업, 컨설팅사, 금융사, 대학교 등의 신규 및 리모델링 프로젝트 형성단계에서 수행된 전략브리핑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설계용역의 일부로 전략브리핑과 유사한 과정을 밟은 예도 있겠지만, 이후 프로젝트와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적인 브리핑 용역 전문회사가 수행한 전략브리핑 사례 하나를 살펴보기로 한다.

10만명 이상의 직원과 매년 30~35%씩 성장하고 있던 다국적 컨설팅 업체인 Andersen Worldwide(Arthur Andersen and Andersen Consulting을 포함)은 본사 신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향후 변화될 업무의 성격을 정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프로젝트로 형상화 하는 과정을 전략 브리핑을 통해 수행하고자 했다. 이때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Andersen Worldwide는 각국의 파트너가 처한 지역성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보유한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Anderson이 영업용 건물을 구매하거나 신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틀(framework)을 만들고자 했다. 이 틀은 Andersen의 최고경영자가 역설했듯이 컨설팅을 받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의 획득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1992년 Anderson의 부동산 관리 팀과 DEGW에 의해 전략 브리핑이 수행된다. 전략 브리핑의 핵심은 <그림 1>과 같이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업무변화를 규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을 프로젝트로 구체로 하는 것이었다. 그 이전까지의 업무가 교류 및 자율 정도가 낮은 개인작업 중심이었다면 전략브리핑 수행 당시 교류와 자율이 많이 필요한 지식교류 작업으로 업무 성격이 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포커스그룹, 멜파이 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업무유형과 공간사용을 조사·분석한 결과 내려진 것이었다. 1996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새로운 본사로 Andersen Worldwide가 입주한다. 이 건물의 설계를 SOM이 담당했고 혁신적인 이웃(neighbor)개념을 도입한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이웃개념이 DEGW에 의해 집중적으로 수행된 전략브리핑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림 1>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건축주 조직 업무성격 변화

이웃 개념의 핵심은 불필요한 개인공간을 줄이는 대신 다른 직원간의 교류를 늘리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새 본사에서는 개인 공간이 30% 정도 줄어들었다. 심지어 CFO(Chief Financial Office)와 그를 보조하는 일반직원도 <그림 2>의 중앙과 같이 한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개인적 공간의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 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림 2>의 좌우측 사진처럼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40% 가량 늘어났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집중적인 사고를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닫힌 공간도 늘었다. 기존 건물에서는 22층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5층만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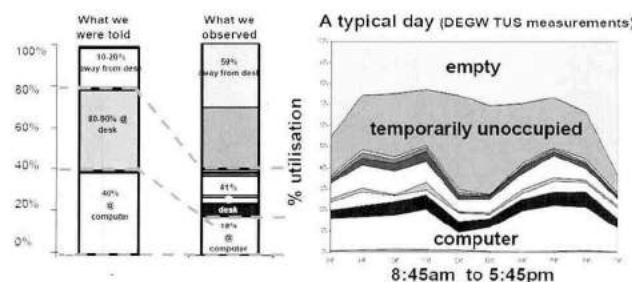
<그림 2> 시카고 Andersen Worldwide 본사의 사무공간

이러한 접근은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1990년 초반 대대적인 감원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자 했던 다른 업체와 달리 Andersen은 직원간의 지식공유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출경비 중 인건비에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업무용 부동산 흐드 및 운용 분야에 전략브리핑을 도입해 경비를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인 것이다. 또 다른 시사점은 대형 건물이 기획된 후 인도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략브리핑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인도될 시점과 그 이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후 각국의 Andersen 파트너들은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시카고 본사 전략 브리핑과 정중 정립된 틀에 맞춰 전략브리핑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전략 브리핑 사례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된 전략 브리핑 사례는 드물다. 전략 브리핑 자체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분야이며 이를 독립적인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전략브리핑을 외국 컨설팅사에 의뢰해 수행한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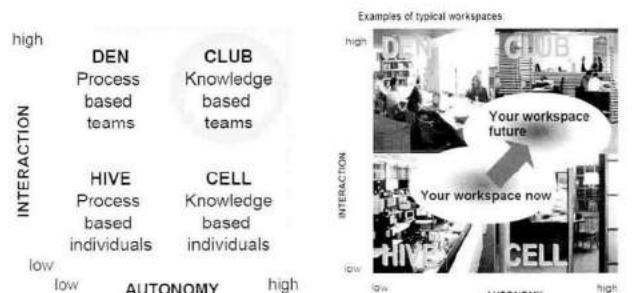
한 글로벌 R&D 기업의 한국 본사 외국인 최고경영자가 창조적 접근을 중요시 하는 모기업의 문화를 한국 본사에 뿌리내리게 하고 싶었다. 그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접촉하기 전에 전략브리핑을 DEGW에 의뢰했다. DEGW는 앞서 살펴본 Anderson Worldwide를 위한 전략브리핑에서처럼 건축주 조직을 먼저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규모, 업무성격, 비전, 사업목표, 문화, 직원규모, 필요한 기술 수준, 타 직원 혹은 부서와의 교류정도, 방문자 빈도, 작업 시간 유형 등을 조사했다. <그림 3>은 작업 시간대별로 사무공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다. <그림 3>의 좌측 비교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 사용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서 업무를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0% 가량만 책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60% 시간은 책상에서 벗어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사무공간의 시간대별 사용 분석

건축주 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가장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했는지를 물었고, 대다수가 동료와의 비공식적인 토론을 통해서라고 대답했다. 일부는 홀로 조용한 공간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DEGW는 건축주 조직의 업무 유형 및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절차적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개인들이 마치 벌처럼 모여 있는 벌통(hive), 자신의 지식에 주로 의존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위한 작은방(cell), 절차적 업무를 팀으로 수행하는 직원을 위한 서재(den), 지식을 기반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직원을 위한 클럽(club) 등으로 <그림 4>와 같이 분류했다. 각 작업유형별로 필요한 공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직원들의 작업시간을 조사하여 파악하였다. 이를테면 하루일과 중 고객을 만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등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이 후 도입 가능한 업무지원 정보기술에 따른 작업시간의 변화와 향후 건축주 조직의 업무 내용 및 조직의 규모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였다. 현재 이를 반영하여 설계된 건축주의 본사건물 신축 프로젝트가 수행 중에 있다.

브리핑과 정보시스템



<그림 4> 작업유형별 필요 공간의 성격

O'Reilly(1987)는 정보이론에 바탕을 둔 건축주 관련 연구에서, 건축주의 요구를 정리한 정보와 결정된 내용 등을 담은 브리핑을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참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정보이론은 사회현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조직이론에서 의사소통의 기본 매체가 된다. 건설 프로젝트는 설계와 생산이 별도의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단절적인 구조로 수행되기 때문에 건축주로부터 생성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축주는 건설프로젝트에서 최초로 정보를 발생시키는 주체이므로 이상적인 통합모델 관련 연구는 건축주를 시작점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단계에는 비정형화된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로 사전에 정의된 통합모델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거나 제공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수성을 모두 만족시키기 보다는 가능한 수준으로 일반화시켜 프로젝트 전체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정보를 취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브리핑을 지원하고자 한 사례로는 Client Aid Programme, Client Aid Expert System, Briefmaker, CPDT, ClientPro 등이 있다.

● Client Aid Programme

만약 출판물 형태의 건축주 안내의 한계가 다양한 건축주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건축주의 상황에 맞는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주가 처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사전에 정의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방향 역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전문가시스템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로 최초로 보고된 것이 Client Aid Programme이다. 영국 레딩대학교의 Goodacre와 3인(1982)은 당시 보급되기 시작했던 PC에서 운영될 수 있는 건축주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건축주에게 부족한 지식의 보완하면서 건설프로젝트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자문해 주고자 했다. 건축주는 여러 예시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자문의 내용이 달라지도록 기획 되었다.

이 연구의 의의는 건축주 지원도구가 IT를 도입하여 양방향교류(two way interaction)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인터넷과 같은 광범위한 정보교류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아 단순히 제안으로 그쳤지만, 만약 통신 네트워크가 더욱 정밀하게 발전하고 광범위하게 보급될 경우 실시간으로 건축주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이점은 당시 기술 상황에서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한계로 연구자들에 의해 언급되기도 했다.

이 시스템의 한계는 건축주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정의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수행되었던 전문가 시스템 이론에 기반을 둔 관련 연구들도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진다.

● Client Aid Expert System

Hudson와 2인(1991)은 프로젝트 초기단계의 브리핑 수준에서 건축주와 디자인 팀을 지원하기 위해 Client Aid Expert System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경험이 없는 건축주가 디자인팀을 접촉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프로젝트 자체를 규명(define)하는 부분으로 시설물의 종류, 예상하고 있는 규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부분이다.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모두 입력되어야 구동되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비용, 개략적인 일정, 시설물의 기능,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한 환경 및 조직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시스템에는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통해 건축주가 관심을 가진 여러 대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건축주가 이 시스템을 이용한 후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자문이 출력되며, 관련 정보는 이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된다. 이 연구는 이후 정보이론에 기반을 둔 건축주 관련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March와 Simon(1993)은 전문가시스템을 포함해 사전에 정의된 절차에 의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한계는 관련 상황을 모두 분석하고 규정해야 하는 작업의 방대함과 아울러, 그 상황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 이용자의 그것과 부합된다고 해도 실제 행동은 시스템에서 자문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수행된다는 점이라고 언급하였다. 연구자 자신들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의 전단계(pre-project stage)와 같이 비정형화된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시스템의 이용은 한계가 있다.

● BriefMaker

Hansen와 3인(1996)이 발표한 BriefMaker의 배경은 인터넷을 도입해 건축주 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BriefMaker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기존 프로젝트 정보의 검색, 인터넷에 기반을 둔 실시간 정보교환, 멀티미디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저장 및 표현 재재 등 당대에 사용 가능한 정보기술을 모두 포용하고자 했다. 이 연구

를 통해 Goodacre와 3인(1982)이 제안한 실시간 정보제공을 구현할 수 있었으나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 CPDT

레딩대학교(Univ. of Reading, UK)의 첨단건축기술(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y)연구소의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프로젝트 규명도구(construction project definition tool)는 단순히 최종 사용자의 필요 및 요구를 밝혀내는 범위에서 벗어나, 발주자가 이를 다음 유사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시스템이다. CPDT는 특정 시설물에 대한 점유 후 평가와 이후 유사 프로젝트의 설계 브리핑 단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최종 사용자의 의견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품질기능전개(Quality Function Deployment)기법을 도입하였다.

QFD를 이용한 사용자 점유 평가는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유사프로젝트 상호간에 이용될 수 있지만 다른 종류의 시설물 프로젝트에는 이용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Gray와 Hughes(2001)도 일회적인 프로젝트에 QFD를 도입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바 있다.

● ClientPro

ClientPro 역시 품질기능전개(QFD)방법을 이용하여 러프보로우(Loughborough)대학 연구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들은 기존의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프로젝트 이전단계(pre-project stage)의 발주자 브리핑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ClientPro의 목적은 발주자의 요구를 발주자 요구처리모델(client requirement processing model)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저장하고 이후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이를 열람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 모델이 상이한 프로젝트 유형의 발주자들의 요구를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lientPro에는 발주자들의 요구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능과 이후 계획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사전에 규명되어 이후 발주자 스스로 입력하고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 도구는 정보이론에 근거해 발주자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저장하여 이후 단계에 참여하는 용역제공자들이 이를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는 전문가 집단이 이 도구를 평가한 결과만을 담고 있을 뿐 발주자들의 사용 후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연 발주자들이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 IFC 3.0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는 사전에 정의된 절차와 규명된 데이터 종류에 따라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관리하고 여러 응용도구에서 별도의 입력이나 기존 정보의 변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정보통합모델이다. 최근 영국의 IFC 연구분과에서는 발주자 브리핑 단계를 IFC에 포함하

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IFC의 모델표현양식에 따라 발주자 브리핑도 표준화된 절차로 정의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거나 발생하는 데이터 종류 또한 사전에 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의 문제점은 발주자 브리핑이 혼돈된 상태에서 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고유한 방법을 가져야 하지만 표준화된 절차모델이 이와 같은 유연성을 완벽하게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브리핑의 미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리핑에 정보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 주된 이유는 브리핑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이후 단계까지 손실 없이 관리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오다 최근 들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인해 프로젝트 및 세부 브리핑이 통합 정보관리의 틀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

2D 기반의 건축모델링은 건물의 정보를 2차원 기하학적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빌딩을 완전하게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각각의 도면들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관련도면을 각각 수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면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많았었다. 이러한 2D-CAD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D-CAD, 파라메트릭기반 CAD, 객체기반 CAD 등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3차원 객체에 시간정보를 연결시킨 4D CAD, 비용 정보를 연결시킨 5D CAD 및 최적화를 위한 nD CAD까지 개발되고 있다. 건축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로 관리되는 데이터를 모델링한 프로젝트 정보모델을 토대로 CAD를 비롯한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조합해 건물정보를 생애주기동안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BIM은 건물정보를 브리핑 단계에서 시공단계를 거쳐 유지관리단계에까지 일관성있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을 제공하며, 하나의 통합모델을 기반으로 건설산업의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제한적인 2D 기반의 도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확장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외 BIM 관련 연구 동향

미국 GSA의 3D-4D-BIM Program, IAI 독일의 buildingSMART, 싱가포르의 CORENET e-Plan Checker 등 많은 나라에서 BIM을 건설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국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 미국조달청)는 2003년에 PBS(Public Building Service : 공공시설국)의

OCA(Office of Chief Architect : 건축부)가 제정한 국가 3D-4D-BIM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6년까지 OCA는 3D-4D-BIM Program으로 50개가 넘는 주요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왔고 현재 3D-4D-BIM Program을 미국 전역의 25개가 넘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11개의 시범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IAI(International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의 'buildingSMART'는 건물정보를 건축설계단계에서 생성하여 시공 단계를 거쳐 유지보수 단계에 전달되는 전 과정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개념이며, 건물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IFC를 사용하여 분야 간 데이터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IAI독일 지부에서는 'User handbook Data exchange BIM/IFC' 을 출판했는데 이 지침서에는 BIM 프로그램과 IFC 중립포맷을 사용하여 설계 전 과정에서 BIM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건설청의 주관으로 건축과 IT 분야를 연계하기 위해 13개 정부기관이 연계된 웹 기반의 건설 행정처리 시스템인 CORENET(COnstruction and Real Estate NETwork)을 개발하였다. CORENET e-submission 시스템은 웹 기반 환경에서 기업과 정부 간의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며, CORENET e-PlanCheck 시스템은 자동 도면 법규체크 기능이 있다. CORENET e-Info 시스템은 웹 환경을 통한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ORENET 시스템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CORNET 시스템의 세부 구성

구 분	내 용	
OASIS	빌딩 프로젝트의 생명주기 동안에 발생되는 정보를 통합하는 정보기술 시스템으로, 개발 각 단계에서 발생되는 정보의 제공	
ISS	OSSC	가상의 정부 부서로써 각 부서들의 건설 업무 처리와 승인을 위해 도면과 문서들의 제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
	IPC	빌딩 계획의 디자인 단계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자동으로 알려줌. 웹 기반의 자동 법규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FORNAX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
Collaborative design	협업 환경의 제공	
IPM	프로젝트 관리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CORENET e-Plan Check System은 1982년 자동화 법규체크에 대한 제안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1997년 BP-Expert의 개발이 실패한 이후 IFC를 활용하여 개발하게 되었

으며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여러 시범사업 및 활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BP-Expert는 Artificial Intelligence(AI)와 Feature-based CAD 기술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건축 계획을 체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3D CAD 데이터가 아닌 2D CAD 데이터 중심이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계획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결과는 2000년 9월 정식으로 진행된 법규 체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좋은 경험이 되어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2D 표현이 아닌 3D 모델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 e-PlanCheck는 현재 건축 및 설비요소의 상세한 부분까지 법규검토가 가능했다. 또한 앞으로 구조적인 부분과 GIS과 관련된 외부작업까지 가능하도록 확장될 예정이다. CORENET e-Plan Check System이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전략을 분석하면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3차원 BIM 활용(IFC 기반)
- e-Plan Check를 지원하는 IFC CAD 를 개발의 지원
- 산업에 IFC CAD 기술 채택의 보급

국내 BIM관련 연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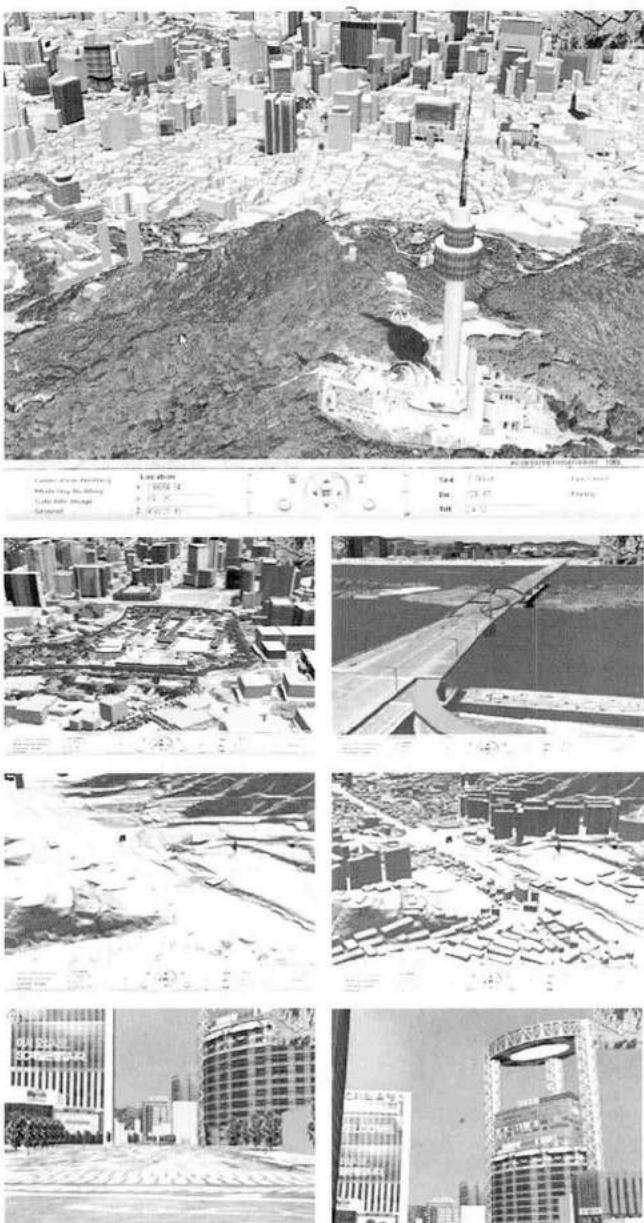
〈그림 5〉 가상건설 시스템 개발 연구단 연구 내용

건설교통부가 지원하고 있는 '가상건설 시스템 개발' 연구가 있다. 5년동안 100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될 이 프로젝트에는 국내 10여개 대학교와 40여개의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는 BIM 다음 단계의 개념인 PLM(project lifecycle management)을 중심으로 한다. 전체 프로세스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가상 현실 등의 시각화 기술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림 5〉에 연구의 핵심 개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기

획단계 시뮬레이터가 건축주 브리핑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담고 있다.

3D GIS와 BIM의 연동을 통한 브리핑 지원

BIM기반 차세대 CAD는 최종적으로 3D GIS와 연동돼 건축 프로젝트 기획단계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도시의 지능형국토지리정보 시스템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서울, 대전의 경우 단순한 지리정보 뿐만 아니라 도심지내의 주요 시설물의 외형이 〈그림 6〉과 같이 모델로 구축되어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현황 및 속성을 이용한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3D 경관분석 및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정보관리 시스템을 우대칼스에 의뢰해 구축했다.



〈그림 6〉 서울시 도시계획정보관리 시스템

<그림 6>의 우측 중간 사진은 3D GIS가 브리핑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좌측 그림에는 지리지형 정보만 나타나 있고 우측 그림에는 기존 주변 건물도 표현되어 있다. 새로운 시설물을 기획할 때 우측 사진에 그 시설물을 배치하고 전체 환경에서 받는 느낌을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시설물의 매스를 3D GIS에 배치할 경우 각종 법규가 체크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맺음말

3 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브리핑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사례를 간단히 소개했다. 전략 브리핑의 경우 법인 건축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 주로 개발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건축주 조직 내에 존재하는 가치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표출시키고 이를 조절해 가는 일들이 주로 수행된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기획에서 완료될 때까지 4~5년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건축주 조직의 과거나 현재 모습이 아닌 미래의 업무 환경을 예측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 단계인 프로젝트 및 세부 브리핑 단계에서는 건축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와 협의해 나가야 되는 관계로 최종적으로 인도될 시설물의 시각화가 중요하다. 최근 3D CAD로 설계의 파라다임이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여건은 성숙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계 용역 전문가가 브리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3D CAD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다행히 건축 프로젝트 전체 과정에서 3차원 기반으로 정보를 일관 관리하고자 하는 BIM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건설프로젝트 관리 전체 환경이 BIM 환경으로 바뀌면 브리핑 단계도 온전히 지원받을 것이다. 이때 가상현실이나 3차원 프로젝트 모델을 먼저 떠올리기 쉬우나 이는 어디까지나 시각적인 표현 기법이 향상된 것에 지나지 않고 건축주에게 있어 브리핑 단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대안 평가와 의사결정, 특히 대안별 프로젝트 비용 변화를 얼마나 쉽게 알려 줄 수 있느냐 일 것이다.

최근 건축사가 처해있는 환경의 변화는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드라마틱하다. 타 전문가 집단이 업무 영역을 넓히면서 건축에 관한 토탈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2차원에서 3차원 설계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다. 이런 변환기에 떠올릴 만한 말이 있다. 잭 웰치는 자신의 성공 요인을 고객과 직접 상대한 것에서 찾았다. 건축산업의 주 고객인 건축주를 가장 먼저 대할 수 있는 건축사가 변신을 꾀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또한 건축사 자신들에게 달려있다.

감사의 글

인터뷰와 자료수집에 협조해 주신 DEGW 공동창업자 Prof. John Worthington 및 DEGW Australia Strategic Briefing Director인 Mr. Peter Andrew에게 감사한다.

※ 참고문헌

1. O'Reilly, J. J. N. (1987) Better Briefing Means Better Building,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Garston.
2. Goodacre, P. E., Pain, J., Noble, B. M. and Murray, J. (1982) Client Aid Program, Occasional Paper No.5, Dept. of Construction Management, Univ. of Reading.
3. Hansen, K. L., MacLeod, I. A., McGregor, D.R. and Tulloch, I. M. (1996) Briefmaker: A design briefing tool developed on the Internet, in Proceedings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Civil and Structural Engineering, Kumar, M. (ed.) Proceedings, Univ. of Strathclyde, Glasgow UK.
4. Hudson, J., Gameson, R. N. and Murray, J. P. (1991) The Use of Computer Systems to Improve Communication Between Clients and Construction Professionals During the Briefing Process, In Practice Management: New Perspectives for the Construction Professional, Barrett, P. S. and Males, A. R. (eds.) E&Spon, London, 175~181. 圖

민 윤 기

정회원, (주)건축사사무소 신도시21, 전주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by Min, Yoon-ki, KIRA

미국 뉴욕 건축기행(1)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New York

출장이나 여행계획이 생기면 그 부근의 건축물을 둘러보기 위해 며칠을 더 머물며 건축기행을 하려고 늘 준비해오던 터에 미국 동부 뉴저지에 갈 일이 생겨, 그동안 준비하던 맨하튼을 중심으로 한 뉴욕 건축기행 준비 자료를 통해 일주일 동안 뉴저지에서 뉴욕을 왕래하면서 뉴욕의 건축물을 둘러보고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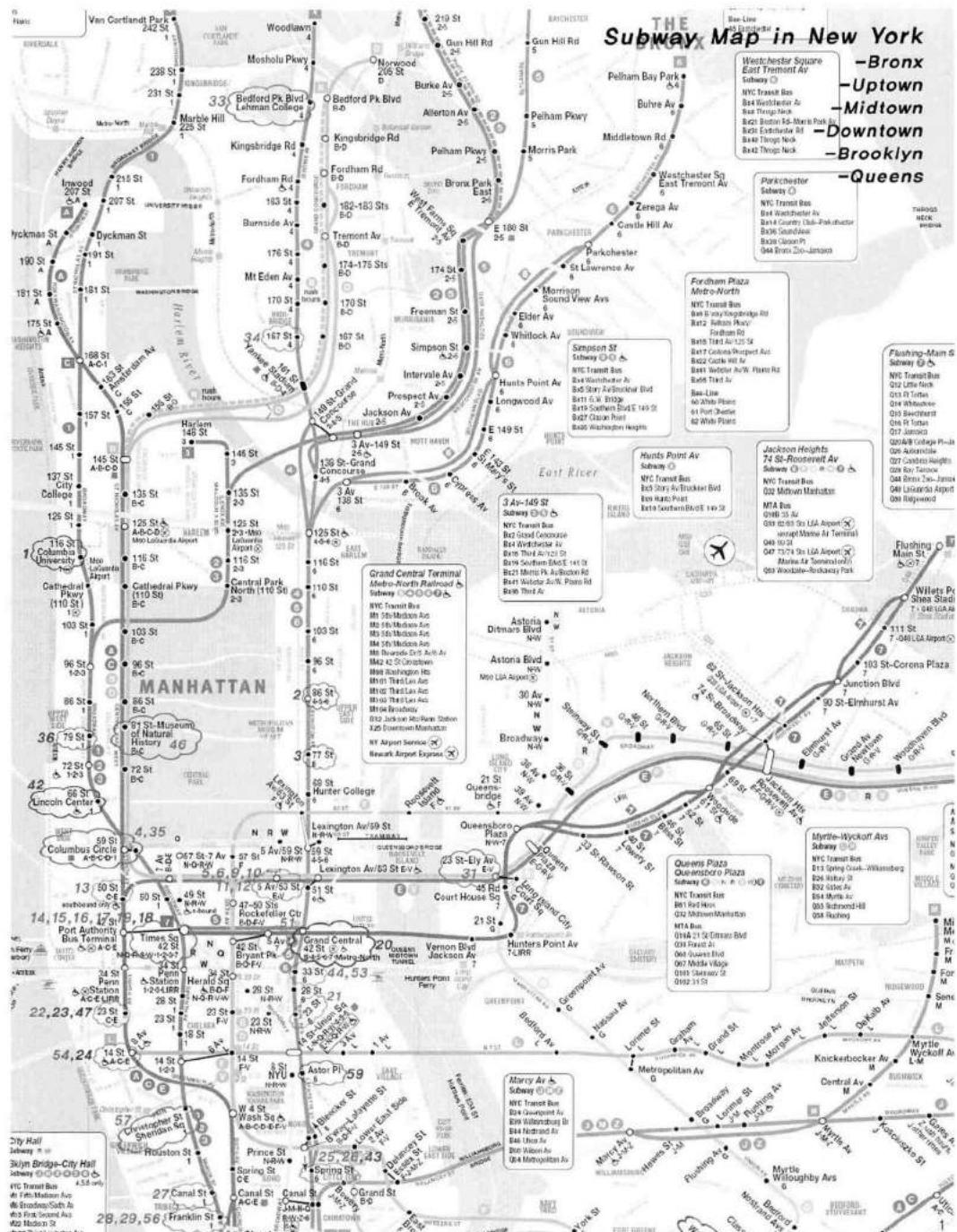


허드슨강 건너에서 바라본 맨하탄 야경

뉴욕은 도심교통망 중 지하철이 워낙 구석구석을 잘 연결하고 있어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하철역 중심으로 건물의 위치를 파악했고, 지역별로 건물을 정리하기 위해 편의상 맨하탄 다운타운, 맨하탄 미드타운, 맨하탄 업타운, 부루클린과 브롱스 그리고 허드슨과 프린스턴(이 곳은 뉴저지임)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자료를 정리했다.

먼저 다녀온 건축물에 가까운 지하철역의 소개를 위해 뉴욕시내 지하철 지도에 건축물의 번호를 매겨 놓았고, 특별히 맨하탄 지역은 따로 맨하탄 확대 지도를 통해 건물의 위치를 정리해 놓았다.

지역별로 정리해 놓은 목자 중 맨하탄 다운타운 지역의 건축물을 먼저 둘러보기로 하자.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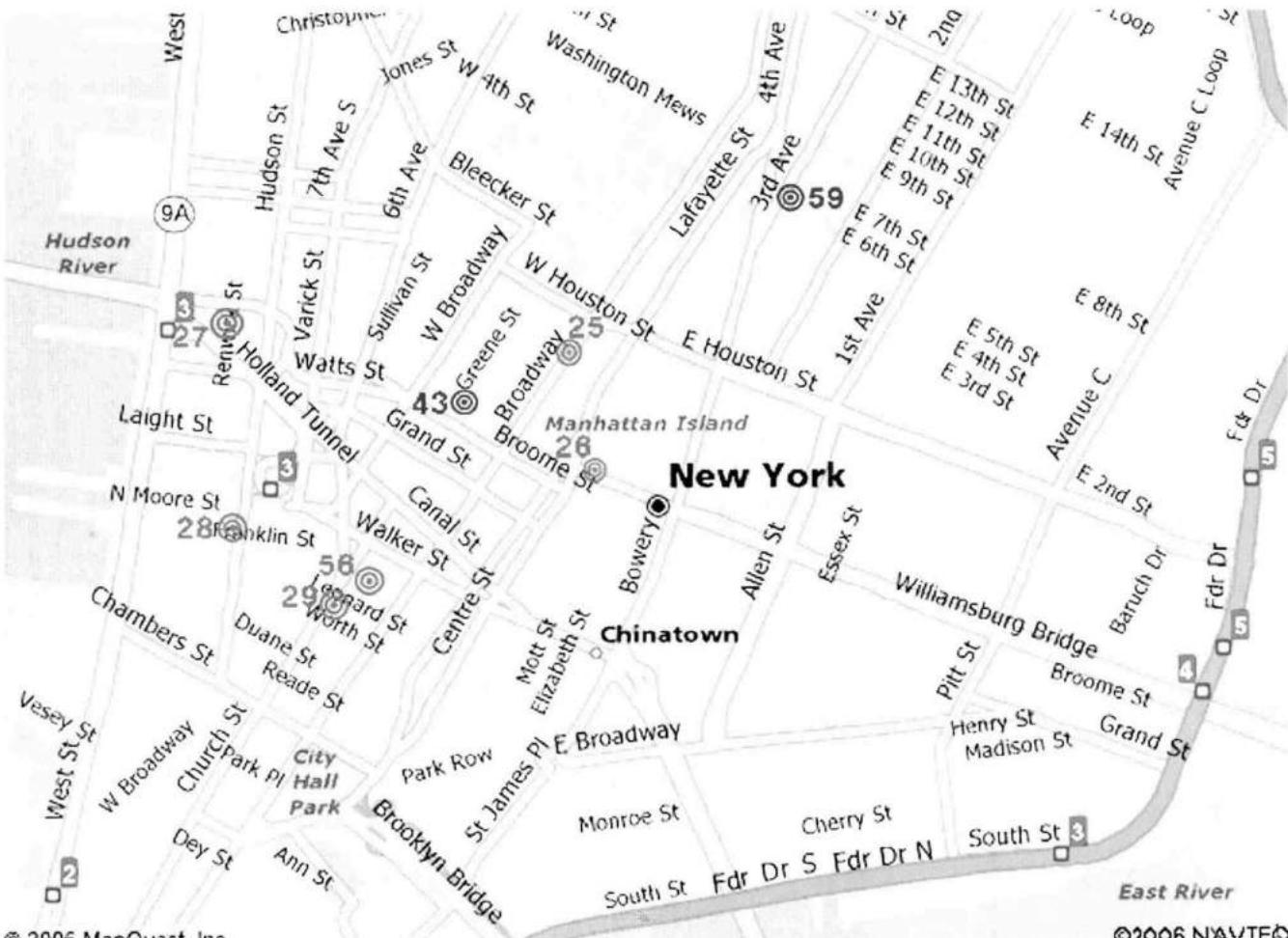


6

1. 뉴욕 지하철 노선도
2. 보도로 나온 캐노피 열리 Flatron Bldg.이 보인다.
3. MetLife Bldg.
4. Empire State Bldg.
5. Chrysler Bldg.
6. 철골조의 오래된 뉴욕 지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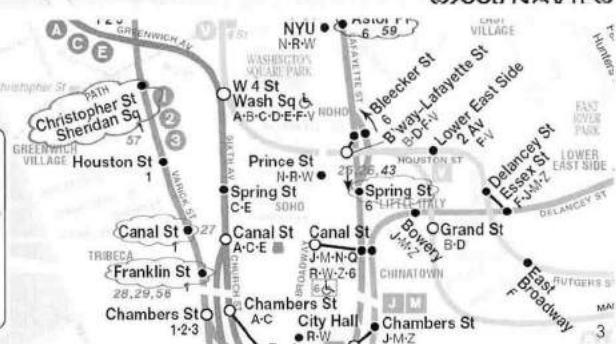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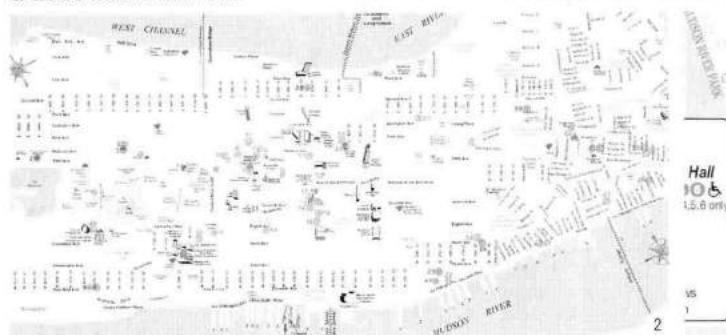


5



© 2006 MapQuest, Inc.

© 2006 NAVTEQ



1. 디운타운 확대지도 2. 맨하탄 확대지도 3. 디운타운 지하철 확대지도

맨하탄 디운타운 지역의 건축물 목차

- 57. Perry West(Apartment), 173 Perry St. and 176 Perry St.
New York NY
- 27. 497 Greenwich St.(Apartment), 497 Greenwich St. New York NY
- 56. Civic Center Synagogue, 47-9 White St. New York NY
- 28. Tribeca Issey Miyake, 119 Hudson St. New York NY
- 29. Restaurant 66, 241 Church St.(Tribeca Area) New York NY 10013-3403
- 25. Prada Flagship Store, 575 Broadway, at Prince St.(SoHo)

New York NY

- 26. Storefront for Art and Architecture,
97 Kenmare St.(at Cleveland Place) New York NY
- 43. Helmut Lang Parfums, 80 Greene St. New York NY 10012(미방문)
- 59. Cooper Union Academic Building, 3rd Ave. btwn. 6th & 7th St. New York, NY (공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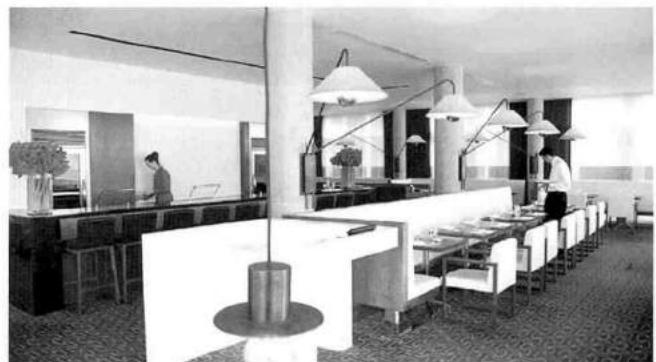
건물명 앞의 번호는 기행 전에 자료를 정리하며 생긴 번호라서 그 순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며, 붉은 번호는 다녀온 건축물이고 푸른 번호는 자료 조사는 했으나, 공사 중 혹은 예전에 방문했거나 방문하지 못한 건축물이다.

57. Perry West – by Richard Meier

지하철역에서 내려 Perry St.를 따라 서쪽인 Hudson강 쪽으로 가면 고급 주택가들이 나타나게 된다. 거리의 분위기는 오래된 유럽의 거리와 같은 느낌을 준다. 한참을 가면 Hudson강이 보이게 되는데 이때 다른 건물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단정한 아파트가 나타나게 된다. 준비해 간 자료에 의하면 2동이었는데, 그 사이에 한 동이 더 늘어 난 것으로 보아 분양사업이 제법 잘 된 듯 했고, 나중에 준공된 한 동은 기존의 두 동과 매스의 형태와 외부마감 재료는 같아 일관된 디자인으로 맥락은 잘 유지했으며 기존의 두 동보다 유리의 사용이 더 늘어난 사뭇 다른 디자인으로 입주자들의 내부에서 요구되는 외부 조망에 대한 요구를 더 반영한 듯 했다.

각 세대로는 접근이 불가능했으며 단지 1층에 위치한 Restaurant은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minimalism을 잘 유지하여 붉은 등과 장식된 붉은 꽃이 하얀 벽과 회색 노출콘크리트 기둥에 잘 어울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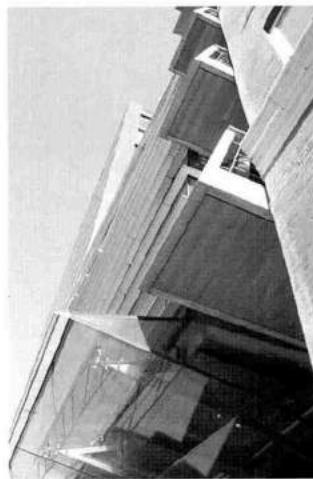
작품성과 상업성이 잘 조화되어 분양사업에도 성공하고, Meier의 디자인의 흔적도 잘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27. 497 Greenwich St. – by Archi-Tectonics

Perry West를 보고 근처의 fancy한 식당에서 brunch를 맛있게 먹고 이곳을 찾았다. 역시 주변의 건물과는 다른 text를 가지고 있어 찾기는 어렵지 않았으나 이곳은 아직 개발이 많이 되지 않은 지역이어서인지 음씨년스러운 가로 분위기였다. 벽돌의 기존 각형 건물과 어울려 경사진 유리 커튼월이 그 질감과 형태에서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푸른 빛의 유리, 스텐레스 스틸 루버와 후레임의 금속성과 진한 회색의 블록(아마 상층부는 같은 색과 질감의 사암이 아닌가 싶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guard의 양해를 얻어 들어간 로비에도 같은 블록벽이 있었으며 뒤로 돌아가니 옆 건물들과 본 건물의 코너에 둘러싸인 조그만 중정이 조용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기존 벽돌건물과 부딪힘을 자연스레 연결해 주는 조그만 발코니,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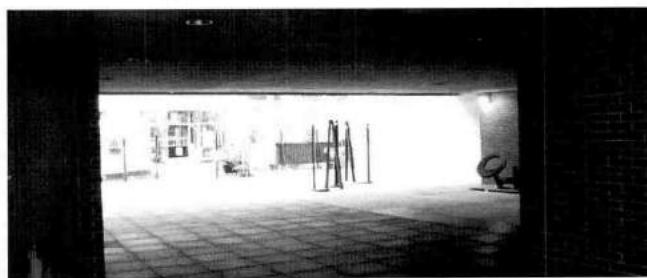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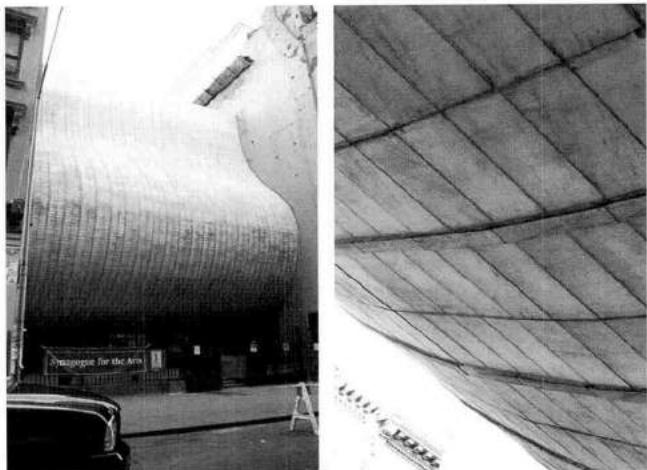




56. Civic Center Synagogue – by William N. Berger

조그만 건물이어서 찾는데 힘이 좀 들었다. 아직도 jewish들의 모임은 활발한 듯 입구에 모임에 대한 안내메모가 있었으며, 모임시간이 아직 되지 않아서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외부를 여기저기 둘러보며 건물의 구조와 오랫동안 잘 보존되어온데 대한 느낌을 갖고 돌아서는데 주차하고 있던 한 driver가 말을 걸어왔다. 자기가 structural engineer라고 소개하며 둘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로는 건물외벽부분 하중이 제일 많이 작용하는 지점에 크래인 가있으나 아직도 마감재는 박리되지 않고 있는 훌륭한 구조의 건물이라 하였고, 내부에서는 나무 마감재의 박리가 자꾸 일어나 cement paste로 보강공사를 했다고 한다.

형태의 특이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나, 내부공간을 들어가 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28. Tribeca Issey Miyake – by Frank O. Gehry & Associates

고 후면의 발코니에서도 뒤로 기울어진 발코니의 벽면이 전면 facade에서 보이는 기울어진 면의 경사를 다시 생각나게 했으며, 이러한 사선요소는 set-back된 전면입구부분에서도 볼 수 있었다. 캐노피 역시 facade에서 보이는 유리의 투명함을 살리고 스텐레스 스틸의 금속성이 밀의 경사로 난간과 어울려 사선의 예리함이 돋보였다.

주변개발이 아직 미흡해서인지 1층은 아직 비어 있었고, 상부 아파트도 입주가 완전히 다 되지는 않은 듯 했다.

공간의 형태는 단순했으나 감각적인 재료의 사용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Manhattan에서도 High society brand인 듯 둘러본 매장 내 물품들의 가격은 상당히 비싼 편이었다.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시계가 있어 용기를 내어 하나 샀고, 사면서 매장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점원에게 부탁했더니 내부에서는 안되고 자기가 문을 열어주고 잡아줄 테니 거리에서 안쪽으로 찍으라고 해서 몇 장 찍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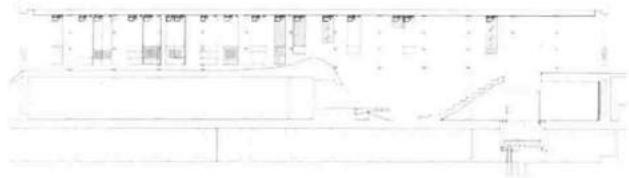
거친 나무와 매끄러운 유리의 대비, classic한 격자 나무 프레임과

futuristic한 Gehry curve의 티타늄 금속판의 대조 그리고 solid 바닥과 void 바닥의 적절한 어울림 등이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으며, 역시 Gehry의 감각적인 design이 보이는 작품이었다.



25. Prada Flagship Store – by Rem Koolhaas

대단한 공사비의 투자와 개업식의 대단함(뉴욕시장까지 초대되었음)으로 알려져 있는 이 상점은 명성만큼 대단하지는 않았다. 텅비어 있어야 할 전면 입구부에는 많은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으며, 단면상 지하로 open된 big wave로 인해 긴 평면상 좁아진 뒷부분과의 연결부위로 동선은 혼잡하게 되었다. 지하 매장은 층고가 낮아 답답한 느낌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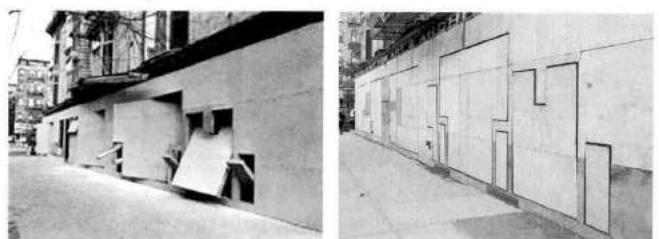
29. Restaurant 66 – by Richard Meier

Manhattan의 Tribeca지역은 마치 서울의 압구정동 혹은 청담동 같은 분위기였다. 이 restaurant 역시 예약된 손님에 대한 서비스만 하는 곳인지 아니 한산하였고, 지배인인 듯한 여자가 둘러보는 것을 허락했으나 사진촬영은 역시 못하게 해서 둘러보며 몰래 한 장 찍었다. Meier의 white minimalism이 역력히 보였으며, Perry West의 restaurant에서처럼 붉은색이 눈에 띠었는데 이번에는 꽃과 등장식이 아니고 중국식 flag였다.



26. Storefront for Art and Architecture – by Steven Holl

저예산 공사비의 작품이어서 10여년 동안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철제 후레임 안의 마감판넬인 목모 시멘트판은 여러군데가 깨져 있으며, 아마 지금은 사용을 인하는 듯 찾아 간 시간이 open시간이었으나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다.





Contents

Subway Map in New York

Manhattan Map

Building List in Downtown Manhattan

57. Perry West(Apartment), 173 Perry St. and 176 Perry St.
New York NY

27. 497 Greenwich St.(Apartment), 497 Greenwich St. New
York NY

56. Civic Center Synagogue, 47-9 White St. New York NY

28. Tribeca Issey Miyake, 119 Hudson St. New York NY

29. Restaurant 66, 241Church St.(Tribeca Area) New York
NY 10013-3403

25. Prada Flagship Store, 575 Broadway, at Prince
St.(SoHo) New York NY

26. Storefront for Art and Architecture,

97 Kenmare St.(at Cleveland Place) New York NY

43. Helmut Lang Parfums, 80 Greene St. New York NY
10012(미방문)

59. Cooper Union Academic Building, 3rd Ave. btn. 6th &
7th St. New York, NY (공사중)

Building List in Midtown Manhattan

14. Westin Hotel, Times Square 270 W43rd St. New York
NY 10036

15. US Armed Forces Recruiting Station, Times Square
New York NY

16. The Reuters Building, 3 Times Square New York NY

17. Conde Nast Building, 4 Times Square Broadway 42nd & 43rd St. New York NY
44. Pierpont Morgan Library Expansion, 36th & 37th St. Madison Ave. New York NY
19. New 42nd Street Studio, 229 W42nd St. New York NY 10036-7299
53. Scandinavia House, 36 Park Ave., between E37th St. and E38th St. New York NY
21. Academic Complex(The City University of NY Baruch College), One Bernard Baruch Way(55 Lexington Ave.) New York NY
22. IAC/InterActiveCorp Headquarters, 20th St. 11th Ave. New York NY
54. The Porter House, 366 W15th St./60 9th Ave. New York NY
51. 505 Fifth Avenue, 505 5th Ave. New York NY 10017-4917
23. Eyebeam Institute, 540-548 W21st St. New York, NY (공사전)
47. 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 556 W22nd St. New York, NY 10011 (공사전)
24. Carlos Miele Flagship Store, W14th St. New York NY(미방문)
20. Ford Foundation, 320 E43rd St. New York NY(예전에 방문)
18. Conde Nast Cafeteria, 4 Times Square Broadway 42nd & 43rd St. New York NY(접근불가)

Building List in Uptown Manhattan

46. Rose Center for Earth & Space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77th St. & 81st St. at Columbus Ave. New York NY
35. American Bible Society, 61st St. Broadway New York
NY
4. Time Warner Center, 10 Columbus Circle New York NY
13. Hearst Magazine Building, 951-969 Eighth Ave. at W47th St. New York NY
11. Seagram Building, 375 Park Ave.(at 53rd St.) New York
NY
5. LVMH Tower, 19 E57th St. between Madison and Fifth
Ave. New York NY
6. AT&T Corporate Headquarters
(sold to the Sony Corporation and renamed Sony Plaza in 1990) New York NY

9. Museum of Modern Art,
11 W53rd St. between 5th & 6th Ave. New York NY
10019-5497
10. American Folk Art Museum, 49 W53rd St. New York
NY
12. Austrian Cultural Forum, 11 E52nd St. New York NY
10022
2. Guggenheim Museum, 1071 Fifth Ave.(at 88th St.) New
York NY(예전에 방문)
3.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945 Madison Ave.(at
75th St.) New York NY(미방문)
1. Alfred Lerner Hall Student Center,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Y(미방문)
42. Lincoln Center(미방문)
36. The Calhoun School Expansion, 433 West End Ave.
New York NY 10024(미방문)

Building List in Brooklyn & Bronx

45. Entry Pavilion and Plaza Brooklyn Museum of Art, 200
Eastern Pkwy Brooklyn NY 11238-6052
33. Lehman College(The City Univ. of New York), 250
Bedford Park Blvd W Bronx NY 10468
Communication Center 2003, Multimedia Center 2005
34. Bronx Museum of the Arts, 1040 Grand Concourse
165th St. Bronx NY 10456
52. Higgins Hall Center Wing(in Pratt Institute), 200
Willoughby Ave. Brooklyn NY(미방문)

Building List in Hudson & Princeton

- 50-1. 9th Street-Congress Station – Hudson Bergen LRT
System, Eastern New Jersey NJ
- 50-2. Bergenline Avenue Tunnel Station – Hudson Bergen
LRT System, Eastern New Jersey NJ
41. The Carl Icahn Laboratory(The Lewis-Sigler Institute
for Integrative Genomics),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NJ

Building List Etc.

31. P. S. 1 Dunescape, Long Island City NY(여름에 가볼 것,
Queens)
32. MoMAQNS, 33rd St & Queens Blvd Long Island City

- NY(Temporary, Queens)
48. Skyscraper Museum, 39 Battery Place New York NY
10280(미방문, Downtown)
49. Harlem Park, Corner of 125th Street & Park Ave. New
York NY(공사전, Harlem)
37. TWA Terminal, 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formerly Idlewild) NY(미방문)
55. 2 Columbus Circle, 2 columbus circle New York
NY(Destroyed, Uptown)
58. FLUFF Bakery, 751 9th Ave. New York NY(Translated
to Bar, Uptown)
8. The Nomadic Museum,
Pier 54 Chelsea West Side New York, NY(Temporary,
Midtown)
30. Rector Street Bridge, New York NY(Temporary,
Downtown)
38. Federal Building and U.S. Courthouse, 100 Federal Plz.
Central Islip NY 11722(미방문)
39. Richard B. Fisher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Bard
College NY 2003(미방문)
40. Tang Teaching Museum and Art Gallery, 815 N
Broadway Saratoga Springs NY 12866(미방문) ■

김 형 수
정회원, CDS 건축사사무소
by Kim, Hyung-soo, KIRA

탄자니아 KOICA 현지조사를 다녀와서

KOICA site survey project in Tanzania

“지구의 끝에 다녀오겠습니다.”

직원들에게 탄자니아로 KOICA(Korea International Corporation Agency) 조사를 떠나며 무심코 던진 인사말이다. 솔직한 내 인식 속에서의 탄자니아는 지구의 끝에 위치한 나라였다. 사실 KOICA로부터 파견을 의뢰받기 전까지 탄자니아는 킬리 만자로의 표범과 사자의 나라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아프리카 지도를 꺼내들고서야 비로서 그 위치를 알 수 있었다.

탄자니아 정부는 한국 정부에 탄자니아 최대도시 '다레살렘' 시와 '모로고로' 시에 농산물 가공센터를 건립하고, 휴양지로 유명한 '잔지바르' 섬과 '펩비' 섬에 각각 농산물 가공센터와 도축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해외원조 전담 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탄자니아 정부의 요구사항중 농산물 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주기로 결정을 하고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의 국가로는 드물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성장 요건을 갖추고 있어 UN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원조가 몰려드는 상황이었다. 농산물의 가공을 통하여 오랜 기간 보존 가능하며, 또한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결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현지의 조건과 부지 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필자는 건축부분 조사단으로 파견되게 되었다. 조사단원은 모두 3명이었는데, 본인 이외에 농수산물 가공과 관련된 식약청의 공무원과 농산물 가공 전문가였다.



1. KOICA의 민간외교관인 자원봉사자와 함께 찍은 사진
2. KOICA 조사단 환영을 위하여 물방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동네 아줌마들.

한국국제협력단은 외교통상부 산하기구로서 정부차원의 대외 무상원조 및 협력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며 개발도상국가와의 협력과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를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프라 시설 건축, 개발조사, 해외봉사단 파견, 민간단체(NGO)지원, 해외재난복구지원, 국제기구 협력사업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평소 매스컴에서 해외 의료봉사를 하는 의사들의 이야기가 소개될 때면 건축도 인간의 삶에 의료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전문가들에게는 이러한 봉사가 여의치 않을까 생각해 오던 차에 KOICA의 탄자니아 농산물가공센터 기초 조사를 의뢰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합류하였다. 탄자니아는 풍토병이 많은 나라임기 때문에 황열병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였으며 말라리아 예방약을 매일 먹어야 했다. 말라리아 모기에 무척 많이 물렸는데 다행히 병에 걸리지는 않았다. 현지 KOICA 소장님은 예방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말라리아에 걸린 후 치료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고 경험담을 늘어놓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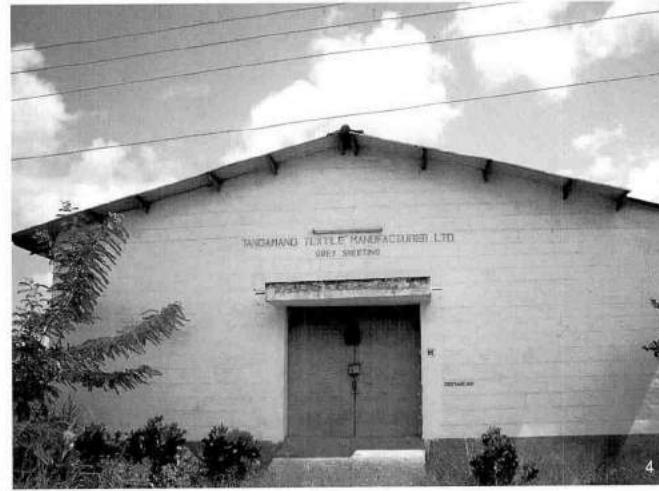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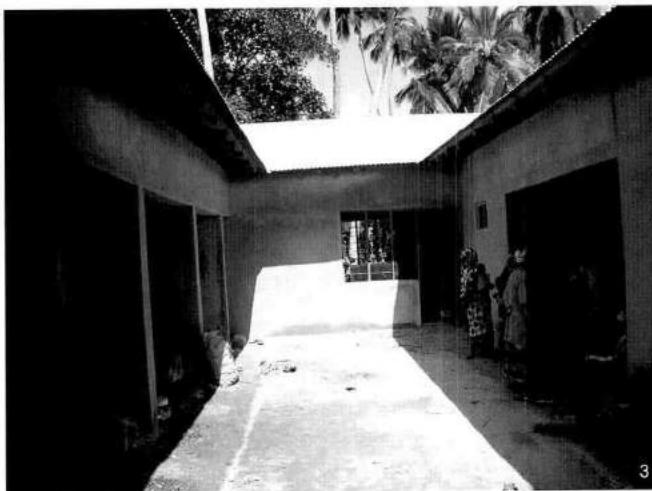
탄자니아는 열대성 기후로 일년 사시사철 과일과 곡식이 풍부하게 사람에게 불구하고 가공과 저장 기술이 없어 그중 많은 부분이 부패되어 소실되며 이에 따라 만성적인 식량부족이 일어나는 나라였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지만 저장시설이 없고 기운이 높은 나라므로 수확하는 시기가 조금 지나면 많은 양의 농산물이 부패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우수한 농산물 식품가공처리 기술을 도입하여 저장비율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제품화 하는 것이 탄자니아 정부의 요구사항이었다. 탄자니아 사람들은 의외로 한국에 대한 지식이 많았는데 전자 산업과 자동차, 조선이 매우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월드컵과 올림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탄자니아 사람들은 정이 많고, 사람들간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등 한국사람과 정서적

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KOICA 조사단은 한국 정부의 대표단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관을 포함한 고위 관료와 실무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모두들 모두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듬뿍 보여주었다.

탄자니아는 서구 이외에 동아시아의 세나라 즉 한국, 중국, 일본이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치는 숨 가쁜 현장이었다. 아프리카의 자원을 노린 중국은 탄자니아에 막대한 자금을 원조하며 탄자니아에 진출을 서두르고 있었으며 현재 대규모 스포츠 스타디움을 지어주고 있었다. 일본의 JAICA도 '진지바르' 도시 전체의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해 주는 등 한국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협력사업을 진행하며 탄자니아시장을 공략하고 있었다. 탄자니아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의 99%가 일본제 자동차인 점을 보면, 일본이 원조를 통하여 탄자니아 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조 규모면에서는 두나라와 비교도 안되는 한국의 KOICA는 그러나 단원들의 인간적이고 근면한 모습으로 탄자니아 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특히 탄자니아 사람들은 60년대초 자신들보다 더 가난했던(?), 아무런 자원도 가진 것 없는 작은 나라 한국이 오직 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40년이 지난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에 무척 감명을 받고 있었으며, 탄자니아의 고위관리들은 한국을 자신들이 빙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벤치마킹해야 할 모범이 되는 나라임을 여러 번 표현하였다. 한국의 원조금액은 비록 작았지만 처음부터 강대국이었던 중국과 일본이 주는 원조와 달리, 자신들과 같이 가난했던 나라가 빙곤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나라가 주는 도움에 대하여 더 많은 감동을 느끼는 듯 했다.

또한 여기에는 KOICA 조직의 열정과 봉사가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였다. 현지 조사자를 하는 동안 두명의 KOICA 봉사단원을 만났는데, 대학교 3학년을 마지막으로 '잔지바르'라는 섬으로 2년간 봉사를 온 한 여학생은 지난 2년간 그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 없이 선양하고 있었으며 무척이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항상 웃음을 잊지



1. 벽돌 루버로 마감된 실내 내부, 상부의 골강판과 벽체 사이에도 통기구가 있다.
2. 탄자니아는 골강판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벌다른 디테일 없이 나무트러스에 끗으로 접합되어 있다.
3. 중정 형태의 건물로 중정의 공기가 일사에 의해 가열되어 상승하면서 기류가 형성된다.
4. 전형적인 탄자니아의 공장 건물 형태

않는 귀중한 한국의 외교관이었다. 그 학생의 전공은 원예학으로써 옥수수의 재배와 육종 연구를 하고 있었으며, 그곳 전문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었다. 또 한명의 봉사단원은 더 늦기 전에 해외에서 봉사를 하고자 삼성전자를 사직하고 역시 '잔지바르'에서 컴퓨터를 교육하고 있는 34세의 늦깎이 노총각으로 과묵했지만 인생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느껴지는 단원이었다.

탄자니아의 건물 형태는 조적식 벽체에 간단한 트러스를 구성하고 그 위에 양철 골강판을 덮은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초가지붕이 아닌 양철 판을 사용한 건물은 고급 건물로 인정 받았다. 창은 대부분 유리창이 아닌 벽돌이나 나무로 만든 루버형태이고 햇빛이 들지 않는 남쪽(여기는 남반구라 해가 북쪽에서 움직인다.)은 그나마 루버를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창틀만 설치하고 그냥 뻥 뚫린 상태가 최종적인 마감상태였다. 지붕 디테일의 경우에도 골강판과 벽체사이에 아무런 마감이 없어서 바람이 잘 통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실내 공간이 과열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내는 매우 쾌적하고 시원하였다. 통풍과 실내의 기류가 잘 형성되기 때문이었다. 건물은 대부분 소규모였으나 조금 규모가 큰 건물은 통풍과 환기를 위하여 가급적 □ 자형 중정형 평면을 도입하였다. 중정 내부의 공기가 가열되어 상승되면서 건물 전체에 기류가 형성되는 자연형 태양열 냉방 시스템을 도입한 셈이다. 건축물의 마감은 페인트가 아니면 시멘트 표면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으며,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은 모두 흙과 나뭇잎으로 만든 초가집이었다. 초가집 내부는 취침을 취하는 부분에만 천이나 간단한 카페트가 깔려져 있었으며, 나머지는 흙바닥이었다. 그러나 역시 내부는 무척이나 시원하였으며, 쾌적하였다. 지역의 자연환경에 잘 순응하고 적응한 형태의 건축물이 제공하는 편안함이 있었다.

KOICA의 현지 조사 내용은 탄자니아 정부에서 제시하는 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현지 시공을 위한 규모 검토, 간단한 평면의 제시, 건축물의 구조 검토, 자재의 조달과 공사비 산정 등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여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KOICA는 향후 몇 년간 해외 원조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실행중이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그 경제규모에 비하여 해외원조 비율이 적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었으며 최근 원조규모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아마도 KOICA의 원조 금액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건축분야가 아닐까 생각되며, 이에 따른 건축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건축의 최고 전문가로서 건축사는 KOICA의 해외 협력사업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참여하여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의 민간외교사절로서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 ■

이사회

■ 제8회 이사회

2007년도 제8회 이사회가 지난 8월 21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건축문화신문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홍보대사 위촉·운영규정 제정 승인의 건, 정회원회비 장기미 납회원 징계에 관한 건, 조사검사업무 연구용 역기간 및 용역금액 조정 승인의 건, 남북건축문화 교류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네덜란드건축문화원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방문에 관한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상근이사 선임에 관한 건, 건축문화신문 편집국장 위촉에 관한 건, 「2007 건축의 날」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고, 협의사항으로 공제규정 개정(안) 및 업무세칙 제정(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축문화신문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일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다만, 불필요한 자구나 용어 등을 수정·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
 - ▷ 제6조 제1호 「협회장」 삭제
 - ▷ 제7조 제2호 「발행인을 보좌하며」 삭제
- 제2호의안 : 홍보대사 위촉·운영규정 제정 승인의 건
- 아래와 같이 규정 명칭 및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 명칭 : 「홍보대사」 → 「명예홍보대사」
 - ▷ 제2조 : 「홍보하는 자」 → 「홍보할 수 있는 자」
- 제3호의안 : 정회원회비 장기미납회원 징계에 관한 건
- 정회원회비를 3년이상 장기 미납한 회원을 제명키로 하되 3개월간의 회비 납부기한을 주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정관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제명처리하기로 함.

- 제명된자의 미납회비는 결손처리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조사검사업무 연구용역기간 및 용역금액 조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남북건축문화 교류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설치하고, 위원장 및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함.
- 제6호의안 : 네덜란드건축문화원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방문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방문기간 : 07.8.26~8.30

▷ 방문단 : 심재호 이사, 신춘규 국제위원장, 조충기 법제위원장

▷ 방문기관 : NAI(네덜란드건축문화원), BNA(네덜란드 건축사협회) 등

- 제7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재경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다만, 그 이전까지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회의비' 내에서 우선 1천만원을 목간전용하여 사용

- 제8호의안 : 상근이사 선임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상근이사 : 전영철

▷ 임기 : '07.8.21 ~ '09.8.20(2년)

▷ 후속 조치로서 관련규정 개정(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 제9호의안 : 건축문화신문 편집국장 위촉에 관한 건
- 건축문화신문 운영정상화를 위하여 현 편집국장을 해촉하고, 제1호의안 「프레스센터운영규정」에 따라 위촉키로 함.
- 제10호의안 : 「2007 건축의 날」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건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되, 최종결정권한은 회장에게 위임함.

추천구분	추천인원	추천방법
장관표창 (건교부, 문화부)	협회 배분	7 4명 : 시도건축사회 추천 3명 : 회장추천
	건설기술 분야	6 3명 : 시도건축사회 추천 3명 : 회장추천

▲ 협의사항

- 제1호 : 공제규정 개정(안) 및 업무세칙 제정(안)에 관한 건
-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기타사항

- 차기 이사회는 07.9.11(화)에 개최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질의회신 발간 관련 4차 진도점검 회의

질의회신 발간 관련 4차 진도점검 회의가 지난 8월 1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원고작성 중 현행법에 상이한 질의회신 및 불명확한 질의내용에 관한 건,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 대행제도 연구 계획(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원고작성 중 현행법에 상이한 질의회신 및 불명확한 질의내용에 관한 건
-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공문에 대한 처리방법 논의
- 유사질의 및 동일답변에 관한 처리방법 논의
- 현재 법이 개정되어 질의 및 답변이 적용될 수 없을 경우 처리방법 논의
- 질의회신집 크기, 제본방법, 글씨크기, 여백기준 등에 대한 논의
- 편집에 대한 논의
- 검수일정에 대한 논의
- 기타사항
- 제2호 :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 대행제도 연구 계획(안)에 관한 건
- 조사검사업무 연구용역비를 변경요청 하기로 함. 다만, 연구계획서의 내용 및 연구진 구성에 대하여 조충기 위원장과 전영철 이사가 연구진과 협의한 후 정리하기로 함.

• 제3호 : 기타사항

- 탄원서에 관한 사항 : “해병대 포항 병 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공정한 심사에 의한 선정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에는 질의답변 일정 및 질의내용의 문제점이 있음을 공감하고, 이에 대하여 전영철 이사가 정리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회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질의회신 발간 관련 5차 진도점검 회의
질의회신 발간 관련 5차 진도점검 회의 지난 8월 2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차 보고서 제출에 따른 검수에 관한 건과 건교부 감수회의(8월 29일)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차 보고서 제출에 따른 검수에 관한 건
- 질의회신집 2차 보고서의 그림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원본의 도면을 최대한 수록하여 보완하기로 함.
- 제2호 : 건교부 감수회의(8월 29일)에 관한 건
- 질의회신집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김의중 대표연구자)하기로 함.
- 건교부에 내용을 질의하기로 함.

■ 질의회신 발간 관련 6차 진도점검 및 건교부 합동회의

질의회신 발간 관련 5차 진도점검 회의 지난 8월 2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질의회신 원고작성에 따른 검수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질의회신 원고작성에 따른 검수에 관한 건
- 건교부 1차 검수결과 : 연구진이 작성한 원고의 편집 및 수록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일부 문제될 수 있는 질

의회신내용에 대하여만 9월 10일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협회로 의견을 주기로 함, 아울러 그 자료를 바탕으로 9월 11일 최종 검수회의를 하기로 함.

- 연구진의 질의사항에 대한 건교부의 의견
▷ 건교부의 질의회신에 대하여 일선 담당공무원의 의견이 있는 경우 : 건설교통부에서 유권해석한 것을 일선 공무원이 적용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협회에서 취합·정리하여 건교부에 건의하면, 그것을 검토하여 자치구에 시행토록 통보하기로 함.
▷ 원본의 도해가 난해하여 도해를 단순화 시켜 수록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및 회신과 관련이 있는 도면은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최대한 많은 그림을 수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제6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규정 및 회칙)

제6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규정 및 회칙) 회의가 지난 8월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문화신문운영 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한국건축산업대전 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후원금 등에 관한 성과금 지급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대한건축사협회 명예이사 등 위촉에 관한 규정(안)에 관한 건,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건설기술자회비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인사위원회 규정 및 근무평정규칙 개정(안)에 관한 건, 부산광역시 건축지침에 관한 건과 기타 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문화신문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 명칭은 “건축문화신문”을 “대한건축사 협회 프레스센터(약칭 ‘프레스센터’)”로 변경기로 함.
- 운영, 조직 및 구성에 대한 논의
- 제2호 : 한국건축산업대전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후원금 등에 관한 성과금 지급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건축문화신문 규정 및 한국건축산업대전 운영 규정 개정(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바, 신문 및 산업대전 규정 개정 안의 진행상황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대한건축사협회 명예이사 등 위촉에 관한 규정(안)에 관한 건
-명예이사, 명예회원 및 자문위원에 관한 근거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규정만을 별도로 규정하기로 하며, 기간은 1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함.
- 제5호 :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6호 : 건설기술자회비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7호 : 인사위원회 규정 및 근무평정규칙 개정(안)에 관한 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8호 : 부산광역시 건축지침에 관한 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9호 : 기타사항
-규정 및 회칙은 협회의 조직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건의함.

■ 제7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규정 및 회칙)

제7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규정 및 회칙) 회의가 지난 9월 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프레스센터 운영규정(안)에 대한 사항, 협회 홍보대사 위촉 운영규정(안)에 대한 사항, 한국건축산업대전 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후원금 등에 관한 성과금 지급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건설기술자회비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인사위원회 규정 및 근무평정규칙 개정(안)에 관한 건, 부산광역시 건축지침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대한건축사협회 프레스센터 운영 규정(안)에 대한 사항
-제8회 이사회(07.8.21)의 의결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함.
- 제2호의 건 : 협회 홍보대사 위촉 운영규정(안)에 대한 사항
-홍보대사의 업무추진비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함.
- 제3호의 건 : 한국건축산업대전 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한국건축산업대전 운영규정에 대하여 9월6일(목요일 오후5시)까지 본협회 홈페이지 법제회의실에 각 위원이 의견을 올리기로 하고, 그 의견을 9월7일(금요일) 까지 김보선 차장이 정리·취합하여 위원장에게 검토 받은 후 보고하기로 함.
- 제4호의 건 : 후원금 등에 관한 성과금 지급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프레스센터 운영규정 및 한국건축산업대전 운영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바, 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재정리하여 재검토키로 함.
- 제5호의 건 :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해당부서에서 개정 초안을 심도있게 작성한 후 재검토키로 함.
- 제6호의 건 : 건설기술자회비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차기 회의에서 정리하기로 함.
- 제7호의 건 : 인사위원회 규정 및 근무평정규칙 개정(안)에 관한 건
-인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바, 인사위원회에서 검토·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8호의 건 : 부산광역시 건축지침에 관한 건
-부산건축사회의 의견정리에 동의를 함. 다만, 평가부분은 정략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필요함.

▲ 기타사항

- '건축사대회 운영규정' 및 '경조사에 관한 규정(장례예식 절차)'의 제정'의 필요성
- '건축사대회 운영규정 제정'은 전국건축사대회 경험을 토대로 해당부서에서

개최절차, 방법 등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작성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음.

-경조사(장례예식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작성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음.

- 규정 및 회칙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어야 함을 재차 건의 드림.

■ 제1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계약서)

제1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계약서) 회의가 지난 8월 2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건축기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번역에 관한 건, 프랑스 계약서 번역 등에 관한 건,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일본 건축기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번역에 관한 건
-일본 건축기준법을 번역한 윤상조 위원을 통해 번역(일본어→한글)을 의뢰하기로 하며, 번역료에 대하여는 박준승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 제2호 : 프랑스 계약서 번역 등에 관한 건
-프랑스 계약서 및 AIA의 계약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협회자료 및 회원이 업무수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번역을 요청하기로 함.(국제위원회 협조포함)
- 제3호 :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관한 건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05~'06년 법제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07년 법제위원회 오동욱 위원이 검토한 초안을 가지고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도록 표지, 별표1, 제1조, 제2조를 정리하였으며, 나머지 조문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4회 정책위원회

제4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2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2호「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거 전문기관으로서 대한건축사협회의 역할에 관한 건, (가칭)건축·도시 환경디자인 연구소 설립에 관한 건, 회원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2호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거 전문기관으로서 대한건축사협회의 역할에 관한 건
 - 대안 1. 현행 협회내 상설설계심의기구를 조직하는 사항은 설계심사원 설립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가 나온 이후, 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안 2. 협회 내 상설설계심의기구를 조직할 경우,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회의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호 : (가칭)건축·도시 환경디자인 연구소 설립에 관한 건
 - 현행 협회 내 건축연구원이 연구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정숙한 분위기가 보장된 독립된 연구 공간을 마련하기로 함.
- 제3호 : 회원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건
 - 협회의 정회원에게 인증 동판을 제작·배포하는 방안을 건의함.
▷ 정회원 인증 동판 제작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2005년도에 논의된 바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고민만 실행되고 동판 제작은 실행되지 않은 바, 이를 다시 건의하기로 함.

■ 제4회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위원장 회의

제4회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위원장회의

가 지난 8월 2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세부일정 협의에 관한 건, 건축사연수 교육 시행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세부일정 협의에 관한 건
 - 전국건축사대회 세부 진행계획 논의를 위하여 T.F팀을 구성키로 함.
 - UIA PPC 회의 관련 인사들이 건축사의 밤 참석 전에 산업대전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키로 함.
 - 10월 2일 행사 중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개막식」을 '한국건축산업대전 개막식'으로 변경 시행키로 함.
 - 전국건축사대회 후원금은 서울건축사회가 독립적으로 유치토록 하되, 유치시 인센티브(약 20~40%)를 주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연수교육 시행에 관한 건
 - 건축사 연수교육은 10월 4일과 6일 2일에 걸쳐 같은 프로그램으로 시행키로 하고, 예전과 같이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기로 함.

▲ 기타사항

-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을 보고키로 함.

■ 제7회 회관건립백서발간위원회

제7회 회관건립백서발간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관 건립백서 발간에 관한 건, 건설지 승인의 건, 하자신청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회관 건립백서 발간에 관한 건
 - 회관건립백서 검토 결과를 수정·보완하고 최선규 위원이 최종 후 인쇄·발간 키로 함.

-회관건립백서 사양을 최종검토하고 지질변경, 부수증부, 케이스 추가, CD제작 추가 등 제작사양을 변경하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체결 키로 함.

• 제2호 : 건설지 승인의 건

-유진건축에서 제출된 건설지를 승인하고 표지의 유진건축을 대한건축사협회로 수정하여 3부를 제출받기로 함.

• 제3호 : 하자신청에 관한 건

-하자사항을 도급공사(남흥건설)와 직영 공사(삼성전자, 코리아파킹시스템 등)로 나누어서 각 업체별로 하자사항을 정리 키로 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세부내용을 검토키로 함.

▲ 기타사항

-다목적실 용도변경 사용신청 관련 추가공사에 대해 우슬재디자인 견적서를 수용하여 빠른시일 내에 공사를 실시키로 함

■ 제4회 홍보편찬위원회

제4회 홍보편찬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 협회 캐치프레이즈 활용에 관한 건, 본 협회 건축대장정 추진의 건, 홍보브로셔 제작의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본 협회 캐치프레이즈 활용에 관한 건
 - 캐치프레이즈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9점과 홍보편찬위원회에서 선정한 7점을 대상으로 캐치프레이즈 최종심사를 9월 7일 오전 11시 홍보편찬위원, 캐치프레이즈 심사위원, 외부전문가(LG애드 캐피라이터)와 함께 진행하기로 함.
 - 슬로건은 협회발행 인쇄물(문서, 봉투, 차량스티커, 홍보인쇄물 등) 및 홈페이지 등 가용한 모든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제2호 : 본 협회 건축대장정 추진의 건
 - 건축대장정 기대효과, 예산 등 전반적인

계획을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홍보브로셔 제작의 건

- 박홍근, 노종식, 박일경 위원이 홍보브로셔 기본시안을 제작하기로 하고, 차기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작을 완료하기로 함.

■ 제5회 홍보편찬위원회

제5회 홍보편찬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 협회 캐치프레이즈 최종심사, 홍보브로셔 제작에 관한 건, 건축대장정 추진의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본 협회 캐치프레이즈 최종심사
-캐치프레이즈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당선작, 우수작,佳作를 선정하며, 추후 입상작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함께 수정·보완하기로 함.
- 제2호 : 홍보브로셔 제작에 관한 건
-홍보브로셔 제작을 위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10월 2일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까지 제작을 완료하기로 하며, 홍보브로셔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을 홍보브로셔 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대장정 추진의 건
-건축대장정에 대한 예산, 기대효과, 중장기계획을 보완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분과, 홍보분과 합동회의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분과, 홍보분과 합동회의 회의가 지난 8월 2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분과·홍보분과 상호 활동계획에 관한 건, 홍보분과 활동에 관한 건, 변호사 선임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기획분과, 홍보분과 상호 활동계획에 관한 건
-기획분과의 일정계획(안)을 홍보분과에서 검토한 후 수정된 활동계획에 따라 상호 협조하기로 함.
- 제2호 : 홍보분과 활동에 관한 건
-협회에서 관련회의를 개최할 때에 시민단체를 참석시켜 홍보하도록 함.
-기자들 대상으로 홍보활동 후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호응을 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호 : 변호사 선임에 관한 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정부 고위직과 면담을 통해 협회의 주장을 이해 설득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 마련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 마련에 관한 건
-손해배상공제 요율산정 및 상품개발을 위해 보험회사측으로부터 전반적 설명을 듣고, 손해배상요율 기준 산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07년 9월 4일(화) 소위원회를 통해 작성키로 함.
-요율산정을 위한 공사대가 및 공종별 위험도 등을 작성한 후 보험회사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요율 및 상품개발을 하기로 함.

■ 제2회 「2007 건축의 날」집행위원회

제2회 「2007 건축의 날」집행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 건축의 날」세부행사 계획확정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7 건축의 날」세부행사 계획 확정의 건
-초청장 및 행사포스터 시안 확정 관련사항
-강연자 섭외 및 선정관련 사항
-참석대상자 선정관련 사항
-기념품 제작관련 사항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관련 사항
-관중 동원관련 사항

▲기타사항

- 공공기관의 예외적 할인적용율에 관하여 회장에게 건의하기로 함.
- 이벤트, 참관객 유치,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등 세부적인 전시장 구성 기획안에 대하여 차기 회의시 재논의를 요함.

■ 제3회 공제사업소위원회(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 마련 소위원회)

제3회 공제사업소위원회(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 마련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9

- 정부포상 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을 각 단체에서 2인씩 추천키로 함.
- 건축의 날 홍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를 송부하여 홍보 협조키로 함.
- 강연내용을 동영상 촬영 후 협회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함.

■ 제3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

제3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가 지난 9월 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사항에 관한 건과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관련 협조사항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사항에 관한 건
- 건설사의 설계업 요구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이 시행중이므로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기획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함.
- 대외협력 및 홍보분과위원회 활동이 미진하므로 회장과 비상대책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하기로 함.
- 제2호 :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관련 협조사항에 관한 건
- 전국건축사대회의 개회식과 건축사의 밤 행사에는 모든 건축사들이 반드시 참석토록 1박2일을 원칙으로 함.
- 한국건축산업대전의 관람객 확보를 위하여 07.10.2~4일까지 서울·경기·인천건축사회의 회원 참석을 의무 배정하기로 함.
- 산업대전 부스유치가 미진하므로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들이 적극 협조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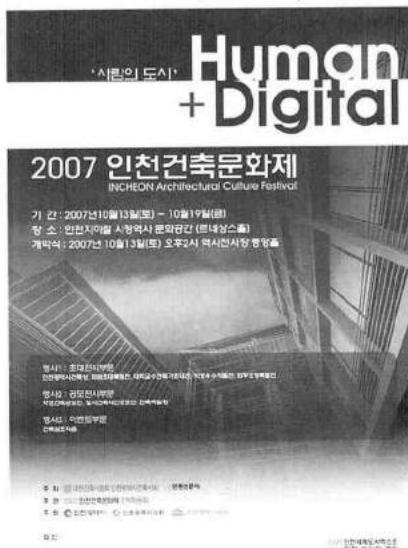
■ 2007 인천건축문화제 개최

2007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인천신문사가 주최하는 '2007 인천건축문화제'가 오는 10월 13일(토)부터 10월 19일(금)까지 7일간에 걸쳐 인천지하철 시청역사 문화공간(르네상스홀)에서 개최된다.

사람의 도시(Human+Digital)이란 행사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문화제는 회원작품전을 비롯한 교수작품전, 학생우수작품전, 인천광역시건축상 초대전 등을 포함하는 초대전과 인천학생건축공모전, 일반시민 및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건축사진공모전, 초·중등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건축백일장 등의 공모전 및 각종 세미나 워크샵 등 부대행사로 치러지게 된다.

· 문의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www.inkira.or.kr, 032-437-3381



■ 200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 개최

2007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이 준공건축물, 계획건축물, 건축사진 세가지 부문으로 개최된다. 준공건축물 부문은 제주특별자치도내

2007년 10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준공완료된 건축물이 대상이며, 계획건축물 부문은 자유주제이고, 건축사진 부문 제주지역내 건축 및 도시 환경을 주제로한 관련사진이 대상이다.

- 준공건축물 부문
- 응모자격 : 출품 건축물의 대표 설계자
- 계획건축물 부문
- 응모자격 : 국내 대학 및 대학원생(1인1팀)
- 건축사진 부문
- 응모자격 : 제주도내 소재 대학생(대학생부문), 고등학생(고등학생부문)
- 접수마감 : 2007년 11월 2일 18:00시까지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센터 2층 다목적홀
- 수상발표 및 시상 / 전시
- 수상작 발표 : 2007년 11월 5일
- 시상식 : 2007년 11월 15일
- 수상작 전시 : 2007년 11월 12일 ~ 11월 17일
- 전시장소 : 제주한라대학 한라아트홀 전시실
- 문의 : 064-742-0202,
www.jejukia.com



KCC 그린마루 '카로스' 출시



KCC는 다양해진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키고 목질 마루재의 시장 확대를 위해 합판마루, 금강 마루, 강화마루에 이어 원목마루인 KCC 그린마루 '카로스'를 9월 출시했다.

KCC그린마루 '카로스'는 상부층, 원목단판, 하부합판 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층인 표면은 마루표면의 찢힘이나 놀림, 긁힘 등의 표면강도를 개선하기 위한 HPC(High Heating Polymer Composite)기술을 접목한 UV코팅을 하여 기존 원목마루보다 표면강도가 우수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원목단판은 원목자체의 변형을 최소화한 공법인 쏘잉공법(Sawing-Cut)을 적용하였으며, 하부합판은 제품 변형이 거의 없는 복유립산 최고급 벼찌합판(6.5 mm)을 채택하였다. 원목단판과 하부합판 접착방식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산을 줄인 PUR Hot Melt 공법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이다.

KCC그린마루 '카로스'는 오리엔탈(Oriental), 오크(Oak), 티크(Teak), 멀바우(Merbau), 골드모시아(Goldmosia), 도시에(Doussie), 카운티(County), 자토바(Jatoba) 등 8종의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 규격은 높이 9.5mm, 폭 75mm, 길이 600mm다.

· 문의 : 080-022-8200,
www.kccworld.co.kr

제7회 경상남도건축대상제 작품공모

제7회째를 맞이하는 경상남도건축대상제는 최근 경상남도에 건축된 건축물 중 창의성과 예술성, 기능성이 뛰어난 역작을 만든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를 발굴·시상함으로써 경남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인의 행사이다.

- 응모대상 : 2005. 1월~2007. 10월 까지 완공된 경상남도 소재 건축물
- 응모자격 : 응모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 접수기간 : 2007. 10. 8~10. 19
- 응모신청서 : 경상남도 홈페이지 (www.gsnnd.net) 또는 경남도청 주택과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전시군에서 제공
- 작품심사 : 2007. 11월 초순
- 심사위원 : 경상남도건축위원회 위원
- 심사결과 발표 : 2007. 11월 중 심사후 도 홈페이지 게시
- 시상시기 : 2007. 11월 중순 예정(수상자 개별 통보)
- 문의처 : 경남도청 주택과 건축지도담당 055-211-4423

'동아전람-제19회 MBC 건축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한글인터넷주소 : 동아전람

제19회
MBC 건축박람회

기간 : 2008년 1월 23일 ~ 27일

주최 : MBC 주관 : MBC 동아전람

(주)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19회 동아전람-MBC 건축박람회」가 2008년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5일간 SETEC(자하철3호선 학여울역)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에게 신제품 홍보와 마케팅 장소를 제공하며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아전람 사이버 건축박람회」와 병행해서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건축정보, 건축리노베이션, 조명, 조경, DIY 제품, 전원주택 및 펜션산업 전으로 펼쳐진다. 또한 동아전람 홈페이지에 사전등록을 하면 무료관람 초청장을 보내준다.

· 참가문의 : (주)동아전람 02-780-0366~7

2007 원도시-KNUA 하반기 세미나

2007 하반기 원도시건축 세미나는 상반기 인문 사회과학의 제 분야를 통한 아시아의 근대성에 관한 점검에 이어 아시아 근대의 도시성을 함께 논한다.

- 주제 : Neo Imagination of Asian Modern Urbanity
- 일정

▷ 9월 14일 : WDP&O(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국제현상설계)에서의 상상력 - 최윤경(중앙대 건축학과) / 토론 : 김일현(경희대 건축전문대학원), 김주령(JRKAssociates)

▷ 10월 12일 : 동아시아 도시의 역사적 상상력 - 한필원(한남대 건축학과) / 토론 :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 11월 15일 : 한국의 도시, 새로운 상상력 - 김성홍(서울시립대 건축학과) / 토론 : 조민석(Mass studies)

▷ 12월 14일 : Symposium II - Hypothesis for Asianess - China 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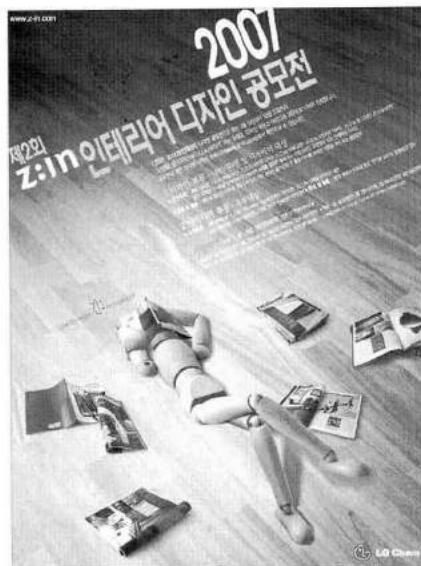
- 일시 :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저녁 7시
- 대상 : 건축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무료 공개강좌)
- 장소 : 원도시건축 지하세니마 강당
- 문의 : 02-543-4977

2007 JAD 국제 디자인 공모전 개최

2007 JAD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는 공간의 시각화, 시각의 공간화(Graphic Space, Space Graphic)라는 주제로 결합과 해제를 통해 경계와 제약이 없는 새로운 표피, 자연적으로 진화하는 디자인의 표피 등 표피의 혁명적 디자인 가능성이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다.

- 주제: 공간의 시각화, 시각의 공간화
- 출품자격: 국내외 대학, 대학원(석사과정) 재학생 및 및 휴학생,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공동출 품가능
- 원서교부: 2007년 8월 1일(수)~10월 18일(목)
- 작품접수: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 방문접수: 2007년 10월 16일(화)~10월 18일 (목) 10:00~17:00
- ▷ 우편접수: 2007년 10월 18일(목) 국내 소인 분까지 접수
- 결과 발표: 2007년 11월 2일 (금) www.jadidc.com에서 공지
- 시상식 및 작품전시: 2007년 11월 21일(수)~11 월 23일(금),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 3전시실
- 시상: GOLD 1팀, SILVER 1팀, BRONZE 5 팀, 특별상 15팀, 입선 다수
- 문의: 02-311-6558, www.jadidc.com

LG화학, '2007 Z:IN 인테리어 디자인공 모전' 개최



LG화학의 프리미엄 인테리어 브랜드 Z:IN이 '제2회 Z:IN(지인) 인테리어 디자인 공모전'을 오는 9월 14일부터 개최한다. 올해 공모전은 '사람을 생각하는(知:人) 인테리어'를 주제로 벽지, 바닥재, 도어, 주방가구, 창, 조명 등 다양한 제품 및 공간에 대한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디자인 부문은 대학생과 디자이너, 아이디어 부문은 주부가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동호회 최강전' 부문에서는 참가 주부 가운데 최다 출품자와 최다 수상자를 배출한 인테리어 관련 온라인 동호회에게 별도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공모전은 종합 대상 1천 만원을 포함, 총 상금 규모가 3천 7백여만 원에 이른다. 디자인 부문 수상자(팀)의 경우 상금과 함께 LO화학 입사 지원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양 부문 수상작들은 향후 Z:IN 제품 개발에 반영될 계획이다.

디자인 부문은 개별 및 3인 이내 팀 단위 응모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통해 작품을 출품해야 한다. 반면 아이디어 부문은 개별 응모만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은 10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하기 바란다.

- 공모주제: '사람을 생각하는(知:人) 인테리어'
- 공모대상

▷ 디자인 부문

- 전문가—전·현직 디자이너 및 관련업계 종사자
- 학생—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원)생 (휴학생 및 박사과정 포함)

▷ 아이디어 부문: 국내외에 거주하는 주부

- 접수기간: 2007년 9월 14일~10월 31일
- 당선작 발표: 2007년 11월 중순 이후 입상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 문의: 02-776-5160, www.z-in.com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010-3707-1 · 강동구건축사회/077-9494 · 강북구건축사회/093-4666 · 강서구건축사회/0261-6990 · 관악구건축사회/088-2490 · 광진구건축사회/048-5244 · 구로구건축사회/084-5828 · 금천구건축사회/059-1588 · 노원구건축사회/0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0349-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0927-0503 · 등작 구건축사회/014-8843 · 미포구건축사회/038-5566 · 서대문구건축사회/024-3810 · 서초구건축사회/0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0229-5055 · 성북구건축사회/027-3236 · 송파구건축사회/023-9158 · 양천구건축사회/026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0264-3102 · 울산구건축사회/0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057-6833 · 종로구건축사회/025-3914 · 중구건축사회/0266-4904 · 중랑구건 축사회/040-30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0)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6-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시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6848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80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 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968 · 평부지역건축사회/031-1876-0458 · 이천지역 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광명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충청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도건축사회/033-653-9880 · 충북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충주지역건축사회/033-837-6621 · 영동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308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목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청원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89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6-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30 · 예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세천지역건축사회/041-862-3388 · 논산지역 건축사회/041-8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852-2356 · 충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6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 건축사회/041-674-3733 · 진천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완산지역건축사회/063-6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6-90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63-801-036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시역 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시역건축사회/054-831-46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6-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6605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미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 건축사회/055-832-9006 · 양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6666 · 통영지역건축사회/055-8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64-7400 · 함안지역건축사회/055-585-8587 · 창녕지역건축 사회/055-533-247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7년 7월말

구 분 건축 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 사무소 소 계	합계	비율(%)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합계	5,172	5,172	139	278	17	54			5,328	5,504	1,546	1,546	284	568	68	204	27	108	32	229		
서울	1,108	1,108	38	76	8	25			1,154	1,209	863	863	183	366	43	129	14	56	19	137		
부산	482	482	16	32	3	10			501	524	89	89	18	36	4	12	3	12	3	19		
대구	418	418	25	50	6	19			449	487	64	64	17	34	8	24	0	0	2	11		
인천	237	237	2	4	0	0			239	241	47	47	10	20	0	0	0	0	0	0		
광주	216	216	2	4	0	0			218	220	34	34	6	12	1	3	2	8	3	20		
대전	200	200	13	26	0	0			213	226	28	28	9	18	3	9	0	0	2	21		
울산	166	166	9	18	0	0			177	186	16	16	3	6	1	3	0	0	0	0		
경기	699	699	6	12	0	0			705	711	221	221	21	42	2	6	1	4	1	5		
강원	166	166	2	4	0	0			168	170	21	21	3	6	0	0	0	0	1	5		
충북	180	180	5	10	0	0			185	190	28	28	3	6	1	3	2	8	1	11		
충남	179	179	3	6	0	0			182	185	37	37	2	4	1	3	4	16	0	0		
전북	199	199	3	6	0	0			202	205	26	26	1	2	2	6	1	4	0	0		
전남	141	141	0	0	0	0			141	141	9	9	1	2	0	0	0	0	0	0		
경북	320	320	7	14	0	0			327	334	28	28	3	6	1	3	0	0	0	0		
경남	359	359	8	16	0	0			367	375	26	26	4	8	1	3	0	0	0	0		
제주	100	100	0	0	0	0			100	100	9	9	0	0	0	0	0	0	0	0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율	
합계	8,159	10	8,259	100.0%	23
서울	2,760	3	2,763	33.9%	10
부산	692	1	693	7.9%	9
대구	620	0	620	7.7%	0
인천	308	0	308	3.8%	0
광주	297	0	297	3.7%	0
대전	302	1	303	3.7%	0
울산	211	0	211	2.6%	0
경기	989	2	991	12.2%	2
강원	202	0	202	2.6%	0
충북	246	0	246	3.0%	0
충남	245	3	248	3.1%	0
전북	243	0	243	3.0%	0
전남	152	0	152	1.9%	0
경북	371	0	371	4.6%	1
경남	412	0	412	5.0%	1
제주	109	0	109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分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미처리	합 계	비 고
회원 수	5,508	2,651	90	8,249	
비 율	66.77%	32.14%	1.09%	100%	
사무소수	5,333	1,953	-	7,286	
비 율	73.2%	26.8%	-	100%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VIEW



2007년 7월호는 공연시설의 최근 경향에 주목하고 있다. 점점 더 다양해지는 공연의 양태에 따라 이것들에 대응 가능하면서 지속성이 있는 공연시설의 요구가 늘어나고, 극장 수입만으로 극장을 건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면서, 극장시설의 사회적 역할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적용되었던 랜드마크로서의 극장시설에 대한 생각들은 유효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이번호에 다루는 공연 시설들은 바로 변화하는 역할 속에서 달리진 랜드마크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있다. 또한 영국건축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생공모전 기사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2등을 차지하고 있어 흥미롭다.

■ Books

이번호에는 서구중심의 건축계에서는 여전히 변방에 속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건축을 다루는 서적과 작도 도구와 도면 작성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근대를 조망하는 저작이 소개되고 있다.

- Russian Architecture and the west by Dmitry Shvidkovsky. New Haven & London : Yale Univ.. Press, 2007

- Tools of Imagination : Drawing Tools and Technologies from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edited by Susan C. Piedmont-Palladino.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6

- Hollow Land : Israel's Architecture of Occupation by Eyal Weizman. London : Verso, 2007

■ Project

National Ballet School of Canada(NBS)

(국립 발레 스쿨/캐나다 토론토/건축
사: KPMB, GBCA)

토론토에 있는 국립 발레 스쿨은 토론토를 그 자신을 위한 스크린처럼 활용하고 있다. 댄스 스튜디오는 거대한 쇼윈도우 같아서 스튜디오 안에서 일어나는 창작행위는 건물 외부의 도시적 삶과 연계된다. 또한 건물 주변에 있는 Jarvis 거리의 다른 건물들과 조화를 꾀하여 뒤쪽에 있는 분양아파트와 옆에 있는 Havergal 여대 건물은 발레스쿨과 충돌하지 않고 대지의 공적·사적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북쪽의 주택 건물을 발레 스쿨의 행정동으로 활용하여 그 주변에 새로 지어진 건물들과 간결하게 연결되면서도 중심적 위치를 놓치지 않고 있다. 3층 높이의 아트리움은 건물 내부에 작은 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고전양식을 취하고 있는 행정동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 콘크리트 기둥에 대리석같은 부늬를 넣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건물과 이전의 건물을 명백히 구분되면서도 분리되지 않는 연계성을 보여준다. 또한 메인 휴게 공간은 아트리움과 더불어 건물의 주요한 사교적 장이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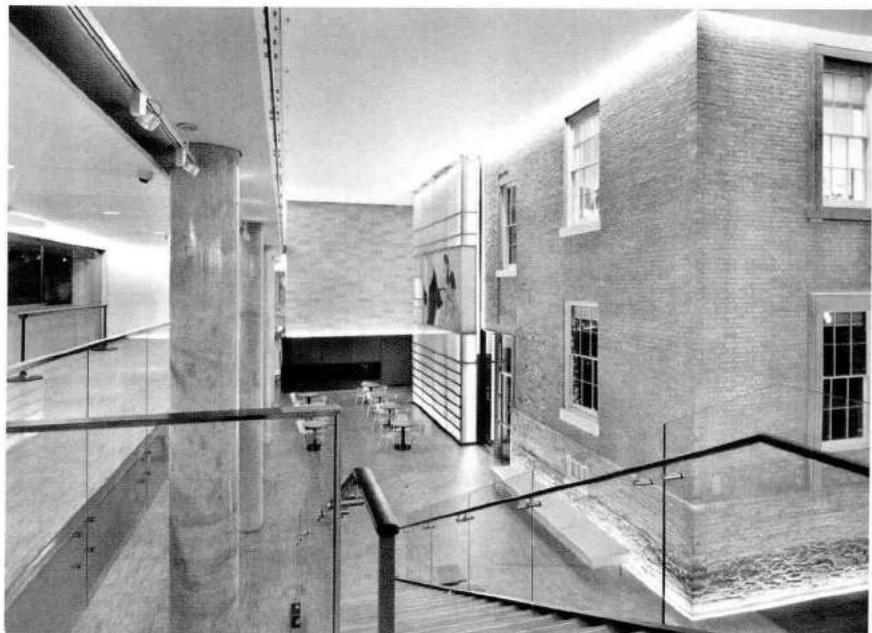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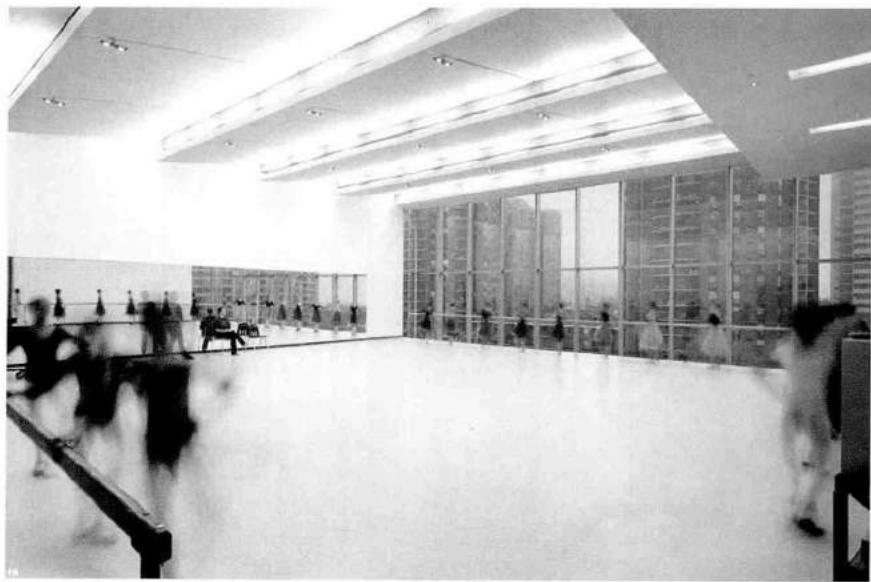


있다. 섬세한 토슈즈를 위해 고무바닥을 깐 다던가 주변 도시를 스튜디오의 배경막처럼 활용하기 위한 배려있는 디테일은 이 건축이 공연시설의 근본적 한계인 폐쇄성과 그럴듯 함을 향한 유혹에 대한 대답한 도발이다.

Tenerife Arts Center

(공연장; 컨벤션 센터/스페인 테네리페/
건축사: Artengo Menis Pastrana)

테네리페 아트 센터는 장소의 지질학적 잠재성을 고민하고 있다. 건물은 여행자를 위한 호텔과 유흥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대지에서 도드라진 외양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로 독특한 매스와 너울거리는 지붕 형태에 기인하는데, 특히나 지붕은 흐르는 듯한 곡선을 가지고 콘크리트 블록위에 걸쳐져 있어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콘크리트 블록 또한 거푸집무늬와 망치질에 의한 바리자용과 같은 독특한 텍스처를 통해 강한 운동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건물은 마치 건축물들이 앗아간 원래 대지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부분은 특히 주 출입구 부분에서 확인되는데, 바위나 오래된 유적의 기념비와 같이 서있는 콘크리트 블록과 바람처럼 율동하는 지붕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극적인 황폐함을 일으키는데, 이는 고온 건조한 스페인의 기후와 토양을 접할 때와 매우 유사한 감각을 전달한다. 내부에서도 이러한 느낌은 연결되어, 메인 홀과 이벤트 홀에서의 풍경은 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부분이다. 홀의 콘크리트 피어 사이사이에는 파티션이 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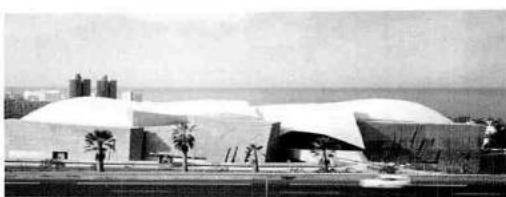
National Ballet School of Canada(NBS)

겨져 있어 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좌석도 고정좌석과 이동 좌석구역으로 혼용되어 이벤트에 따라 적절하게 좌석을 배치할 수 있다. 투박함과 극적임. 이 건물은 그 의도만큼이나 스페인의 지질학적 특성을 닮아 있다. 대지의 어떤 특성을 흉내내는 이전의 랜드스케이프 건축으로부터의 반성이 그 자체가 대지의 일부분이 되는 건축의 새로운 경향을 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Young Vic Theater

(극장/영국 런던/건축사: Haworth Tomkins)

극장 시설로 유명한 런던에서 근대 극장의 주요한 초기 건물중에 하나인 영 빅 극장이 재기 넘치게 리모델링 되었다. 몇 개의 매스가 결합된 형태의 건물은 좌측으로부터 물결모양으로 요철이 있는 벽돌조의 리허설 블록과 스틸과 목재로 된 포이어 공간, 현재까지도 푸줏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 개조된 오디토리움 공간으로 전개된다. 특히 요



Tenerife Arts Center

철 벽돌조는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면 드라마틱한 그림자를 건물에 드리운다. 푸줏간 내부는 이전의 내부 마감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 부착한 시설들과 극적인 대비를 만들고 있다. 2층 높이의 포이어는 좌우로 늘어진 극장 시설의 기능적 허브가 되고 있다. 건물에 새롭게 부가된 요소들은 원기 왕성하게 기존 요소들과의 충돌과 공존을 즐기고 있다. 여기 있는 모든 요소들은 압도적이거나

경쟁적이지 않다. 섬세한 디테일은 리허설 공간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집중력 있는 훈련을 위한 환경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다. 이 건물은 특히 랜드마크에 대한 고민이 두드러지는데, 현재 마법처럼 반복되고 있는 유명 건축가에 의한 대자본의 투입, 신묘한 형상의 대규모 시설의 건설의 관습에서 벗어나 활용에 의해 그야말로 그 지역을 인식시키는 장치로서의 랜드마크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

에서 영 빅 극장은 대단히 주목할만한 성과이다.(글/김훈/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선문대학교 계약직 교원, 부천대학교 출강) ■



Young Vic Theater